

페루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7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9
2. 주요 산업 동향 /19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4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5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9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33
대한수입규제동향 /33
관세제도 /34
주요인증제도 /38
지적재산권 /39
통관운송 /39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1
- 외국기업 투자동향 /46
- 우리기업 투자동향 /5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4
- 진출형태별 절차 /61
- 투자입지여건 /68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70
- 조세제도 /7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80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81
2. 물가정보 /83
3. 바이어발굴 /86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87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89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90
7. 이주정착 가이드 /91
8. 출장가이드 /93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페루(영문명: Republic of Peru, 현지어 국명: República del Perú)
위치	북쪽은 에콰도르, 콜롬비아, 동쪽은 브라질, 남쪽은 칠레, 볼리비아 접경
면적	1,285천km ² (산림지대 53.2%, 목초지 21.2%, 경작지 2.7%)
기후	리마를 포함한 해안지대: 사막성 기후 안데스 산맥 이동의 산악지대: 열대성 기후
수도	리마 (Lima, 해안과 접해 있는 저지대)
인구	총 2,615만 명 (2005년 센서스), 리마인구 약 782만 명
주요도시	Lima(695만명), Arequipa (86만명), Trujillo (77만명), Chiclayo (74만명), Piura (64만명), Maynas (49만명), Huancayo (45만명), Santa (39만명), Cusco (35만명), C. Portillo (32만명), Ica (30만명)
민족(인종)	인디오 50%, 메스티조 37%, 백인 12%, 일본 및 중국계
언어	스페인어
종교	카톨릭교 (92.5%), 기독교 (5.5%), 기타 (2.0%)
건국(독립일)	1821. 7.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보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Alán García Pérez / 취임일: 2006. 7. 28 임기 5년(재임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

자료원: 페루 통계청 INEI

나. 경제지표 (2006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8%
1인당 GDP	US \$2,591(2004), US\$2,915(2005), US\$3,388(2006), 3,379(2007.9)
실업률	7.3%
물가상승률	2%
화폐단위	누에보솔 (Nuevo Sol)
환율	US\$ 1 = 2.97 Sol
외채	US\$ 303.8 억불(2007. 9)
외환보유	US\$ 262.4 억불(2007.12)
주요업종별 성장률	농목축업 7.2%, 어업 2.7%, 광업 1%, 제조업 6.6%, 에너지상수 6.9%, 건설 14.7%, 상업 12.1%, 기타 서비스 8.2%
교역규모	수출 US\$ 22,308.2백만, 수입 US\$13,824.8백만
교역품	주종 수출 품목: 광물, 수산물, 석유류, 농수산 가공품 주종 수입 품목: 중간재, 자본재

자료원: EIU, 페루 통계청 INEI, 관세청, 페루 중앙은행 등

다. 韓-페루 관계 (2006년도 기준)

체결 협정	통상 협정('76), 사증면제 협정 체결('82),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84), 문화 협정('88), 투자보장 협정('93), 남극협력 협정('96), 어업 협정('96. 9 가서명), 항공 협정 ('02. 7 가서명), 범죄인도 조약 서명 ('03. 12), 관광 협정 서명('02. 12.10) 및 발효('03. 1. 29)
교역 규모	1,035백만 불(對 페루 수출 359백만 불, 對페루 수입 676백만 불)
교역품	對페루 주종수출품목 - 자동차, 전자제품, 식물, 합성수지 등 對페루 주종수입품목 - 광산물, 농수산물
교민	교민 수 약 800명(2006년 추정)

자료원: 페루 통계청 INEI, KOTIS 등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 조직

페루는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임기 5 년제이며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재임은 허용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제 1,2 부통령 등 2 명의 부통령을 두고 있으며, 총리도 별도로 두는 특이한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 행정부는 현재 아래와 같이 15 개의 정부부처를 두고 있다.

1. 농업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2. 대외무역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3. 국방부 (Ministerio de Defensa)
4. 교육부 (Ministerio de Educación)
5.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6. 법무부 (Ministerio de Justicia)
7. 여성사회개발부 (Ministerio de la Mujer y Desarrollo Social)
8. 생산부 (Ministerio de la Producción)
9. 외교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10. 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11. 교통통신부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12. 건설부 (Ministerio de Vivienda y Construcción)
13.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14. 노동부 (Ministerio de Trabajo y Promoción del Empleo)
15. 재정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입법부의 경우 페루는 단원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의석은 120 석이다. 2001 년 4 월 8 일 총선 결과 절대 다수당은 없었으며, 정치성향이 유사한 정당 간의 정책공조가 불가피하였다.

반면, 2006년 4월 總選에서는 “페루 민족주의자결당(Partido Nacionalista Peruano)”이 “국민단결당(Unión Por el Perú)”과 연합해 가장 큰 의석 수를 확보하였으며 2위는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 당선자 정당인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당(APRA-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이 차지하였다.

2007년 9월 기준 정당별 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 Unión Por el Perú(Partido Nacionalista 23 + Unión por el Perú 19) : 42석
- Partido Aprista Peruano : 36석
- Unidad Nacional : 15석
- Alianza por el Futuro(Fujimorista) : 13석
- Alianza Parlamentaria(Perú Posible 2 + Restauración Nacional 2 + Frente de Centro 5) : 9석
- Grupo Parlamentario Especial Demócrata : 5석

지역별 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알파벳순)

- Amazonas: 2 석
- Ancash : 5 석
- Apurímac : 2 석
- Arequipa : 5 석
- Ayacucho : 3 석
- Cajamarca : 5 석
- Callao : 4 석
- Cusco : 5 석
- Huancavelica : 2 석
- Huanuco : 3 석
- Ica : 4 석
- Junín : 5 석
- La Libertad : 7 석
- Lambayeque : 5 석
- Lima : 35 석
- Loreto : 3 석
- Madre de Dios : 1 석
- Moquegua : 2 석
- Pasco : 2 석
- Piura : 6 석
- Puno : 5 석
- San Martín : 3 석
- Tacna : 2 석
- Tumbes : 2 석
- Ucayali : 2 석

페루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하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정치 제도

-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다.
 - 대통령 被選舉權 자격은 페루 출생으로 35 세 이상인 者라야 한다.
 - 선출은 국민 직접선거로 하되 1 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는 1 차 선거 1,2 위 후보가 2 차 경선 투표에 들어가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 대통령 외에 제 1, 2 부통령 제도를 두고 있다.
 - 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과 임기는 대통령과 동일하다.
- 정부조직으로는 실무를 담당하는 15 명의 각료로 구성된 각료회의와 정부 부처를 두고 있다.
- 국무총리는 각료 중 1 명이 겸임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 국회의원 의석 수는 120 석이며 임기는 5 년이다.
 - 선출방법은 지역구 방식이 아닌 전국구 형태인 정당/개인후보 지명 투표 방식
 - 각 정당후보 중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득표 순에 의거 120 명을 결정
- 국회의장단은 의장 외 3 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1 년이다.
 - 의장단은 대부분 전원 여당인 경우가 많다.
- 국회 회기는 1 기는 매년 7. 27-12.15 일간이며, 2 기는 3.1-6.15 일간이다.
 - 산회기는 각 상임위원회가 국회활동을 대행한다.
-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하급법원)으로 구성된 3 심제이다.
 - 대법원장 임기는 통상 5 년이지만 대통령이 임의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법관은 중앙 법관 추천회의에서 임명된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Defensor del Pueblo(국회에 의해 임명 되는 호민관(護民官)으로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 제도가 있다.
 - 현 Defensor del Pueblo : Beatriz Merino

다. 정치사회 동향

- 2006 년 7 월 中道左派 Alan Gracia 정권이 들어선 이후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80 년대 후반과 같이 좌파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親기업의 경제정책 및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 Alan Gracia 정부는 대체적으로 기업계, 투자가에 우호적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때마침 페루 주종상품인 광물 등 원자재 가격도 국제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對美수출도 미국의 특혜 공여로 앞으로 당분간은 페루경제가 호황을 보여 정권지지도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Alan Gracia 정부는 공무원보수 동결 및 국가예산 축소 등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前 Toledo 정권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국민에게 刻印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한편 서민, 빈민층 및 사회소외계층 구제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으로는 Ollanta Humala 등 야당과의 충돌 및 지방 정치세력과의 원만한 국정운영 등의 중요 과제도 남아 있다. 일례로 對美 FTA 에 있어서 Ollanta Humala 는 현재 체결한 협정문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 前대통령 Alberto Fujimori 가 칠레를 방문하던 중 家宅軟禁된 이후 페루 정부는 줄곧 인권침해, 부패 등의 혐의로 Alberto Fujimori 를 범죄인으로 인도해 줄 것을 칠레에 요청해 왔으나 예상 외로 2007.7.11(水) 칠레 지방법원 판사 Orlando Alvarez 는 증거불충분, 입증 불능 등의 이유를 들어 인도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려 페루는 즉각 이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였고 결국은 칠레 대법원(Corte Suprema)가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칠레의 1 차 결정에는 칠레-일본 FTA 체결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칠레의 實益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Fujimori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00.11.19 : Alberto Fujimori, 일본 방문 중 페루대통령직 사임 의사 fax 로 표명
 - 2002.4.22 : 페루 정부, Alberto Fujimori 의 인도를 일본정부에 요청
 - 2005.10.6 : Alberto Fujimori, 대통령선거 再出馬를 위한 페루 복귀의사 표명
 - 2005.11.6 : Alberto Fujimori, 傳賞機 편으로 칠레에 예고 없이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칠레경찰에 연행
 - 2006.5.18 : Alberto Fujimori, 保釋金으로 假釋放
 - 2007.6.7 : 칠레 최고 검사 Monica Maldonado, Fujimori 의 페루 인도를 법원에 요구
 - 2007.7.11 : 칠레 지방법원 판사 Orlando Alvarez, Fujimori 페루 인도 거부
 - 2007.9.22 : Fujimori 페루 복귀
- 한편 2007 년 7 월 기준 리마를 비롯한 지방 다수 지역에서 정치성 시위가 계속되어 여러 공공서비스에 지장을 주거나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페루의 잠재적 사회불안 요인이 아직 곳곳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이 같은 시위는 주로 “전국노동자연맹(Confederac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Perú : CGTP)”, “붉은 조국(Patria Roja)” 등 노동자단체 및 좌익계열 단체들이 주동하고 Ollanta Humala 등 좌익 정치인들이 가담함으로써 그 과격성을 더해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교원처우개선, 노동자 복지향상, FTA 체결 반대, 무분별한 광업프로젝트 허가 자제 및 국가주권 수호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Tumbes, Cajamarca, Amazonas, San Martín, Loreto, Ucayali, Junin, Apurímac, Cusco, Madre de Dios, Puno, Tacna, Moquegua, Aerquipa, Ayacucho, Huancavelica, Pasco, Ica, Huánuco, Ancash, La Libertad, Lambayeque, Piura 등 전국적 범위로 수만명이 同時多發的인 데모를 계속하고 있다.

라. 경제동향 개요

- 현 Alan Gracia 정부는 긴축재정, 인플레이션억제, 시중 통화량 조절 등을 통해 건전한 경제정책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제 1 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 빈곤퇴치, 빈곤층 생활수준 향상 등의 당면과제도 함께 추진하여야 하므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면서 사회구제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양자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 정부 사회정책의 최대 과제로 알려지고 있다.

-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 2003년 5월 페루 의회가 통과시킨 “재정책임투명성촉진법(Fis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Law)”에 의하면 비금융 공공분야(NFPS) 적자가 GDP 대비 1%를 넘지 않아야 되며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도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 Alan Gracia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경우 페루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 페루중앙은행(BCRP)은 2002년 이후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2.5% 상하 1% 선에서 억제하는 정책을 줄곧 추진하고 있다.
- 2006년에는 수출 증대, 투자 촉진, 민간 소비 확대 등의 요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7.5%에 달하였으나 2007년 및 2008년에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상수지 흑자 및 미화 약세에 따라 對美貨 환율이 최근 절상을 계속해 2007년 5월 기준 US\$1:3.1 슐 정도의 비율이다.
-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일 전망이나 수입 증가 및 민간분야 소비 증가로 흑자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를 조기 상환해 나감으로써 국제신인도를 높이고 국가위험도를 낮추는 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 2006년 6월 페루의회가 미국과의 무역촉진협정(Trade Promotion Agreement) 체결에 동의하였으나 미국의회가 협정 체결사안을 체결하지 못해 협정시행이 지연되었는데 미국 의회는 민주당 세력을 중심으로 페루와의 협정에 노동기준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페루는 수용의사를 보여 협정문 개정안을 2007년 6월 의회 통과시켰다. 12월 4일 미상원 통과 후 14일 미 대통령 최종 비준으로 2008년 중 발효 예정이다.
- 무역촉진협정은 기존의 안데안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안(Andean Trade-Provision and Drug-Eradication Act : ATPDEA)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ATPDEA는 2006년 12월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무역촉진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1년 연장되었으며 2007년 내에 ATPDEA가 미국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무역촉진협정이 다시 2008년까지 연장되어 페루에게는 큰 특혜협정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페루는 싱가포르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내로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편 중국과도 2007년 내에 FTA 협상을 개시해 2008년 APEC 개최 시까지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한국과의 FTA도 체결을 희망하고는 있으나 당면 목표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과 페루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도로를 완성하면 브라질과의 인적, 물적 왕래가 더욱 활발해짐은 물론 양국간 교역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페루는 칠레와도 2006년 8월 양국간 경제 보완 협정을 체결한 후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 상호 협력을 긴밀화하고 있다.
- 그러나 날이 갈수록 대통령 Alan Garcia의 인기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월 리마 대학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Alan Garcia의 지지도는 3월 50.3%, 4월 44.5%, 5월 49.9%, 6월 41.3%에서 41%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지도 하락은 비록 거시경제 지표가 대부분 好轉되고는 있으나 실제 서민이 느끼는 경제상황 기대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英國 The Economist誌는 2007년 7월 말 현재 페루 알란가르시아(Alan Garcia) 대통령의 제 2차 집권이 만 1년을 맞는 가운데 대중인기도는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지지도는 사회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아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 1985-1990년 제 1차 집권시기에 페루경제를 파탄시킨 것으로 비판 받는 알란가르시아는 이번 제 2차 집권기간에는 오히려 親기업적이고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기업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이에 따라 그의 左翼 편향 정치성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일단 자제하면서 앞으로 페루경제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다.
- 페루경제가 최근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라 앞으로 국민육구 또한 분출하고 심각한 사회불안 및 사회분열 발생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알란가르시아는 運이 좋게도 前任 대통령인 후지모리 및 톨레도가 아룩해 놓은 성장기조의 경제를 그대로 물려 받았고 鑛物 등 원자재 국제시장 가격도 高空勢를 계속하고 있으나 의회 등에서의 야당 및 반대세력이 그 위치를 더욱 굳혀 가고 있어 앞으로 통치력을 얼마나 발휘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稅收 및 재정수입 증대로 여러가지 사회정책을 실시하겠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며 그 가운데 잠재적 육구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상수도, 보건 위생 시설, 도로 건설 등 기초 사회 기간 시설에의 공공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긴 하나 이는 곧 긴축 정책 개념과 모순되는 것이기도 하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중고 자동차 수입 허용 기간 연장키로; 당초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연장

페루는 중고자동차 수입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중남미국가 중의 하나로 중고 자동차를 주로 택시용으로 많이 수입하였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티코, 씨에로, 르망 등 대우 자동차

위주로 대량 수입하였었는데 최근 몇 년간 페루 정부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중고 자동차 수입 규제 차원에서 그 동안 허용해 온 5년식 이하 중고 자동차 수입을 2년식 이하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6월 페루 정부는 종전과 같이 5년식 자동차 수입을 최소 2008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하여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업체가 한숨을 쉬게 되었다.

페루의 중고 자동차 수입 현황을 보면 2003년도의 경우 전체 수입차 가운데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6%였고 2004년 또한 총 수입량 중 70%로 약간은 하락세를 나타내지만 아직까지 페루로 수입되는 중고차의 비율은 전체 차량 수입액 중 매년 70% 내외를 차지한다. 이는 페루 국내 자동차 생산이 없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아직 일인당 국민소득이 2천 5백불 정도로 낮은 편이라 새 차보다 중고차를 선호함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이다.

페루로 수입되는 중고차 중에서 소형차종으로는 Toyota Corolla, Nissan Ad Ve, Nissan Ad Dx, Daewoo Tico, Nissan Ad Max, Toyota Caldina, Toyota Sprinter, Nissan Sunny, Mazda Familia, Mitsubishi Libero, Toyota Scarlet과 Nissan Avenir 순이다.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는 Mitsubishi Pajero, Daewoo Damas/Coach Van, Hyundai Porter, Toyota Townace, Hyundai Grace, Nissan Caravan, Toyota Hilux, Nissan Vanette 순으로 수입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고차는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총 차량 수입액 중 각각 74% 와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칠레와의 국경 지역인 Tacna 등과 같은 항구에서는 운전석이 우측으로 한 일본 차를 대량 수입하며 운전석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지 산업을 부흥시키고 실업률을 낮춘다는 이유에서 30%에 이르는 특소세를 Tacna로 수입하는 차량에 한해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과거 후지모리 시절부터 있어 왔던 일본제품 특혜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제2의 對페루 중고차 수출국인 만큼 200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중고 자동차 수입금지법안이 2008년까지 연장되어 아직까지 페루로의 중고차 수출은 전망이 밝은 편이다. 현재 중고자동차 수입업자들이 對정부 로비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2008년에도 중고자동차 수입금지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나. 2005년 5월 이후 한국산 석유류 수출 시 세이프가드 적용 안 함

2004년 10월 14일 처음 발동해서 200일 동안 이어졌던 페루의 석유류 세이프가드가 2005년 5월 4일 전격 철회되었다. 총 20개 석유 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동 조치는 한국의 경우 3개 품목이 대상이 되었던 만큼 우리 수출업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당시 페루 생산부장관 David Lemor 씨에 의하면 페루의 소비자 보호, 특히, 반덤핑 관련 기관인 INDECOPI(Instituto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e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의 조사보고서를 받아 본 뒤 석유류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페루로의 석유 수입량이 111%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지 생산량도 34%나 증가한 만큼 석유 세이프가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석유류 수입시 과도한 언더밸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석유류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가격을 선정해 놓은 뒤 수입되는 품목 가격이 그 이하일 경우 미리 책정된 최소 가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을 1불에 수입했는데 정부에서 책정한 최소 가격이 3불이라면 인보이스 가격과 상관없이 3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동 조치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지만 현재 페루로 수입되는 동일한 석유류의 가격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격에 비해서 60% 가량이나 낮은 점을 미루어 이와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페루의 석유류에 대한 관세 문제는 최근 몇 년 간 제도 변경을 거듭하면서 거론해 온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다. 한국과도 FTA 체결 추진

페루도 FTA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수출증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이에 따라 페루 [통상관광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y Turismo\)](#) 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前 정권부터 구상해 온 통상협정 체결 확대정책을 가속화 하고 있다.

페루는 FTA 확대와 관련, 시장진출 우선순위에 따라 세계시장을 네 개의 시장으로 나눈 바, 첫째는 선진국 전략시장이고, 둘째가 고성장 개발도상국, 셋째가 광역시장, 넷째가 기자재 공급 광역시장 등이다. 이 중 페루가 현시점에서 최근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것은 첫째 시장으로 이에는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EU,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유럽 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포함된다.

- 페루가 현재까지 분류한 FTA 체결 대상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협정발효국: 남미 공동시장(Mercosur),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협정체결국: 미국(2008년 중 발효), 태국, 칠레
 - 협상진행국: 멕시코
 - 협상 개시 예정국: 캐나다, EU, 중국, 한국, 유럽자유무역연합
 - 장기 협상 체결 추진국: 호주, 남아공, 인도, 러시아, 모로코, 일본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페루는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집권 시절 90년대 초부터 과감한 민영화를 실시한 바, 현재는 광산업, 통신업, 운송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이 투자 진출해 있다. 페루경제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심의 민간부문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lejandro Toledo 前대통령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과거 후지모리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큰 차이점이 없었으며 기본 정책방향은 경제성장, 고용증대, 대외경제협력, 물가안정, 빈곤퇴치를 최대 현안으로 삼았었다. 그 뒤를 이어 2006년 7월 알란가르시아(Alan García)가 대통령으로 다시 집권한 후에도 前 정권 경제정책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정책은 광업, 농수산업 및 건설업 부문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 촉진 및 고용 창출을 추진 하고 있으며, 소요 자원조달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와 외국인투자 및 주요 선진국 경제원조 유치, 국제금융기구(IBRD, IDB, CAF 등)로부터 신규 외자조달 등에 총력을 경주 하고 있다.

미국의 안데안국 상품수입에 면세하는 안데안특혜관세법(ATPDEA)을 활용한 對美수출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ATPDEA이란 미국에서 자국의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공급국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에 코카인 등 마약작물을 대체하여 생산된 5,500가지 품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안데안특혜관세법(ATPDEA) 혜택을 많이 받은 페루는 ATPDEA 종료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FTA 체결에 정성을 기울여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남겨 놓은 상황이었으나 미국 의회의 무역촉진법안(TPA) 처리가 지연되어 ATPDEA는 1년 연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美-페루 FTA에 노동 및 환경 문제를 삽입할 경우 美의회가 이를 승인해 줄 것이라고 2007년 5월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對美 FTA 문제는 활기를 되찾아 12월 14일 드디어 미 대통령의 최종 비준에 이어 내년도 8월부터 발효 될 예정이다.

페루 정부는 현재 태국과의 FTA 또한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고 유럽공동체, 싱가포르와도 협상 중이다. 2005년 11월에는 톨레도 대통령이 APEC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에도 FTA 체결을 건의한 바 있다. 중국과는 2007년 중 협상을 개시해 2008년 APEC정상회담 개시 때까지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페루는 전면적인 대외개방 정책으로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과세제도, 기업에 대한 간섭 및 사회적 책임 부과, 융통성이 떨어지는 관료주의 등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2006년 7월 28일 정권을 잡은 Alan Garcia 대통령은 선거 당시 아래와 같은 선거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가. 보건·사회 분야

-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추진
- 상수도망 확충
- 사회소외계층에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유전자 약품의 저가 공급제도 등
- 新 정부 출범 후 6 개월 중 10 만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추진(농가에 대한 금융 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
- 국가 사회분야 사업을 총괄할 기구 설립

나. 교육

- 지방정부에 교육분야 권한 이양 완결
- 지방 교육 특별우대
- 전일 교육 실시를 목표로 수업시간 점진적 확대
- 교육분야 예산을 GDP 6% 까지 증액(매년 0.25% 증대)
- 「외채-교육투자」 전환 프로그램 추진
- 교원 봉급인상 및 성과급 제도 도입

다. 무역, 경쟁력

-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구 개편
- 정부조달의 최소 30%를 중소기업에 배정
-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강화
- 2008년 APEC 의장국 수임

라. 인권·사법제도

- 사법적 보호에 대한 전국민의 접근보장 및 인권보호
- 충분한 예산 하에 사법기관의 독립적 운영시스템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
- 시민 판사제도 또는 사법부 운영에 시민 참여제도 제안

마. 빈곤퇴치

- 빈곤퇴치 통합기금 설립
- 초등학교 급식 제도 도입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발전 기금 창설

바. 국정효율·투명성 증대

- 전자정부 구현
- 직업 공무원제도 개혁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근절
- 반 부패업무 관련 국가기관, 시민단체 강화
- 감사원장을 야당 측 추천인사 중 의회가 임명

사. 지방자치

- 각급 지방단체 권한을 법률로 규정, 업무·권한 중복 방지
- 광역 수도권 및 지방경제 중심지 구조하에 장기적인 지방 분권정치 추진
- 조세의 지방배분 기준 개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립

아. 치안, 폭력 근절

- 국립경찰의 현대화와 경찰 처우 개선
- 대화와 합의를 통한 사회분쟁 해소 정책 시행
- 테러리스트 활동지역의 평정화 및 코카인 대체사업 강화
- 수형자 감형 혜택 축소 및 재범자에 대한 감형 금지

자. 마약문제

- 마약거래 및 소비문제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취급
- 마약 및 마약제조 물질의 거래 관련 돈세탁 단속 강화
- 빈곤대처와 연계되도록 마약 대체개발 프로그램 개혁

차. 천연자원 및 사회 간접 자본

- 유류가격 인하(에탄올 혼합사용 및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통해 가격인하 추진: 약 25% 인하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기업과 기존 Camisea 가스전개발 계약 재교섭
- 수도권 및 내륙지방 저소득층에 대한 상수도 공급망 확대
- 28개 내륙연결 도로 건설
- 서민층의 주택보유 확대 사업 시행

카. 경제, 고용 확대

- 연간 7% 성장 달성과 '견실한 고용' 창출
- 1일 8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지불, 부당해고 방지제도 확립
- 산간벽지(Sierra)의 수출창출 사업시행(집권 5년간 일자리 30만개 창출)
- 중소기업, 농업 및 공예산업에 대한 새로운 금융지원 계획 시행
- 미국과의 FTA 서명 지지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최근 국제광물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외국계 광산 및 석유 회사와의 계약을 재교섭하겠다고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가끔惹起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 정책방향인 경제성장, 고용증대, 대외경제협력 확대, 인플레이 안정, 빈곤퇴치 등 정책기조는 과거 정권과 큰 차이가 없다.

2006년 페루 경제는 8%의 고도성장세를 보였다. 페루중앙은행(BCRP)에 따르면 페루는 2001년 0.2%, 2002년 5.2%, 2003년 3.9%, 2004년 5.2%, 2005년 6.4%에 이어 2006년에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성장세를 주도한 분야는 非1차산품제조업, 건설, 상업, 서비스업 등이며 최근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누적치를 기준으로 할 때 페루는 31.7%로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에콰도르 27.7%, 칠레 25.5%, 아르헨티나, 25.0%, 콜롬비아 22.9%, 베네수엘라 18.0%, 볼리비아 17.6%, 우루과이 16.0%, 멕시코 14.5%, 브라질 13.4%).

알란 가르시아 정부 집권 1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정권 초기의 반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차 집권기(1985-1990)와는 달리 친 기업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기업계의 지지를 비교적 많이 얻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장세는 지난 후지모리 시기에 씨를 뿌린 결과이며 국제시장에서 광물가격이 고공세를 보인 것이고 알란 가르시아는 단순히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계속 강조하면서 상수도망,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계속 부르짖고 있다.

실질소득수준 상승, Camisea천연가스 개발분야 투자 확대, 광물수출 증가, 의류직물 및 농산물 생산 증대 등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전한 통화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물가는 연말 2%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2008 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페루정부는 2007.8.15(水) Ica, Pisco 등지를 강타한 7.9도 지진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시급한 재건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 595명, 실종자 318명 등을 포함해 총 32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무너져 재건축하거나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주택은 7만6천 개에 이른다.

□ 대외관계

페루 대외정책, 특히 통상정책의 초점은 미국과의 FTA를 하루라도 빨리 美의회에서 통과 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최종 비준을 받은 후 발효 절차를 밟는 일이었는데 12월 14일 최종 비준 결정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미국과의 FTA 체결이 발효 될 때까지 ATPDEA의 효력을 연장 할 계획이다.

□ 경제정책 기초

알랑가르시아의 이념은 원래 좌파로서 1985년-1990년 1차 집권 시에는 매우 폐쇄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을 펴므로써 페루경제를 파탄으로 몰아 넣었으나 2006년 7월 2차 집권한 이후에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듯 투자에 개방적이고 親 기업적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긴축재정, 물가안정, 환율안정 등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빈곤퇴치 및 서민생활수준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입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히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커지고 있다. 공공분야 투자 증대 이외에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체 투자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 재정정책

2003년 제정한 재정책임투명성법(Ley de Responsabilidad y Transparencia)에 의하면 비금융 공공분야 적자는 GDP 총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도별 재정지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다. 알랑가르시아는 이러한 요건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 2006년 대규모의 재정흑자가 있는 후 2007년 상반기에는 역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세 증가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Ica 지진복구).

□ 통화정책

페루중앙은행은 2002년 이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연 인플레이션율을 1-2%대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2007년 7월 기준이자율은 4.5%에서 4.75%로 상승하였다. 중앙은행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경우 이자율을 올린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 경제성장

2007년 전체적으로 7.1%의 경제성장을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8%에 이르렀다. 2008년에도 민간소비 및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것은 주로 건설분야 취업인구 증가, 수출산업 확대, 물가안정세 지속, 美貨 대비 국내화 강세 등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2008년까지 Camisea 가스개발 투자 확대, 다수 광업프로젝트 본격화 등으로 전체적인 투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페루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기반으로 사회프로그램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 항만 등 운송시설 확대 및 저비용 주택보급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2008년까지 수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Cerro Verde 銅鑛이 이루어지면서 광물 수출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으며 농산품 및 의류식품 對美수출도 붐을 이루고 있다. 미국이 FTA를 비준할 경우 對美 수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2007년 5월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약간 올라가는 기미를 보여 7월 인플레이션율이 2.2%에 이르렀으나 기초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인플레이션율은 2.2%에서 유지되어 당초 목표인 2%대를 달성하고 중남미에서 가장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인플레이션율은 2.1%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물가안정의 기반은 역시 환율의 안정으로 알려진다. 2001년 이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9%로 페루중앙은행의 물가안정정책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

□ 환율

명목 對美貨 환율은平價切上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 물가안정 및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약간씩의平價切下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8월 중순 US\$1당 3.15누에보솔로 연 12% 평가절상 비율을 보이면서 연말에는 2.97 수준에 달하였다. 이 같은 평가절상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공급 증가로 인한 것이나 2008년 경상수지 규모가 줄어들면서 환율도 약간씩 평가절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 system)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외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기적으로 개입해 환율불안을 줄이고 있다.

□ 대외부문

2007년 무역수지 흑자는 US\$36억에 달해 2006년 대비 5.1%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銅, 납, 아연 등 수출 증가는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 건설, 운송 분야 자본재 수입이 활발한 상태이다. 미국경제가 약간씩 둔화되면서 수출입증가세 또한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구분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성장률(%)	6.4	8	7.1	5.4
산업생산증가율(%)	6.9	9.5	6	5.5
총 고정투자증가율(%)	13.6	19	18.9	10.1
실업률(%)	7.6	7.5	7.4	7.3
소비자물가증가율(%)	1.6	2	1.3	2.3
연도 말 소비자물가증가율(%)	1.5	1.1	2.2	2.1
은행간 단기이자율(%)	25.5	23.9	24.5	23.5
GDP대비非금융분야 재정적자비율(%)	-0.3	2	0.4	0.2
수출(FOB US\$십억)	17.3	23.7	26.2	27.8
수입(FOB US\$십억)	12.1	14.9	18.2	21.9
경상수지(US\$십억)	1.1	2.5	1.7	0.5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1.4	2.6	1.6	0.5
연도 말 외채(US\$십억)	28.7	28.3	27.6	27.3
對美貨 환율(누에보솔)	3.3	3.27	3.17	3.19
연도 말 對美貨 환율(누에보솔)	3.43	3.2	3.18	3.21

자료원: EIU

외환사정도 好調를 보여 2006년 말 외환보유고가 172억7천5백만 달러에 達함으로써 14개월 분의 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對美貨 평가절상으로 페루 정부는 2006년 39억4천6백만 달러의 미화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91%는 8~12월 기간 중에 실시하였다. 國家危險度도 호전되어 2006년 대통령 선거 이전만 해도 J.P. Morgan 등 주요 신용도 평가 단체가 對페루 투자를 만류하였으나 11월 현재 페루는 투자가능 지역 으로 분류되어 중남미에서는 가장 投資魅力度가 높은 群에 속해 기업체 주가도 지속 상승 하고 있다. 페루는 2006년 우수한 경제성장세를 기록한 데에 이어 2007년에도 GDP성장률, 1인당 국민 소득, 인플레이션, 환율, 무역수지 등 모든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6
수출	7,028	7,505	7,688	8,806	12,547	17,368	23,800	12,334
수입	7,359	7,197	7,427	8,454	9,818	12,082	14,866	8,712
수지	△331	△90	261	352	2,729	5,286	8,934	3,622

자료원: COMEXPERU, SUNAT

대상국별 수출현황

(단위: US\$)

순위	대상국	2005	2006	2007.1-9
		17,324,105,212	23,498,367,418	17,160,485,523
1	미국	5,340,726,376	5,625,376,403	3,148,171,937
2	중국	1,879,199,415	2,236,381,848	2,075,921,893
3	스위스	786,390,849	1,687,539,974	1,459,635,310
4	일본	606,850,662	1,216,084,510	1,344,114,269
5	칠레	1,097,526,493	1,401,644,251	1,052,580,717
6	캐나다	1,033,984,348	1,606,105,597	1,018,958,213
7	스페인	558,366,504	757,075,910	644,538,333
8	브라질	457,932,659	805,885,840	630,048,098
9	한국	227,430,060	539,702,885	614,336,920
10	독일	536,645,988	798,136,383	523,078,609

자료원: 페루수출협회(ADEX)

國別 수입현황

(단위: CIF US\$, %)

순위	원산지국	2005	2006	2007.1-8	점유율
		12,562,285,979	14,619,211,768	12,678,869,345	
1	미국	2,223,464,638	2,400,847,390	2,105,724,665	16.61
2	중국	1,062,546,755	1,490,611,442	1,495,688,030	11.80
3	브라질	1,031,852,446	1,538,689,005	1,213,706,718	9.57
4	에콰도르	912,599,682	1,077,203,755	880,422,015	6.94
5	아르헨티나	729,354,431	758,320,502	757,410,879	5.97
6	콜롬비아	776,199,578	909,699,268	646,130,987	5.10
7	칠레	617,648,474	823,351,650	533,213,911	4.21
8	일본	445,274,535	535,620,532	488,596,567	3.85
9	멕시코	365,547,555	490,606,892	471,440,993	3.72
10	독일	403,281,798	481,936,507	428,376,315	3.38
11	한국	351,176,141	374,313,088	344,179,634	2.71

자료원: 페루수출협회(ADEX)

2006년 한국-페루 교역도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對 페루 수출은 전년 대비 27.1% 늘어난 3억5천9백만 불, 수입은 전년 대비 170.9%가 증가한 6억7천6백만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의 對 페루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2007년에도 교역규모가 급증 추세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 페루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휴대폰 등의 수출 증가세 의 결과이며 수입증가 원인은 아연, 구리, 철광 등 광물수입 증가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페루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06		2007(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59	27.1	424	33.9
수송기계	81	45.5	116	53.1
석유화학제품	66	2.4	65	0.9
산업용전자제품	38	24.6	62	70.5
철강제품	28	202.7	39	50.6
산업기계	19	77.9	25	55
정밀화학제품	19	37.5	25	43.7
가정용전자제품	21	19.9	20	1.6
직물	15	41.7	16	24.4
고무제품	12	-8.3	14	34.9
제지원료및종이제품	9	34.4	9	-0.6
플라스틱제품	6	27.3	8	41.3
섬유사	6	57.3	7	27.4
섬유원료	3	-9.6	3	-6.7
기계요소공구및금형	3	5.9	3	-4.7
기초산업기계	2	62.3	2	54.7
섬유제품	2	-12.4	2	8.1
전자부품	1	32.1	1	22.5
정밀기계	1	-35.2	1	-7.2
가구	1	86	1	58.1
식탁용구	1	-19.4	1	1.2
기타기계류	1	-7.6	1	-10.6
중전(heavy electric) 기기	1	119.5	1	-37.7
공예품	1	-25.4	1	-29.7
신변잡화	1	93.5	0	-28.2
운동및취미오락기구	0	-33.3	0	120.4
인쇄물	0	-14.3	0	0.2
의료위생용품	0	-9.3	0	64.6
기타철강금속제품	0	72.3	0	36.4
비철금속제품	0	2.2	0	-32.5
문구	0	36.4	0	8.7
기타화학공업제품	0	-54.7	0	176.2
안경및콘택트렌즈	0	12.3	0	-1.7
농산물	0	-47.7	0	-30.9
기타생활용품	0	124.2	0	14
기타잡제품	0	5.5	0	-65.4
석면및운모제품	0	-35.8	0	-1.9
비금속광물	0	113.6	0	-17.2
전선	0	104.4	0	-89.4
약기	0	82	0	-54.8
광물성연료	20	-11.6	0	132.8
요업제품	0	-67.3	0	138.9
마찰및연마제품	0	-82.8	0	-57
축산물	0	444.3	0	-82.8
가족및모피제품	0	-	0	-
완구	0	-	0	-
수산물	0	-76.5	0	-47.8
가발및가늌	0	-	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페루로부터의 수입

(단위: 백만 불, %)

품목명	2006		2007(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76	170.9	978	48.8
금속광물	597	196.2	890	52.5
수산물	37	54.7	35	-1.3
광물성연료	1	-	16	1,088.80
농산물	15	91.1	15	16
비철금속제품	13	31.4	8	-34.8
섬유사	7	329.5	7	2
섬유제품	1	-4.3	3	147.5
직물	2	128	2	2.9
정밀화학제품	1	-22.4	1	-1.7
철강제품	0	-	1	-
축산물	1	108.8	0	-37.1
전자부품	0	67,338.00	0	-40.9
완구	0	291.5	0	1,102.30
임산물	0	406	0	89.3
비료	0	-	0	162.6
수송기계	0	-95.5	0	958
공예품	0	-13.1	0	-17.7
신변잡화	0	-52.7	0	-20.3
약기	0	6.4	0	56.9
산업용전자제품	1	890.7	0	-96.3
보석및귀금속제품	0	661.7	0	-46.1
요업제품	0	1,455.20	0	101.3
예술품	0	-	0	5,502.00
식탁용구	0	-	0	-
기타기계류	0	-74.5	0	-38.5
기타생활용품	0	-45.2	0	-84.7
플라스틱제품	0	-	0	-95.9
기타잡제품	0	-	0	1,106.20
인쇄물	0	-78.2	0	179.7
제지원료및종이제품	0	-3.2	0	9.5
기초산업기계	0	-48.7	0	-74.3
가구	0	-	0	-
가정용전자제품	0	41,640.00	0	-90.7
산업기계	0	-97.9	0	-66.4
정밀기계	0	-98.4	0	-72.5
운동및취미오락기구	0	-	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換率 추이

(단위: Sol)

기준 일자	'02.12	'03.6	'03.12	'04.6	'04.12	'05.10	'05.12	'06.6	'06.9	'06.12	'07.6	'07.9
환율(Sol/\$)	3.514	3.471	3.469	3.477	3.281	3.381	3.43	3.26	3.25	3.21	3.17	3.11

주: 기준 일자의 월 표시는 월말 기준임

자료원: 페루중앙은행

페루는 美 달러화가 현지화(솔: Sol)와 함께 시장에 그대로 통용됨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달러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루화폐인 솔貨는 2002년 이후 계속 고(高)평가돼 2002년 말 환율이 미화 1달러 = 3.5솔에서 2004년 12월 1달러 = 3.281솔로 6% 이상 평가절상 되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입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5년 하반기부터 다시平價切下가 진행되어 2005년 12월말 평균 환율이 1달러=3.43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현지화 초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도별 물가상승률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0.13	1.52	2.5	3.48	1.49	1.14	2.2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2006년에는 물가를 위협할 만한 내부 요인이 없었으며 경제가 안정되면서 현지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유지하여 국제 原油價가 물가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아 1%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들어 경기과열의 조짐을 보여 물가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이다.

대선과 총선 여파가 물가에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안정적인 물가추이를 보였다. 2006년 7월 28일 再執權한 알란가르시아 대통령이 1985년-1990년 처음 대통령이었을 당시 네 자리 수의 殺人的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국가경제가 파탄 난 적이 있던 만큼 이번 정권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페루의 主要 經濟指標

구분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백만 불	54,021	56,848	60,993	68,421	78,200	93,330
GDP 성장률	%	0.6	5.2	3.8	5.1	6.2	8.0
1인당 GDP	US\$	2,070	2,131	2,247	2,484	2,925	3,388
1인당 GDP 성장률	%	△0.7	2.9	6.5	5.1	17.8	15.8%
물가상승률	%	△0.13	1.52	2.5	3.48	1.49	1.1
실업률	%	7.9	8.9	9.7	8.8	7.6	7.3
수출(FOB)	백만 불	7,108	7,688	8,806	12,547	17,000	23,431
수입(CIF)	백만 불	7,198	7,427	8,454	9,818	12,547	15,327
무역수지	백만 불	△90	261	91	2,729	4,253	8,104
경상수지	백만 불	-1,217	-1,117	-958	19	1,105	2,456
외채총액	백만 불	27,508	27,999	29,732	31,312	28,348	28,332
외환보유고	백만 불	8,613	9,598	10,194	12,631	14,097	17,275
환율	Sol/US\$	3.51	3.49	3.45	3.281	3.430	3.274
최저임금	Sol	410.00	410.00	460.00	460.00	500.00	500.00

자료원: 페루 중앙은행, 주요 경제지, 종합일간지 종합

2. 주요 산업 동향

가. 농업

페루의 지역별 기후가 다양하므로 농산물 또한 다양하다. 국토 중 130만 헥타르가 경작 가능지이다. 안데스 산맥에서의 농업은 생존을 위한 농업이나 해안지방으로 가까이 오면서 수출 가능한 대량 재배 농업으로 변화한다. 최근까지 불리한 법규정 등으로 농업 분야에의 투자에 저해(沮害)가 되었으나 페루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이러한 법규정을 바꾸어 농업분야에의 투자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농토 보유 상한선을 대폭 높였으며 농토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commodity)으로 바꾸었다.

비전통농업 및 가축 수출 수익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84% 증가해 7억9천9백만불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출증대가 이루어진 데에는 미국의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ATPDEA)의 도움이 크다. 페루는 2005년 12월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나 아직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FTA가 발효할 경우 페루는 많은 농산품을 미국으로 무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페루 내 안데스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 및 고지대 밀림은 품질 좋은 차(茶) 및 커피의 주요 생산지이다. 코코아도 생산하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아 코카인 생산으로 돌아 서는 농가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카인 재배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0년 대로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의 코카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코카인 생산도 늘어났다. 페루는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카인잎 및 코카인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페루 정부는 코카인 생산을 억제하고 가능하면 아스파라거스 및 수출용 커피 생산을 장려해 왔으며 이에 따라 코카인 생산은 급감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평양연안의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페루의 어분(魚粉) 및 통조림 산업은 주요한 외화 획득원이 되고 있다. 페루는 세계 최대의 어분 수출국으로 매년 1천만 톤의 안초비(anchovy) 및 정어리(sardine)가 잡힌다.

나. 광업

페루는 세계 다섯 번째의 금(金) 및 동(銅) 생산국이며 은(銀) 생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아연, 납 생산도 월등하다. 광물은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고 있으며 1999-2004년 총 수출액의 50%는 광물 수출이다.

신규 투자가 광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속히 팽창(膨脹)하고 있다. 가장 생산증대가 현저한 광물은 금으로 생산량이 1990년 10톤에서 2004년 174.6톤에 이르렀다. 미국 Newmont Mining 사, 페루 Minas Buenaventura사, 캐나다 Barrick 등이 주요 생산업체이다. 특히 Barrick사가 개발한 Pierina 광산의 생산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US\$45/oz이다.

가장 큰 금광은 New mont사의 Yanacocha광산으로 페루 전체 금 생산의 50%를 차지한다. Newmont사는 1998-2003년 기간 중 단일 업체로 페루에서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페루의 주요 광물 생산 및 수출 실적

구분	주요 광물 생산량(무게 기준)			주요 광물 수출실적(US\$백만)		
	2005	2006	'06/05	2005	2006	'06/05
구리(메트릭톤)	712.6	818.9	15%	3,471.8	6,053.8	74%
주석(메트릭톤)	33.6	33.4	-1%	301.4	345.8	15%
철(메트릭톤)	4,233.8	4,861.2	15%	216.1	256.0	18%
금(kg_)	187.4	197.3	5%	3,095.4	4,004.1	29%
은(kg)	2,547.7	3,250.3	28%	280.6	479.6	71%
납(메트릭톤)	261.4	288.4	10%	491.4	712.6	45%
아연(메트릭톤)	944.8	1,028.5	9%	805.1	1,991.2	147%
합계	--	--	--	8,661.8	13,843.0	60%

자료원: 페루중앙은행

페루는 전세계 銅 부존량의 15%를 차지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동 생산도 급격히 증가해 왔다. 대부분 동 생산은 외국인 투자업체가 한다. 2001년 7월 거대 동광(銅鑛)이자 아연광인 Antaminas가 생산을 개시하였다.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380km 지정 안데스 산맥에 세계 최대 광맥 개발을 위한 23억불 프로젝트도 계획되고 있다. 캐나다 업체가 개발권을 1998년에 획득하였으며 앞으로 적어도 20년 동안 연간 아연 생산량 3억6천만파운드, 동 생산량 6억 파운드 등이 예상된다.

다. 제조업

제조업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04년 기준 15% 정도이며 어분생산, 광물 가공 등 1차산품 가공업이 주를 이룬다. 음료수생산, 직물 및 귀금속 가공업도 있다. 2004년 이후 제조업도 확대 국면을 맞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6.7%, 2005년 6.4% 성장률을 보였다.

식품 제조업은 Alicorp사 및 Gloria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Alicorp사는 면(麵) 종류를 생산하며 Gloria는 낙농제품, 유제품을 생산한다. 음료수 부문의 선두업체는 Inca Kola 사로서 1999년 이후 미국의 Coca Cola 가 소유하고 있다.

페루의 직물제품은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피마(Pima) 면으로 만든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고가(高價)에 판매되며 Tanguis도 스포츠웨어 제품으로 팔린다. 그 밖에 알파카 및 비쿠냐(vicuña) 털로 만든 제품도 매우 고가품으로 분류된다. ATPDEA 발효로 페루의 직물 수출은 2001년 6억6천4백만불에서 2004년 11억불로 급증하였다.

라. IT 산업

페루 정부는 IT산업 육성이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민간 업계의 투자촉진 및 사용자 저변확대 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재정상태가 빈약해 관 주도형의 기반조성은 어려운 바 9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시장의 과감한 민영화에 착수하여 페루의 IT산업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계 통신업체인 Telefonica del Peru, 미국계 업체인 Nextel, 멕시코계 업체인 Claro 등이 주도하고 여타 군소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으나 페루 경제구조 및 규모의 낙후성으로 IT분야의 실수요자가 아직 제한적이고 일반 국민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관심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인터넷 사용 편의제공을 위한 페루식 PC방인 'Cabina Publica'에서 서민들이 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최근 Cabina Publica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격 또한 대폭 저렴해졌다고 한다.

페루는 전 후지모리 대통령 정부시절인 94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의 재원부족을 보완하면서 통신부문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국영통신공사 민영화를 단행하면서 스페인 통신공사(Telefonica de Espana)가 영업권 국제입찰 형태로 페루 통신시장에 참여하게 된 이래 꾸준히 시장 개방정책을 펴오고 있다.

통신분야는 광업분야와 함께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업부문에 통신시장 개방정책을 펴온 결과 민영화 추진 전해인 93년도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와 2005년에는 유선전화 가설회선수가 265만회선 이동통신 이용회선이 558만 회선으로 증가한바 있다.

페루의 유무선 전화 회선 수

(단위: 천)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일반전화	1,570	1,656	1,839	2,049	2,250	2,400	2,496
휴대폰	1,793	2,307	2,930	4,093	5,583	8,772	12,073

자료원: 페루 교통통신부

아직도 유선통신망 부문에서는 지난 94년도에 실시된 페루 통신시장 개방 1단계 민영화 조치시 국제입찰에 참여해 유선통신시장을 장악했던 스페인 통신공사(Telefonica de Espana)의 현지 투자법인인 Telefonica del Peru가 거의 독점체제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페루 제2의 유선통신사였던 Bellsouth를 Telefonica사가 Comunicaciones Moviles del Peru라는 이름으로 인수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60.6%로 넓힌바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의 Nextel사(4.5%)와 멕시코의 Telmex(Claro)사 (34.9%)가 양분하고 있다.

최근에 이탈리아의 TIM사를 멕시코의 Telmex사가 인수해 Claro라는 상호로 현재 페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Telefonica의 독점시장인 페루에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페루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GSM, CDMA, IDEN 방식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Telefonica del Peru사가 CDMA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50% 이상을 CDMA 방식이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Telefonica사가 GSM도 병행하여 CDMA 방식의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페루 이동전화시장 경쟁상황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Telefonica Moviles	67%	61%	54%	51%	52%	61%	58%	60%
Comunicaciones Moviles (Bellsouth)	28%	24%	24%	22%	17%			
Nextel	5%	6%	6%	5%	5%	4%	4%	3%
America Movil Peru (Claro)	0%	9%	17%	21%	27%	35%	38%	37%

정보원: 페루 교통통신부

페루 이동통신 업체별 채택기술

구분	채택기술	주파수
Telefonica	CDMA, GSM	800MHz
Claro	GSM	1900MHz
NEXTEL	IDEN	800MHz

자료원: OSIPTEL

현재 페루의 인터넷사용자 중 36% 가량이 컴퓨터를 가정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나머지는 회사, 학교, Cabina Publica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페루에서 가장 선호되는 컴퓨터 브랜드로는 Dell, HP, Compaq, IBM 등을 꼽을 수 있다.

페루의 컴퓨터 수입현황

(단위: 달러)

원산지국	2004	2005	2006
멕시코	25,807,703	29,375,220	35,889,240
미국	18,250,660	20,790,269	21,105,153
중국	16,693,270	18,813,550	3,930,420
브라질	1,468,211	979,367	1,645,593
영국	439,484	221,638	1,437,597
아일랜드	163,786	1,205,274	640,007
캐나다	491,512	370,836	501,666
콜롬비아	0	3,454	455,337
대만	364,525	469,255	416,353
독일	127,619	345,228	397,810
한국	630,631	283,142	349,677
싱가폴	131,382	434,158	132,000
말레이시아	1,447,840	800,056	56,000
아르헨티나	195,404	298,080	17,648
기타	2,406,675	855,722	1,202,594
합계	68,618,702	75,245,249	68,177,095

정보원: 페루 관세청

주로 미국과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며 중국으로부터도 저가로 많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페루의 소프트웨어류 및 솔루션과 SI등의 콘텐츠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 동안 보류해 왔던 민간업체와 공공부문의 사무 자동화 및 시설 현대화 작업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수요가 활발한 부문은 민간부문에서는 금융, 통신, 광업 등의 업계와 정부부문으로 SI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문의 시장은 특히, 해적물의 범람으로 각종 SW류의 정품이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현지 취급상의 견해로는 SW 종류별로 각각 전체 수요의 최저 50%, 최고 90% 정도가 해적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페루의 소프트웨어 수입현황

(단위: 달러)

원산지국	2004	2005	2006
미국	4,047,132	4,567,581	4,719,523
독일	309,095	3,729,430	2,655,948
칠레	52,030	85,326	784,973
중국	73,473	110,905	314,979
캐나다	224,373	195,701	296,045
핀란드	120,462	1,304,039	225,542
프랑스	74,209	206,167	218,377
이스라엘	61,647	26,814	162,782
이태리	16,873	237,973	139,292
일본	483,736	75,324	102,936
아일랜드	70,180	218,687	96,451
푸에르토리코	21,421	107,698	75,166
영국	224,785	848,852	71,286
콜롬비아	116,153	34,127	67,958
기타	711,720	1,411,093	479,386
합계	6,607,289	13,159,717	10,410,644

정보원: 페루관세청

페루는 1990년대 초반부터 IT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국자본에 대한 완전개방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IT 분야를 선진국 대기업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IT 분야 중 일부 분야만 기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균형된 장기발전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투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페루 정부에서는 IT 분야의 성장이 국가발전을 의미하고 빈부격차 해소, 정부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분권화 등을 가속화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Government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분야별 비중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목축업	8.9%	9.0%	8.8%	8.5%	8.4%	8.3%
농업	5.5%	5.6%	5.5%	5.2%	5.1%	5.0%
목축업	3.1%	3.2%	3.1%	3.1%	3.1%	2.9%
어업	0.5%	0.5%	0.4%	0.6%	0.5%	0.5%
석유산업	6.0%	6.4%	6.5%	6.5%	6.6%	6.1%
- 광업	5.5%	5.9%	6.0%	6.0%	6.1%	5.6%
- 석유산업	0.5%	0.5%	0.4%	0.4%	0.5%	0.5%
제조업	14.9%	15.0%	14.9%	15.3%	15.3%	15.1%
- 1차산품 가공업	3.4%	3.4%	3.3%	3.4%	3.3%	3.1%
- 비1차산품 가공업	11.6%	11.7%	11.6%	11.9%	12.0%	12.0%
건설	4.7%	4.8%	4.8%	4.8%	4.9%	5.2%
상업	14.4%	14.2%	14.0%	14.1%	14.0%	14.5%
전기 및 상수도	2.1%	2.1%	2.1%	2.1%	2.1%	2.1%
기타 서비스	38.9%	38.5%	38.7%	38.5%	38.4%	38.5%
내국세 및 수입관세 총액	9.6%	9.5%	9.6%	9.7%	9.9%	9.7%
총 GDP	100%	100%	100%	100%	100%	100%

정보원: 페루중앙은행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美-페루 FTA 3년 여정 성공리에 종결

- 2007.12.14(金) 美 부시 대통령이 美-페루 FT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3년이 걸린 미국과 페루 간 FTA 체결절차는 성공적으로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양국은 국내 실시를 위한 세부절차만이 남겨 둔 상태.
- 부시 대통령은 “FTA 체결협상을 진행하던 지난 3년 동안에도 양국 간 교역이 90억 달러에 이르러 협상 전과 비교해 두 배나 성장했다.”고 말했으며 “FTA가 발효됨으로써 80% 이상의 미국제품이 무관세로 페루시장에 진출하게 됐으며, 페루 기업도 거대시장 미국으로 더 수월하게 수출할 것이다.”고 예상했음.
- 페루 알란가르시아 대통령도 양국의 경제협력과 기술이전으로 빈곤퇴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FTA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캐나다와의 FTA 체결도 추진할 것으로 보임.

나.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 페루도 최근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수출증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切感)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FTA 확대에心血을 기울이고 있음.
- FTA 확대와 관련, 시장진출 우선순위에 따라 세계시장을 네 개의 시장으로 나누고 있는 바 첫째는 선진국 전략시장이고, 둘째가 고성장(高成長) 개발도상국, 셋째가 광역시장, 넷째가 기자재 공급 광역시장 등임.
- 페루가 현시점에서 최근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것은 첫째 시장으로 이에는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EU,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포함됨.
- 2006년까지만 해도 페루는 칠레, 南美共同市場(Mercosur) 등 가까운 국가와의 지역협정 성격의 FTA를 체결했으나 이제는 미국을 비롯해 원거리(遠距離)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페루의 ACE(경제보완협정) 체결 현황

경제블럭 또는 국가명	체결연도(협상종료)	비 고
CAN(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1997년, ACE#59	- 9년 간의 단계적 관세 인하를 끝내고 작년부터 전품목 무관세 적용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2003년, ACE#58	- 일부 품목 특혜 관세 적용 중
멕시코	1987년, ACE#8	- 일부 품목 특혜 관세 적용 중 - 주기적으로 재협상 기간 연장 중이며 최근 FTA 전환을 위한 협상 진행중
칠레	1998년, ACE#38	"

다. 한국과의 FTA에도 관심

- 싱가포르와 이미 FTA협상을 진행하는가 하면 멕시코와 既체결한 경제보완협정(ACE 8)를 명실상부(名實相符)한 FTA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EU와의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캐나다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조만간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과의 FTA 체결 타당성 검토 작업도 5월 시작할 예정이며 아직은 對美FTA 발효를 위한 미국정부 및 의회 설득작업에 바쁜 상황이지만 앞으로 한국과의 FTA 체결도 고려하고 있음.
- 그 밖에도 中美, 러시아,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장기적으로 FTA를 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페루가 현재까지 분류한 FTA 체결 대상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협정발효국: 南美共同市場(Mercosur),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 협정체결국: 미국(2008년 중 발효예정), 태국, 칠레
 - 협상진행국: 멕시코
 - 협상 개시 예정국: 캐나다, EU, 중국, 한국, 유럽자유무역연합
 - 장기 협상 체결 추진국: 호주, 남아공, 인도, 러시아, 모로코, 일본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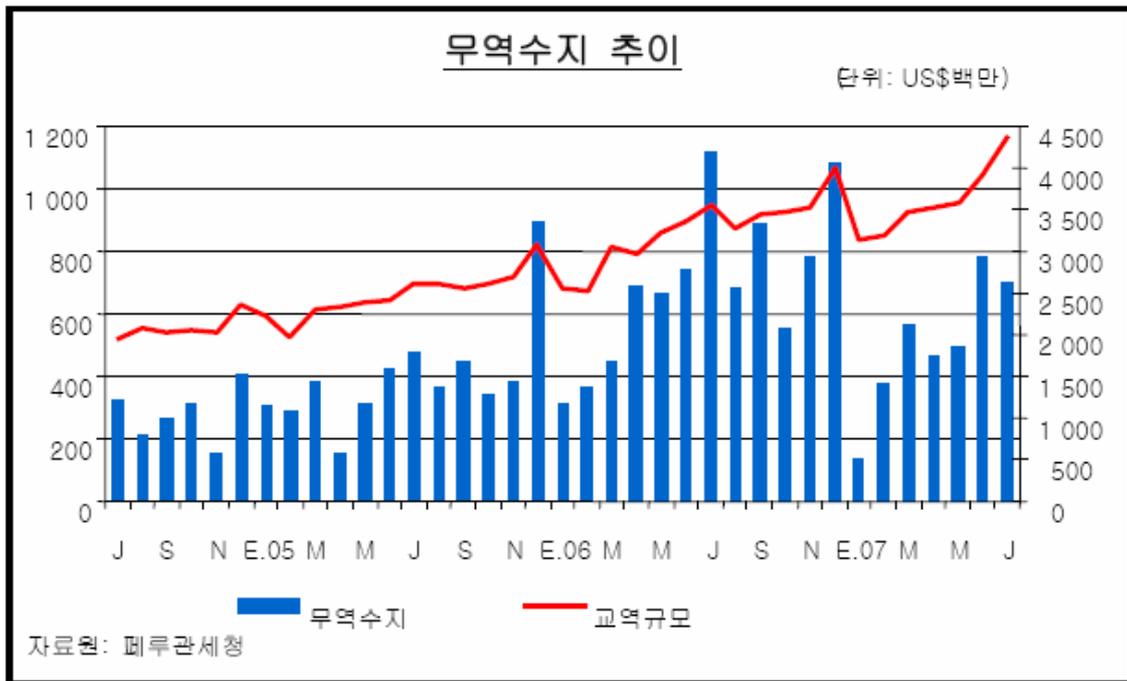
2007년 7월까지 페루의 대외 교역액은 2006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해 US\$ 253 억 7천7백만에 이르렀으며 US\$35억9천9백만의 무역흑자를 보였다.

페루의 대외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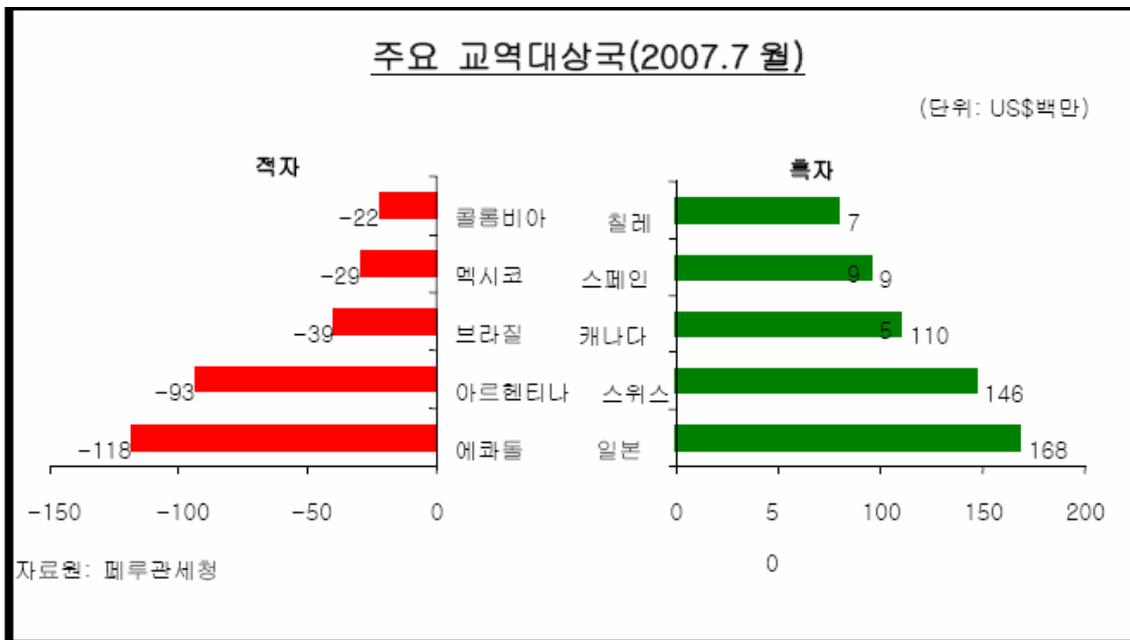
(단위: US\$백만)

구 분	2006	2007.7	증감(%)	2006	2007.1-7	증감(%)
수출(FOB)	2,363.6	2,548.8	7.8	12,795.8	14,488.1	13.2
수입(CIF)	1,215.8	1,844.6	51.7	8,452.9	10,888.9	28.8
무역수지	1,147.7	704.3	-38.6	4,342.9	3,599.2	-17.1
교역규모	3,579.4	4,393.4	22.7	21,248.7	25,377.0	19.4

(정보원: 페루관세청)



페루가 가장 무역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는 2007년 7월 기준 일본, 스위스, 캐나다, 칠레 등이며 적자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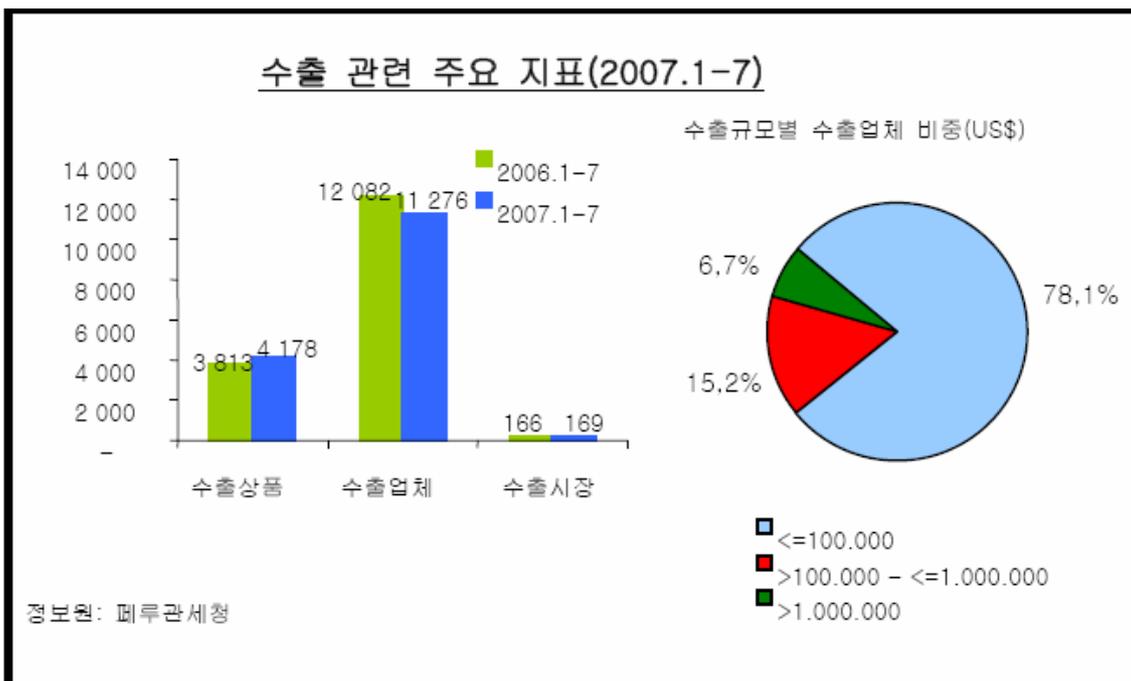
주요 수출품목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US\$백만)

구분	2007년 7월			2007.1-7월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수출액	증감률(%)	증감률(%)
광물 및 석유	1,750.6	7.1	68.7	10,094.6	13.9	69.7
수산물	233.2	-3.2	9.1	1,234.0	5.8	8.5
식물	153.9	10.2	6.0	878.8	8.4	6.1
농목축상품	179.0	12.2	7.0	890.4	10.3	6.1
화학제품	71.2	33.2	2.8	431.4	31.3	3.0
철	75.9	34.1	3.0	453.3	23.1	3.1
원목·종이	32.2	-6.0	1.3	197.8	10.8	1.4
금속	19.1	39.1	0.7	113.6	20.1	0.8
非금속광물	16.6	29.0	0.7	89.2	15.3	0.6
가죽	3.6	-3.6	0.1	21.3	15.5	0.1
기타	13.6	0.2	0.5	83.7	-2.8	0.6
합계	2,548.9	7.8	99.9	14,488.1	13.2	100.0
전통산품	1,994.2	5.0	78.2	11,181.9	12.1	77.2
非전통산품	554.7	19.5	21.8	3,306.2	17.1	22.8
합계	2,548.9	7.8	100.0	14,488.1	13.2	100.0

(자료원: 페루관세청)

페루의 수출대상국은 2007년 1-7월 기준 169개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시장은 미국(17.9%), 중국(12.4%), 스위스(8.6%), 일본(7.3%)이다. 같은 기간 중 수출품목은 총 4,178개 품목으로서 계속 수출품목 수가 증가하였으나 수출업체는 오히려 2006년 동기 12,082개사에서 11,276개사로 감소하였다. 전체 수출업체 중 10만불 이하의 수출업체가 78.1%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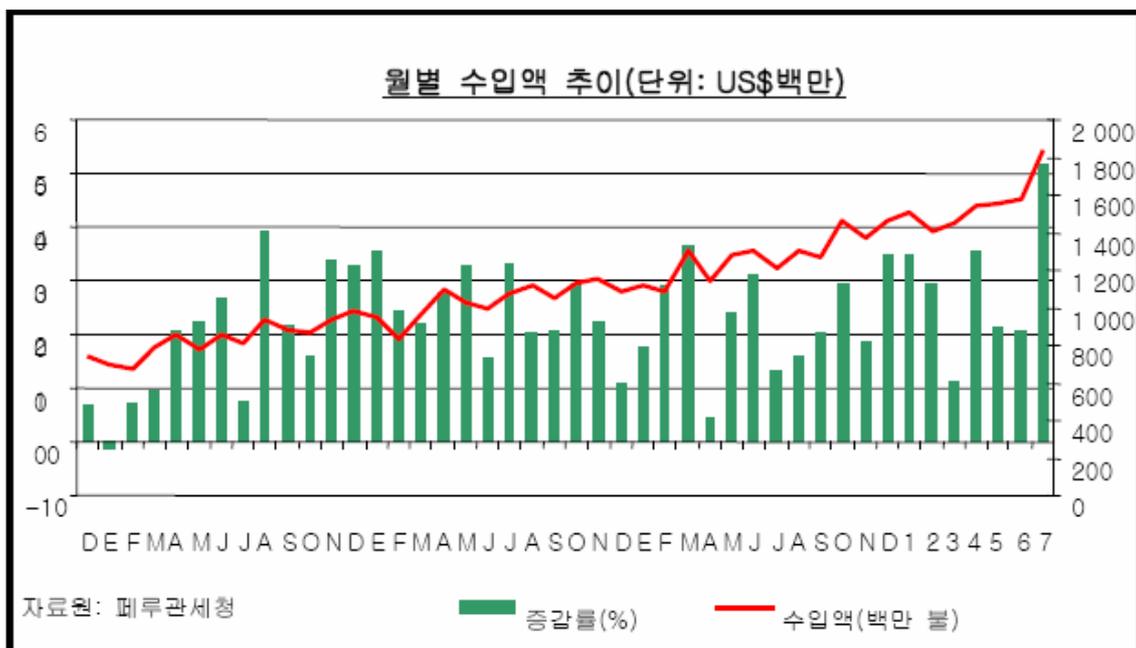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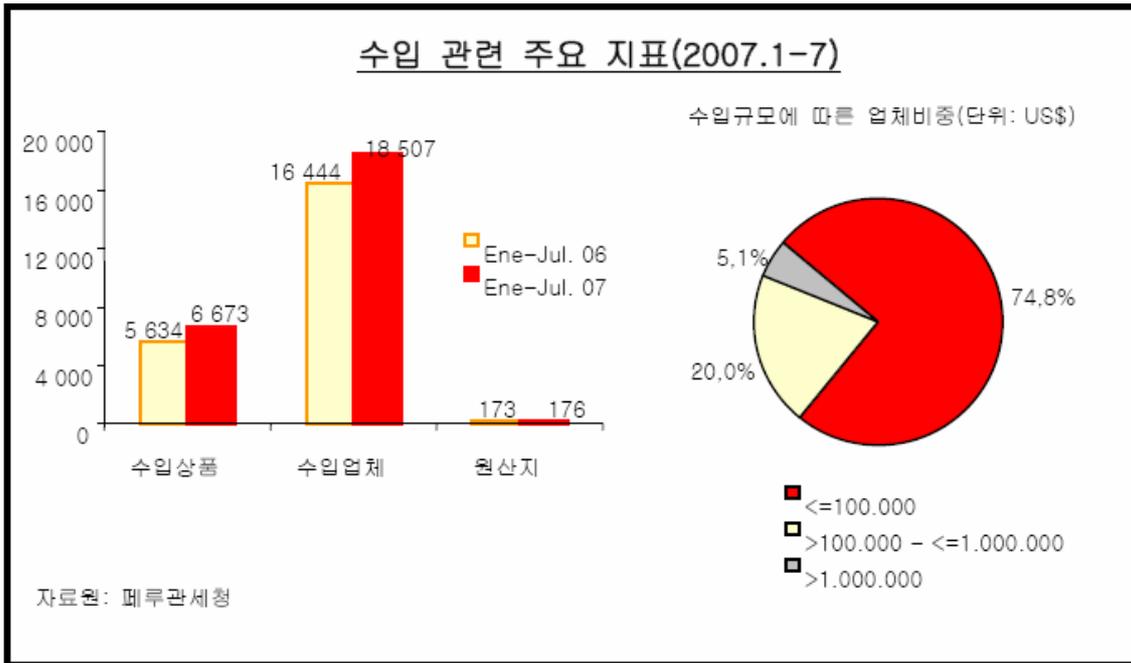
주요 수입품목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US\$백만)

구분	2007년 7월			2007.1-7월		
	수입액	증감률	비중	수입액	증감률	비중
소비재	285.6	39.9	15.5	1,746.8	24.1	16.0
非 내구재	150.5	30.9	8.2	952.6	19.4	8.7
내구재	135.1	51.5	7.3	794.2	30.3	7.3
중간재. 원부자재	967.9	41.9	52.5	5,716.9	22.1	52.5
연료. 운할유	311.3	34.2	16.9	1,892.5	6.9	17.4
농업용 중간재	87.4	86.9	4.7	363.0	33.1	3.3
산업용 중간재	569.2	41.1	30.9	3,461.4	31.2	31.8
자본재	590.8	79.4	32.0	3,421.3	45.0	31.5
건설자재	60.9	57.2	3.3	359.5	33.2	3.3
농업용 자본재	3.2	51.2	0.2	25.9	54.4	0.2
산업용 자본재	412.6	100.6	22.4	2,315.0	48.1	21.3
운송기기	114.1	37.9	6.2	720.9	41.7	6.6
기타	0.2	-46.5	0.0	4.0	-20.4	0.0
합계	1,844.5	51.7	100.0	10,889.0	28.8	100.0

(자료원: 페루관세청)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7년 7월 한 달 동안 수입액은 US\$18억4천5백만으로 2006년 7월 대비 51.7% 증가율을 보였고 2007.1-7월 수입액은 US\$108억8천9백만으로 2006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품목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자본재가 79.4%, 원부자재 등 중간재가 41.9%, 소비재가 39.9% 등의 추세를 보였다. 특히 산업용 자본재 수입이 100% 이상 증가한 것은 그만큼 국내 산업이 활기를 띠어 제조업용 기계류, 산업체용 통신제품, PC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과 중국으로서 이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에 이른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세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전체 수입업체는 7,245개사로서 2006년 동기 대비 1,016개사가 증가하였으며 1십만 불 이하의 소규모 수입업체가 전체 수입업체의 82%에 달하였으며 2007년 1월에서 10월까지 수입업체는 16,953 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186개사 증가하였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요

우리나라의 對 페루 수출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6년에는 수출 3억5천9백만 불, 수입 6억7천6백만 불에 달하였다. 이것은 국내업계의 페루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는 것을 말해 줌과 동시에 그만큼 페루 국가경제가 좋아져 수출, 수입 모두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페루로부터 아연, 銅, 수산물 등을 수입하며 그대신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일반 제조업상품을 수출한다.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추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페루로부터의 수입액이 많이 좌우된다. 특히 페루가 APEC에 가입한 이후 양국간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장차 FTA 체결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나. 한국과의 연도별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 불,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65	0	-	0	-	0	-
1966	0	175	1	94.2	-1	-
1967	0	-54.5	0	-87.3	0	-
1968	0	-100	1	1,301.30	-1	-
1969	0	-	3	143.8	-3	-
1970	0	78.3	4	33.3	-3	-
1971	1	1,224.40	13	265	-12	-
1972	0	-86	1	-90.1	-1	-
1973	1	1,214.50	0	-84.3	1	-
1974	1	37.3	5	2,589.30	-4	-
1975	1	-25.7	5	-9.1	-4	-
1976	1	-39.2	5	-2.8	-4	-
1977	1	63.5	16	248.5	-15	-
1978	1	-1.7	18	6.8	-17	-
1979	2	149.4	41	135.5	-39	-
1980	7	174.2	54	29.5	-47	-
1981	16	129	72	33.8	-56	-
1982	13	-18.6	83	15.5	-70	-
1983	5	-63.8	53	-36.3	-48	-
1984	5	17.1	63	19.9	-58	-
1985	7	24.9	108	71.2	-101	-
1986	16	130.1	112	3.5	-96	-
1987	24	55.7	91	-18.8	-67	-
1988	10	-56.8	90	-0.6	-80	-
1989	3	-70	97	7.3	-94	-
1990	10	221	94	-3.2	-84	-
1991	25	145.2	136	45.3	-112	-
1992	78	216.7	115	-15.8	-37	-
1993	58	-26.2	86	-25.5	-28	-
1994	132	128.5	89	3.5	43	-
1995	194	47.6	130	47.4	64	-
1996	204	5.3	181	38.5	24	-
1997	236	15.5	104	-42.4	132	-
1998	260	10.2	62	-40.5	198	-
1999	190	-27.1	78	26	112	-
2000	213	12.5	143	83.1	70	-
2001	188	-12	116	-18.6	71	-
2002	196	4.3	205	75.8	-9	-
2003	204	4.4	194	-5	10	-
2004	245	19.9	283	45.6	-38	-
2005	282	15.2	249	-11.9	33	-
2006	359	27.1	676	170.9	-317	-
2007.11	424	33.9	978	48.8	-554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對 페루 품목별 수출입 동향(MTI 2단위)

1) 수출

(단위: US\$백만)

품목명	2006		2007(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59	27.1	424	33.9
수송기계	81	45.5	116	53.1
석유화학제품	66	2.4	65	0.9
산업용전자제품	38	24.6	62	70.5
철강제품	28	202.7	39	50.6
산업기계	19	77.9	25	55
정밀화학제품	19	37.5	25	43.7
가정용전자제품	21	19.9	20	1.6
직물	15	41.7	16	24.4
고무제품	12	-8.3	14	34.9
제지원료및종이제품	9	34.4	9	-0.6
플라스틱제품	6	27.3	8	41.3
섬유사	6	57.3	7	27.4
섬유원료	3	-9.6	3	-6.7
기계요소공구및금형	3	5.9	3	-4.7
기초산업기계	2	62.3	2	54.7
섬유제품	2	-12.4	2	8.1
전자부품	1	32.1	1	22.5
정밀기계	1	-35.2	1	-7.2
가구	1	86	1	58.1
식탁용구	1	-19.4	1	1.2
기타기계류	1	-7.6	1	-10.6
중전(heavy electric)기기	1	119.5	1	-37.7
공예품	1	-25.4	1	-29.7
신변잡화	1	93.5	0	-28.2
운동및취미오락기구	0	-33.3	0	120.4
인쇄물	0	-14.3	0	0.2
의료위생용품	0	-9.3	0	64.6
기타철강금속제품	0	72.3	0	36.4
비철금속제품	0	2.2	0	-32.5
문구	0	36.4	0	8.7
기타화학공업제품	0	-54.7	0	176.2
안경및콘택트렌즈	0	12.3	0	-1.7
농산물	0	-47.7	0	-30.9
기타생활용품	0	124.2	0	14
기타잡제품	0	5.5	0	-65.4
석면및운모제품	0	-35.8	0	-1.9
비금속광물	0	113.6	0	-17.2
전선	0	104.4	0	-89.4
약기	0	82	0	-54.8
광물성연료	20	-11.6	0	132.8
요업제품	0	-67.3	0	138.9
마찰및연마제품	0	-82.8	0	-57
축산물	0	444.3	0	-82.8
가죽및모피제품	0	-	0	-
완구	0	-	0	-
수산물	0	-76.5	0	-47.8
가발및가눈썹	0	-	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 수입

(단위: US\$백만)

품목명	2006		2007(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76	170.9	978	48.8
금속광물	597	196.2	890	52.5
수산물	37	54.7	35	-1.3
광물성연료	1	-	16	1,088.80
농산물	15	91.1	15	16
비철금속제품	13	31.4	8	-34.8
석유사	7	329.5	7	2
석유제품	1	-4.3	3	147.5
직물	2	128	2	2.9
정밀화학제품	1	-22.4	1	-1.7
철강제품	0	-	1	-
축산물	1	108.8	0	-37.1
전자부품	0	67,338.00	0	-40.9
완구	0	291.5	0	1,102.30
임산물	0	406	0	89.3
비료	0	-	0	162.6
수송기계	0	-95.5	0	958
공예품	0	-13.1	0	-17.7
신변잡화	0	-52.7	0	-20.3
약기	0	6.4	0	56.9
산업용전자제품	1	890.7	0	-96.3
보석및귀금속제품	0	661.7	0	-46.1
요업제품	0	1,455.20	0	101.3
예술품	0	-	0	5,502.00
식탁용구	0	-	0	-
기타기계류	0	-74.5	0	-38.5
기타생활용품	0	-45.2	0	-84.7
플라스틱제품	0	-	0	-95.9
기타잡제품	0	-	0	1,106.20
인쇄물	0	-78.2	0	179.7
제지원료및종이제품	0	-3.2	0	9.5
기초산업기계	0	-48.7	0	-74.3
가구	0	-	0	-
가정용전자제품	0	41,640.00	0	-90.7
산업기계	0	-97.9	0	-66.4
정밀기계	0	-98.4	0	-72.5
운동및취미오락기구	0	-	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페루는 후지모리 정부가 執權한 '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06년 알란 가르시아 新 政府가 들어서도 유지하고 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再執權한 후 그 左派性向에도 불구하고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한편 輸入關稅率을 3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 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로 대규모 개편 하였다.

안데안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도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特惠關稅(無關稅)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傳統產品 및 非傳統產品 수출입을 행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도 제한이 없다. 단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 및 화학 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 지도 및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 전쟁 물자가 아닌 민수용의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 식물, 동물을 원료로 한 완제품, 반제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 종자, 동식물,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 일자, 수입 물품 포장 별 내용물 및 유효 기간, 수입업체 회사명 및 납세 번호 등을 신고 해야 하며, 세계 보건 기구 품질 보증 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동물품이 자유로운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한국 제품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지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다.

5. 관세제도

페루에는 '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原副資材類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하였다. 특별소비세는 일부 품목에 대해 2002년부터 200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던 것으로 WTO 협정 등의 준수를 위해 이번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이 세금도 폐지하게 됐다.

2006년 중순 기준 품목수(6998)을 기준으로 약 43% 정도가 12%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40% 정도가 4% 관세를, 15%가 20%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기계류, 이발기 등 112개 품목은 면제 대상이다.

동 조치에 포함된 458개 품목 중 19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일률적으로 4%로, 227개 품목에 대해서는 12%로 인하했으며, 이들 중 관세 외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소비세(5%)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2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8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34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77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347개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 활동 장려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공산품 가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재중에는 맥주, 포도주, 위스키 등 22개 품목이, 농업원자재중에는 설탕과 맥아(맥주 양조용), 포도즙 등이 5%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됐으며, 종이와 상자류(2겹)의 경우는 수입 관세가 12%에서 4%로 8%나 인하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천연칼슘 인산염과 관개용 밸브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4%로 인하되었으며 가축과 산업용 밸브, 브레이크 등 기계 부품, 섬유산업용 원자재인 폴리에스터 화이버, 나일론 인조사와 같은 품목의 수입관세 또한 4%로 조정됐다.

화강암과 같은 111개의 건축용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됐으며 영구 불변하는 석고와 같은 제품을 제외한 대리석, 판석, 플라스틱 튜브 및 기타 건축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다. 또한 컴퓨터부품과 컴퓨터의 경우 수입관세가 7%에서 4%로 인하됐으며 원심 펌프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됐다. 특히 수송용 장비 부품 및 액세서리의 경우도 타이어를 포함해 27개 품목이나 관세 인하 또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제품의 평균 관세율이 12%로 조정됐다.

이후, 페루 정부는 2007.10.15(월) 법령 158-2007-EF를 통해 1052개 품목 (식품, 자본재, 육류, 유제품, 가전제품 등)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고 있는 데 관세 인하 조치 주요 내용과 인하 후 페루 수입관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다.

관세인하조치 주요 내용

기존 관세율	변경 후 관세율	대상품목 수	주요 품목
20%	17%	1,052	육류 및 그 가공제품,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 커피, 직물, 의류, 신발, 냉장고, 냉동고, 재봉기
20%	0%	40	밀, 쌀, 유제품 중 일부, 설탕
20%	0%	1	가구 중 일부
12%	9%	2,678	살아 있는 동물, 화훼류, 노랑색 옥수수, 식용유, 생선통조림, 설탕, 카카오, 술, 담배, 광물, 화학제품, 튜브, 혁제품, 목재, 종이, 실, 금속 시트, 귀금속, 가정용기구, 차량, 장난감
12%	0%	364	건축자재, 자본재, 운송기기, 산업용 원부자재, 연료, 의류산업 원부자재, 책
17%	5%	27	기타
25%	5%	62	

자료 : 페루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관세인하 후의 페루 수입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수		2006년 수입액 (CIF US\$백만)	
	품목수	비중(%)	금액	비중(%)
0	3,568	48.5	10,691	69.8
9	2,718	37.0	4,027	26.3
17	1,052	14.3	599	3.9
20	13	0.2	11	0.1
계	7,351	100.0	15,328	100.0
명목 평균관세율(%)				5.8
관세율 평균편차(%)				6.2
실행 평균관세율(%)				3

자료 : 페루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한편, 안데안 회원국간 무관세교역 및 5, 10, 15, 20% 4단계 대외공동관세를 시행 중에 있으나, 페루는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안데안역외 공동관세를 적용 하지 않고 있다. 이외 페루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양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별도의 특별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는 양측 상품의 태평양 및 대서양 경제권 진출 교두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칠레 등의 국가들과도 양자간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은 2007년 12월 14일 미 상원을 통과 하여 내년도 중 발효 예정이다. 페루의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행해진 선적 전 검사서에 나타난 가격을 기초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5천불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경우 상업 송장 등 수입 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자동차 등 일부 高價製品 및 가격 파락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 별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와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관세부과 基準價는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 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9%의 부가 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가가치세 19%로 표현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7%이며, 나머지 2%는 지방 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이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부과 기준액은 관세 부과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품목별 주요 특별소비세는 아래와 같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 (동일 기간 1회 연장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시 관세 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동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 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사본
 - 관세 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안데안 회원국인 페루는 '92년 동 기구의 일시 탈퇴를 선언한 이후 '97.4.11일부로 전격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공식적이 탈퇴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페루 정부의 안데안 그룹 탈퇴선언 이전까지 이루어진 페루의 회원국 복귀노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차적인 복귀노력으로서 페루는 개별회원국과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동 협정 내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을 시행하고 있다.

- 볼리비아: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에콰도르: 약 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약 8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

2차적으로 페루는 여타 회원국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데안 자유무역지대 편입을 위해, '94년 안데안 대외공동관세 5% 품목군에 대해 회원국상품에 시장을 개방한 바 있으며, '95년 들어 10% 품목군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대에 편입하였다.

한편, 중남미 11개국이 참가한 중남미 통합 연합 (LAIA) 회원국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 - 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0.1UIT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치 않았거나, FOB가격을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가액간 관세차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페루 정부의 자동차류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배경은 '96년, '98년 2차에 걸쳐 세수증대를 위해 수입 자동차류에 대한 특소세를 인상을 큰 폭으로 인상해 왔으나, 세수증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98년도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와 맞물려 오히려 자동차 수입이 래퍼곡선(Laffer Curve)를 그리며 계속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당초 인상목적과는 달리 세수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중고차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상을 가중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실업자만 증가되는 역효과 현상을 초래하자 그 동안 목살해온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동안, 페루는 CIF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 소비세를 매겨왔는데, 이번 조치로 자동차 수입가격은 약 15.38% 정도의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일반 소비자 가격도 최소 6-8% 정도의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2000년 9월부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생산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에 한하도록 제한 조치를 취하여 2006년도의 경우 2001년도 연식부터 페루에 반입이 가능하다. 페루 정부는 국내 경기진작 및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담완화 지원 차원에서 금년 들어 2차에 걸쳐 HS 6단위 기준 1,390개 품목의 공업용 원자재류에 대하여 종전의 12% 관세율을 4%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업계는 연간 약 4천만 불 상당의 간접 자금지원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페루는 2004년 초부터 안데안 공동관세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으며 2006년 들어 베네수엘라의 안데안 공동체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안데안 공동체 자체가 점차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

□ 세관의 보충적 제도

- 임시 반입 제도(DS No. 129-2004-EF 세관법 70-75항): “능동적 완성(perfeccionamiento to activo)”의 경우 수입 상품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제도
 - “능동적 완성”의 종류
 - 원자재, 재료, 비완성품의 물리적, 화학적 변형
 - 생산, 변형되는 모든 물건
 - 둘 이상의 물건의 조립
 - 수출품의 포장, 포장 재료

- 능동적 완성의 성립요건
 - 상기 종류의 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물건
 - 신청하는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해당 기관에 등록돼 있어야 함.
 - 기한은 24개월이며 보류되는 세금에 대한 보증 필요
- 관세환급(Decreto Supremo 104-95-EF):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해 소비했거나 수출품에 포함된 물건 수입을 위해 납부한 관세 환급 수혜 가능
 - FOB 수출액의 5%부터 품목의 1년 동안의 업체별 수출액 US\$ 20 백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환급액은 경제부 평가에 의해 조정
 - 수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되거나, 수출품에 추가된 물건을 제 3자를 통해 수입하거나, 수입된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수출업자는 수혜 가능
 - 경제부는 매년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수출품의 리스트를 발표(HS Code로 표시)
- 수입품 면제제도(DS No. 12-2004-EF 78-80항): 수입 후 변형을 거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과한 세금 면제(혜택을 받는 기한은 수입으로부터 1년).
 - www.aduanet.gob.pe/aduanas/informag/leygen.htm: (세관법 Decreto Legislativo No. 809)
 - www.audanet.gob.pe/aduanas/informag/regley.htm: (세관법 Decreto Supremo No. 121-96-EF)

페루의 관세체계 요약

(CIF가격을 A, 관세율 9%인 제품을 가정 시)

관 세(B)	4%	B = Ax4%
부가가치세(C)(IGV)	19%	C=(A+B)x19%
세관서비스료(D)	US\$22	D=US\$22정액임
세관수수료(E)	3.5%	E=(A+B+C+D)x3.5%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
총 세금		B+C+D+E

- CIF가격이 US\$1,000이고 관세가 9%일 경우
 - CIF가격 = A
 - 관세(B): US\$1,000x0.009 = US\$90
 - 부가가치세(C)(IGV, 19%) = (1,000+90)x0.19=207.1
 - 세관서비스료(D) = US\$22(건별 정액제임)
 - 세관수수료(E) = (1,000+90+207.1+22)x0.035 = 46.2

= 관세총액(A+B+C+D+E) = US\$365.3

6. 주요인증제도

2004년 2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에 속한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은 ISO 9001 인증서 2000년 버전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까야오 항과 호르헤 차베스 공항 또한 동 인증서에서 준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품질 기준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내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수입품 품질의 高低를 결정한다.

7. 지적재산권

페루는 그 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 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海賊物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페루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담당기관은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소비자 보호청 ((INDECOPI)”이며 3개의 부서가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기능과 기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부서별 업무

- Office of Distinctive Symbols: 상표, 상호, 의장권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o of Inventions and New Technologies: 발명품, 신기술의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e of Copyright: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수행

상기 부서 중 知的財産權 보호는 Office of Copyright가 수행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INDECOPI 내의 Court for the Protection of Free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에서 우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로 效力을 발생한다.

□ INDECOPI 연락처

- 주소: Calle de la Prosa 138, San Borja, Lima, Peru
- 전화: (51-1) 224-7800
- 팩스: (51-1) 224-0348
- 이메일: fzabala@indecopi.gob.pe
- Home Page: www.indecopi.gob.pe
- 근무시간 : 월~금, 09:00~13:00, 15:00~17:00

한편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偽造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칠레의 Iquique 자유무역지역을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수입 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증명서, 선적 전 검사증명서,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안데안 회원국 및 LAIA 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수입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諸書類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류), 세금납부 영수증, 품질증명서(의약품 등의 경우), 검역증명서(동식물의 경우)등이 통관 시 필요 서류이다.

위와 같은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 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일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하여 전산 처리반에 전달하며, 전산 처리반에서는 동 자료를 전산입력, 우선 서류내용의 하자여부를 점검하며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재 접수 시키도록 조치한다. 적격 서류만을 대상으로 처리순서인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하게 된다.

- 참고 1: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 2: 수입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 세관
 - 1일 접수 건이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瑕疵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세관통관에 총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세관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2:30, 14:00~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권자는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 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97년 기준 1UIT=S/3,000 (US\$ 862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 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2004년 8월1일부터 선적 전 수출 검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페루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어 통관이 지연되며 통관을 위해서는 간혹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나. 운송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Jorge Chavez 공항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되는 Cuzco 공항이 있다. 이중 Tacna 공항은 인근 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

최근 Jorge Chavez 국제공항 확장을 위해 국제 컨소시엄과의 양허협상에서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과 활주로를 2개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30년간의 양허(Concession) 협정을 체결하고 내부 보수공사 등을 완성하여 南美的 주요 공항으로서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페루의 국제항구로는 리마 시와 광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고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Callao 항구가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이다. Callao항은 전통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남미 항구로는 칠레의 Valparaiso항과 항상 물동량 면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심지어는 양 항구의 물동량 유치 경쟁 격화로 19세기 칠레-페루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남쪽으로는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 항과 북쪽으로는 Paíta, Chimbote 항을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환경

□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이후 줄곧 경제자유화 정책 일관 추진
 - 對外 시장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
- 중남미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투자환경 국가 중의 하나로 변모
 - 법적, 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문호개방

□ 외국인 투자가 국가경제의 중요한 軸

- 2007년 전체 GDP 중 외국인투자 비중이 20%에 達할 전망
- 건설, 제조업, 서비스산업 분야 소비 및 수입 진작, 고용 증대
- 외국인투자 증대는 곧 자본재 수입 증가와 직결

□ 인프라분야 투자매력도 상승

- 중남미에서 네번째로 인프라 개발분야 투자환경이 좋은 국가로 浮上.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페루는 경제안정세 지속, 국가정보화 계속, 금융시장 확대의 결과로 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매력도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
- 세계경제포럼 중남미민간인프라투자지표에 의하면 페루보다 앞선 국가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3 개국으로 이들의 점수가 5.4, 4.4, 4.3 인 데에 비해 4 위인 페루의 점수는 4.2 이나 정부의 투자유치 적극성만 볼 때에 페루는 중남미에서 단연 1 위
- 민간분야 인프라투자가 활발해져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민간투자가 활발해진 데에는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토지구매 규제완화, 경제정책 일관성이 큰 힘을 발휘

□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으로 프로젝트 일관성 유지

- 민간기업의 인프라분야 투자안정성을 볼 때에도 중남미에서 두 번째를 차지. 일단 시작한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해 주는 요인.
-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가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7% 및 0.3%에 머무는 등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도 인프라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주는 밑거름
- 인플레이션 극복, 환율 안정, 건전한 은행시스템 육성도 페루 거시경제 상황 호전을 뒷받침.
- 증권 및 채권 시장 내용 다양화로 투자가의 관심 증대

□ 인프라분야 투자 잠재성 막대

- 페루는 아직 중남미에서 볼리비아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격차가 큰 국가이긴 하나 이러한 격차가 현존한다는 것은 개발여지가 크고 그만큼 투자 잠재성이 막대함을 의미.
-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분야에 많은 민간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高부가가치 산업분야 외국인투자 환영

-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에 의하면 페루는 경제안정 지속으로 외국인투자가 2006년 34억 6천 7백만불에 達함으로써 2005년 대비 34.43% 증가

- 외국인투자 활성화에는 국민경제 건전 운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및 수출확대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단순 자원개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의 투자 적극 환영
- 2004 년 천연가스 본격 생산으로 주종 에너지를 석유에서 가스로 변경해 가고 있는 바, 각종 산업시설 및 발전소 주원료로 가스 사용을 장려하며 택시, 시내버스를 포함한 교통수단 천연가스 차량 사용, 도시 가정용 천연가스 공급, LNG 플랜트 건설, 석유(가스)화학산업 육성 추진
- “高부가가치 산업분야 직접투자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에너지광업부장관 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페루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2006 년 출범한 Alan Garcia 정부는 고용창출과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공단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짐.

□ 외환보유고 및 공공재정 好轉

- 2006 년 외환보유고가 1 년 전체 수입액에 해당하는 US\$12,329 백만불에 달함으로써 대외신용도 상승
- 성공적인 거시경제 운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稅收가 증가하고 정부재정 적자 폭도 축소되어 정부재정 균형 달성
 - 2000-2002 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2.4%였던 데에서 2006 년에는 국민 총생산의 2.5%의 흑자로 반전
 - 인플레이션율도 목표치인 1.5-3.5%의 범주를 유지
- 페루의 경제안정은 국제시장 분석가들과 자본시장에서도 인정
 - JP Morgane 산정 국가위험 지표 EMBI+는 2006 년 말 120 점 육박
 - 페루 외채 적용 할인을 및 이자율이 미국 국채 대비 1.2% 수준
- 국가위험도 하락(연평균 5%, 500 점 이상)으로 프로젝트用 차관조달 비용 감소
 - Standard&Poor's(S&P)도 페루 신용등급을 2006 년 11 월 BB+로 상향조정

□ 외국인투자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은 2006.12.31 기준 US\$15,442 백만 달러
 - 2006 년 페루 외국인투자는 12 억 3 천 6 백만 달러로 연말 기준 외국인투자 누적액이 154 억 4 천 2 백만 달러에 도달
 - 페루에 투자하는 선진국기업 다수는 모국 본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통해 페루로 투자
 - 투자업체 본사 국적별로 볼 때 스페인, 영국, 멕시코, 칠레, 스위스가 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71.15%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및 스페인이 전체 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50.47%를 차지

- 이동통신산업 분야에 가장 활발한 투자
 -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이동통신, 광업, 제조업, 금융업
 - 1990년대 전화통신 분야가 외국인투자를 주도했던 것으로부터 크게 변화
 - 2006년 페루 투자 외국업체로 America Movil(멕시코), Racetrack Peru(미국), Phelps Dodge(미국), Votorantim Metais(브라질), Sumitomo Metal Mining(일본), Bank of Nova Scotia(캐나다), CFG Peru Investments(싱가폴), Gerdau(브라질), Pluspetrol Resources(영국)가 가장 주요
- 2007년에도 외국인투자 증가세 지속
 - 활발한 페루 외국인투자 추세는 2007년에도 계속 전망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전기에너지, 상수도도 외국인투자 新 유망 분야

나. 외국인투자 유치법 골격

페루의 투자관련 법적 기본 골격은 크게 내국인을 위한 민간기업 투자진흥법(Law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과 외국기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진흥법(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으로 되어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Ley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2) 민간투자진흥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on Privada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민간기업 투자진흥법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참여 및 규제 최소화,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세제와 간소화된 행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진흥법은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페루 투자환경의 장점으로는 개방적인 법적, 제도적 환경을 들 수 있으며 통신, 전력, 도로, 광업, 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한 전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투자이윤 및 자본금 등의 송금에 있어서 정부규제가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구리, 철, 아연, 금, 은, 원연, 어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생산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2006년 중 체결예정인 페루-美 FTA로 관세상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유망하다는 점도 투자의 장점으로 손꼽을 수 있다.

페루 투자법규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이 기본이며, 투자업종도 언론분야 외에는 제한이 없는 완전 개방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페루 내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나 페루는 내. 외국인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하에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아직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이 있어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페루는 인구 2,700 만 명 정도로 비교적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商圈이 수도인 리마(인구: 약 8 백 5 십만 추정)에 집중되어 있고, 빈부격차 극심으로 대다수 국민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高價商品 수요는 그다지 크지 않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후지모리 前대통령 정부 1 기인 '92 년부터 본격 추진해 왔다.

시대별 對페루 외국인투자 집중 부문은 다음과 같다.

- 1987-92: 광업
- 1993-05: 통신, 제조업, 금융업, 광업, 에너지, 무역업

2005 년까지의 투자 유치액을 살펴 보면 가장 많은 분야가 통신분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산업, 금융업 또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2001 년 이후 급격히 투자 증가 현상을 보이는 분야는 금융업, 광업과 운송업 분야인데 특히 운송업의 경우 Protransporte 프로젝트를 통하여 리마 시내 도로망 정비와 천연가스 버스 수입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 투자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농산물 가공, 관광, 농업(원면, 커피 및 카카오 생산) 등 분야에도 투자 유치가 유망 시된다. 그러나 페루는 노동여건이 열악하고 정부관료의 비능률과 부패는 하위적으로 갈수록 심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참고로 '91. 11.13 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 호로, 내. 외국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 조)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서 일부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 보건위생에 이해를 야기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 시키는 경우는 국경 50 킬로미터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나. 투자허가

□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법령

1) 외국인투자촉진법

(Ley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2) 민간투자진흥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on Privada ;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3) 민간투자보장제도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os Regimenes de Garantia a la Inversion Privada ; Decreto Supremo No 162-92-EF, 1992. 10. 9)

상기법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內外國人 투자 동등 대우
- 외국인 재산권 보장
- 투자 자본 원리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보장
- 이외, 제 3 국 수출기업 유치를 위해 제정된 산업 및 관광자유지역, 상업화 특구, 지역 개발특구 설치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 투자할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15 년간 페루의 각종 세금 면제 혜택 부여 제도가 있으며 근거법은 Decreto Legislativo No. 842('96.8.30) / 865('96.1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업체가 페루 외국인 투자위원회(CONITE)와 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 년간 조세안정화법에 의거 소득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협정체결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 투자자본이 200 만불 이상일 경우
- 투자자본이 50 만불 이상으로 20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가져오거나, 협정체결 후 2 년 동안 최소한 200 만불 이상 수출을 할 경우
- 페루는 현재 세계은행의 多者間 투자보장기구인 MIGA 에 가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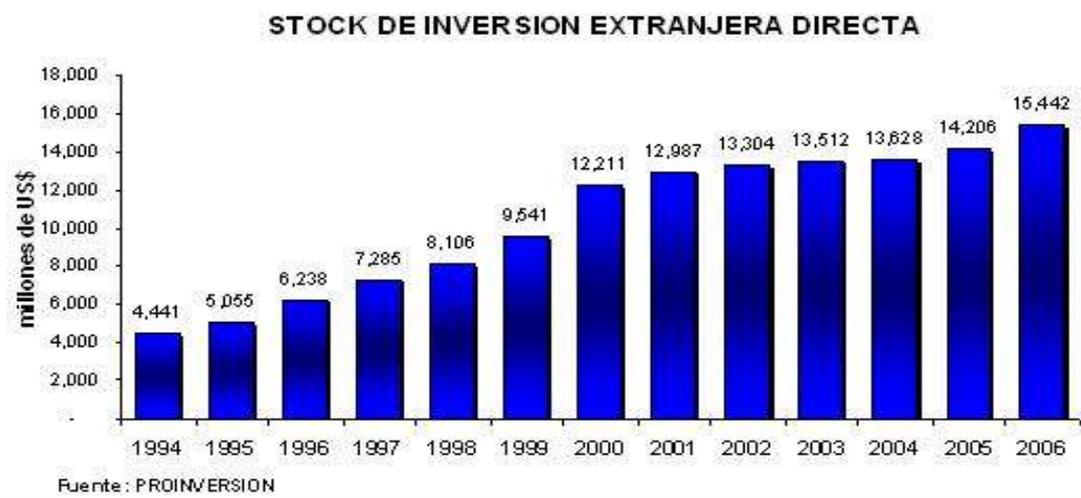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국가경제 호황 기조가 그대로 외국인 투자에 반영
 - 페루경제 호황 기조(好況基調)가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2006년 對 페루 외국인 투자액은 12억3천6백만 달러, 2007년 6월까지 투자액은 5천 8백 21만 달러로 집계 되었음
- 선진국이 투자 주도
 - 투자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과 영국이 2006년 말까지 페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로서 전체 투자 누적액의 48.23%를 차지하였고 이 두 나라를 포함한 열 나라가 전체 對페루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9%에 이르렀음.
 - 특기할 만한 사실은 페루에 투자하는 선진국 기업 중 많은 기업은 母國 본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現地法人 또는 支社를 통해 페루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투자업체 본사 국적별로 투자국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스페인, 영국, 멕시코, 칠레, 스위스 등 국가가 전체 對 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71.15%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미국 및 스페인이 전체 對 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50.47%를 차지하였음.

- 통신 분야 투자가 가장 활발
 - 가장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移動通信, 鑛業, 제조업, 금융업, 전기 에너지 등으로 1990년대 일반 전화 분야가 외국인 투자를 주도했던 것으로부터 크게 변화
 - 2006년 주요 투자 업체로는 America Movil(멕시코), Racetrack Peru(미국), Phelps Dodge(미국), Votorantim Metais(브라질), Sumitomo Metal Mining(일본), Bank of Nova Scotia(캐나다), CFG Peru Investments(싱가포르), Gerdau(브라질), Pluspetrol Resources(영국) 등이 있음.
- 2007년에도 외국인투자 활발
 - 활발한 對페루 외국인투자 추세는 2007년에도 경제성장세 지속과 함께 계속
 - 특히 원유개발, 가스개발, 전기에너지, 上水道 등 분야도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망 분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많은 선진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임.

페루의 연도별 외국인투자 누적액 추이

(단위: US\$백만)



對 페루 주요 투자 국가(누적액 기준)

(단위: US\$ 백만)

국가		2006*	
스페인	4 732,1	콜롬비아	335,4
영국	2 716,0	캐나다	280,2
미국	2 715,5	스위스	273,2
Low Countries	820,3	일본	232,6
파나마	812,3	우루과이	163,8
칠레	528,7	이태리	158,9
멕시코	452,2	중국	122,2
브라질	336,0	싱가폴	120,0
벨기에	114,3		

(정보원 : ProInversion)

산업분야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US\$백만)

분야	2006	%
농업	44,4	0,29%
상업	604,2	3,91%
통신	4 974,8	32,22%
건축	121,6	0,79%
전기에너지	1 650,4	10,69%
금융	1 865,1	12,08%
제조업	2 302,6	14,91%
광업	2 882,2	18,66%
어업	129,5	0,84%
석유	207,9	1,35%
서비스	265,7	1,72%
임업	1,2	0,01%
운송	313,4	2,03%
관광	62,1	0,40%
주택	16,7	0,11%
총계	15 441,9	100%

(정보원 : ProInversion)

對 페루 투자 외국인기업(2006년)

투자 외국기업	투자 수용기업(페루)	투자기업 본국	투자 분야
XSTRATASOUTH AMERICA LIMITED	XSTRATA PERU S.A.	카이만제도	광업
AMERICA MOVIL S.A.	AMERICA MOVIL PERU S.A.C.	멕시코	통신
RACETRACK PERU LLC	UNION DE CERVECERIAS PERUANAS BACKUS & JOHNSTON S.A.A.	미국	제조업
PHELPS DODGE CORPORATION	SOCIEDAD MINERA CERRO VERDE S.A.	미국	광업
VOTORANTIM METAIS LTDA.	SOCIEDAD MINERA REFINERIA DE ZINC DE CAJAMARQUILLA	브라질	광업
SUMITOMO METAL MINING CO	SOCIEDAD MINERA CERRO VERDE S.A.	일본	광업
THE BANK OF NOVA SCOTIA	BANCO WIESE SUDAMERIS (hoy SCOTIABANK PERU S.A.A.)	캐나다	금융
RACETRACK PERU LLC	UNION DE CERVECERIAS PERUANAS BACKUS & JOHNSTON S.A.A.	미국	제조업
CFG PERU INVESTMENTS PTE. LTD.	CFG INVESTMENT S.A.C.	싱가포르	어업
GERDAU S.A.	EMPRESA SIDERURGICA DEL PERU S.A.A. - SIDERPERU	브라질	광업
PLUSPETROL RESOURCES CORPORATION	PLUSPETROL CAMISEA S.A.	영국	석유개발
SIPCO PERU PIPELINES CORPORATION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 S.A.	영국	운송
URION WORLDWIDE INVESTMENTS LIMITED	COMPAÑÍA MINERA CONDESTABLE S.A.A.	바하마	광업
GOLD FIELDS CORONA BVI LIMITED	GOLD FIELDS LA CIMA S.A.	미국	광업
THE BANK OF NOVA SCOTIA	BANCO SUDAMERICANO S.A.	캐나다	금융

ENAP REFINERIAS S.A.	MANU PERU HOLDING S.A.	칠레	상업
COMPÑIA NACIONAL DE CHOCOLATES	PERU GOOD FOODS	한국	제조업
TRAFIGURA BEHEER B.V.	VOLCAN COMPAÑIA MINERA S.A.A.	Low Countries	광업
HSBC LATIN AMERICA HOLDINGS (UK) LIMITED	HSBC BANK PERU S.A.	영국	금융
INTERCONEXIÓN ELÉCTRICA S.A. E.S.P.	CONSORCIO TRANSMANTARO S.A.	콜롬비아	전기 에너지
SERCOTEL S.A. DE C.V.	AMOV PERU S.A.	멕시코	통신
DORDOGNE HOLDINGS INC.	AUSTRAL GROUP S.A.A.	파나마	어업
EMPRESA DE ENERGÍA DE BOGOTÁ S.A. E.S.P.	CONSORCIO TRANSMANTARO S.A.	콜롬비아	전기 에너지
SETFIRST LIMITED	GLAXOSMITHKLINE PERU S.A.	영국	상업
SOCIEDAD DE INVERSIONES INTERNACIONALES PARQUE ARAUCO S.A.	INMUEBLES PANAMERICANA S.A.	칠레	건설
PROGRESA HOLDING A.G.	GRUPO FARMAKONSUMA S.A.	스위스	제조업
SYLVAN I B.V.	LAUREATE EDUCATION PERU S.R.L.	Low Countries	서비스
SILVER STANDARD RESOURCES INC.	SOCIEDAD MINERA BERENGUELA S.A.	캐나다	광업
MINAS PEÑOLES S.A DE C.V.	MINERA PEÑOLES DE PERU S.A.	멕시코	광업
MAPFRE AMERICA S.A.	MAPFRE PERU COMPAÑIA DE SEGUROS Y REASEGUROS	스페인	금융
INVERSORA FALKEN S.A.	INVERSIONES Y SERVICIOS FALABELLA PERU S.A.	우루과이	금융
ODEBRECHT INVESTIMENTO SEMI NFRA-ESTRUTURAL TDA.	CONCESIONARIA TRASVASE OLMOS S.A.	브라질	건설
AUTOMOTORES GILDEMEISTER S.A.	AUTOMOTORES GILDEMEISTER - PERU S.A.	칠레	상업
CONSTRUCTORA SAN JOSE S.A.	SAN JOSE PERU S.A.C.	스페인	건설
MITSUI & CO. LTD.	MITSUI MAQUINARIAS PERU S.A. (ANTES DICSA PERU S.A.)	일본	상업
BAVARIA S.A.	UNION DE CERVECERIAS PERUANAS BACKUS & JOHNSTON S.A.A.	콜롬비아	제조업
CUSCO LTD.	LATINA HOLDING S.A.	카이만제도	금융
LS-NIKKO COOPER INC	COMPAÑIA MINERA CONDESTABLE S.A.A.	한국	광업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S.A.	CONCESIONARIA INTEROCEANICA SUR - TRAMO 3 S.A.	브라질	건설
HIDALGO & HIDALGO S.A.	CONCESIONARIA VIAL DEL PERU S.A.	에과도르	건설
SUEZ TRACTEBEL S.A.	GAS NATURAL DE LIMA Y CALLAO S.R.L.	벨기에	전기 에너지
A.W. FABER CASTELL UNTERNEHMENSVERWALTUNG G.M.B.H. & CO.	A.W. FABER CASTELL PERUANA S.A.	독일	제조업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S.A.	CONCESIONARIA INTEROCEANICA SUR - TRAMO 2 S.A.	브라질	건설
TETRA LAVAL HOLDINGS & FINANCE S.A.	TETRA PAK S.A.	스위스	제조업
AUTOMOTORES GILDEMEISTERS.A.	MAQUINARIA NACIONAL S.A. - PERU	칠레	상업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CONCESIONARIA IIRSA NORTE S.A.	브라질	건설

INVERSIONES BLANCA FLOR LIMITADA	TERRANDINA S.A.C.	칠레	서비스
CONSTRUTORA NORBERTO ODEB RECHT S.A.	CONCESIONARIA TRASVASE OLMOS S.A.	브라질	건설
CREFINEX S.A.	QUIMICA SUIZA S A	스위스	상업
KONSTANTIN DUKOV	COMPAÑIA MINERA PE EFE S.A.	러시아	광업
CONSTRUTORA ANDRADE GUTIERREZ S.A.	CONCESIONARIA IIRSA NORTE S.A.	브라질	건설
METSO MINERALS OY	METSO MINERALS (PERU) S.A. ANTES SVEDALA FIMA S.A.	핀란드	상업
ROXILAN S.A.	QUIMICA SUIZA S A	스위스	상업
SKC RENTAL S.A.	SKC RENTAL S.A.C.	칠레	서비스
CAFE BRITT COFFEE CORPORATION N.V.	CAFE BRITT PERU S.A.C.	Low Countries	제조업
BOEHLER UDDEHOLM A.G.	ACEROS BOEHLER DEL PERU S.A.	오스트리아	상업
CONSTRUCCOESE COMERCIO CAMARGO CORREA S.A.	INTERSUR CONCESIONES S.A.	브라질	건설
CONSTRUTORA ANDRADE GUTIERREZ S.A.	INTERSUR CONCESIONES S.A.	브라질	건설
CONSTRUTORA QUEIROZ GALVAO S.A.	INTERSUR CONCESIONES S.A.	브라질	건설
INVERSIONES ANDINAS S.A.	INVERSIONES Y SERVICIOS FALABELLA PERU S.A.	파나마	금융
SEDRUNA ANSTALT	ALBIS S.A.	리히텐슈타인	상업
BUCEFALO TRADINGIMPORT EXPORT CORPORATION	PATACHE S.A.C.	파나마	주택건설
SYNTHESE HOLDING AG	SYNTHESE PERU S.A.C.	스위스	상업
PLUSPETROL RESOURCES CORPORATION	PLUSPETROL LOTE 56 S.A.	영국	석유개발
URBANO EXPRESS HOLDINGS LLC.	URBANO EXPRESS PERU S.A.	미국	통신
CONCESIONARIA NORTE CONORTE S.A.	CONCESIONARIA VIAL DEL PERU S. A.	에콰도르	건설
COLOMBIANA DE MOLDEADOS S.A.	PERUANA DE MOLDEADOS S.A.	콜롬비아	제조업
MILPO FINANCE AND INVESTMENTS INC.	COMPAÑIA MINERA MILPO S.A.A.	파나마	광업
AKER KVAERNER E&C AMERICAS AS	KVAERNER PERU S.A.	캐나다	건설
ALCO ULTRAMAR S.A.	INMOBILIARIA JOSE GRANDA S.A.C.	파나마	주택건설
MANOREX LIMITED	CEMENTOS OTORONGO S.A.C.	영국	제조업
HORSESHOE BAY LIMITED	FERREYROS S.A.A.	바하마	상업
CARVEL INC.	COMPAÑIA MINERA MILPO S.A.A.	파나마	광업
OM PHARMA ANTES LABORATORIOS OM S.A.	OM PERU S.A. ANTES LABORATORIOS FARMAQUIMICA S.A.	스위스	제조업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COMPAÑIA MINERA MILPO S.A.A.	미국	광업
HIDROSTAL HOLDING A.G.	HIDROSTAL S.A.	스위스	제조업
HIDROSTAL PERU HOLDING S.A.	HIDROSTAL S.A.	파나마	제조업
LABORATORIOS GENERICOS FARMACEUTICOS S.A.	GENFAR PERU S.A.	콜롬비아	제조업
FAMA INVESTMENTS C.V.	PERUANA DE MOLDEADOS S.A.	Low Countries	제조업

VIDRIOS LIRQUEN SOCIEDAD ANONIMA	VIDRIOS LIRQUEN PERU S.A.C	칠레	상업
VICTORY INVESTMENTS C.V.	PERUANA DE MOLDEADOS S.A.	Low Countries	제조업
FUNDACION I & C, INVERSION Y COOPERACION	QUIPU TECHONOLGY S.A.C	스페인	서비스
SYLVAN INTERNATIONAL B.V.	LAUREATE EDUCATION PERU S.R.L.	Low Countries	서비스
SURAMERICANA DE CONSTRUCCIONES S.A.	LA POSITIVA SEGUROS Y REASEGUROS S.A.	콜롬비아	금융
CIGNA WORLD WIDE	LA POSITIVA SEGUROS Y REASEGUROS S.A.	미국	금융
SHURTAPE TECHNOLOGIES, LLC.	SHURTAPE PERU S.A. ANTES MKM TOOLS S.A.	미국	상업
XAVIER HERNAN CUESTA VASCONEZ	VENUS PERUANA S.A.C.	에콰도르	상업
PATRICIO CUESTA VASCONEZ	VENUS PERUANA S.A.C.	에콰도르	상업
JUAN MANUEL CUESTA VASCONEZ	VENUS PERUANA S.A.C.	에콰도르	상업
JOSE FILOMETOR CUESTA VASCONEZ	VENUS PERUANA S.A.C.	에콰도르	상업
SVENSSON S.A.	INKABOLT S.A.C.	칠레	상업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PANASONIC PERUANA S.A. (ANTES MATSUSHITA ELECTRIC IND.)	일본	제조업
FRANCISCO JOSE CUESTA MIÑO	VENUS PERUANA S.A.C.	에콰도르	상업
SANTIAGOESTEBAN CUESTA MIÑO	VENUS PERUANA S.A.C.	에콰도르	상업
MAURICIO ENRIQUE CUESTA MIÑO	VENUS PERUANA S.A.C.	에콰도르	상업
COMERCIAL HUANACU LIMITADA	HUANACU S.A.C.	칠레	상업
THIBAUT LOUIS MARIE VANDERSTRAETE DUPONT	BIRLA HOUSE S.A.C.	프랑스	제조업
BOEHLER EDELSTAHL GMBH	ACEROS BOEHLER DEL PERU S.A.	오스트리아	상업
HANDLSGESELLSCHAFT FUE INDUSTRIE UND HUTTENPRODUKTE MBH	ACEROS BOEHLER DEL PERU S.A.	바하마	상업
DIRECTV LATIN AMERICA, LLC	DIRECTV PERU S.R.L.	미국	통신
CIMA S.A.	BERMAD PERU S.A.C.	칠레	상업
JOSE ROSENBERG VILLAROEL	TERRANDINA S.A.C.	칠레	서비스
M.H.F. MONTEFORTE HOLDING AND FINANCE AG	CEMENTOS OTORONGO S.A.C.	스위스	제조업
COMERCIAL BIO BIO SOCIEDAD ANÓNIMA	VIDRIOS LIRQUEN PERU S.A.C	칠레	상업
A & S HOLDING CORP.	TECNA S.A.C.	파나마	제조업
BERMAD	BERMAD PERU S.A.C.	이스라엘	상업
IMPEXYL SA	DORMESON S.A.	스위스	서비스
COSMOAGRO S.A.	ASESORIAS Y NEGOCIOS CP & RS.A.	콜롬비아	서비스
TELVAL Y CIA. LTDA.	TELVAL & CIA. LTDA. SUCURSAL PERU	콜롬비아	서비스
NORTH AMERICAN ENERGY SERVICES COMPANY	NORTH AMERICAN ENERGY SERV I C ES S.R.L.	미국	서비스

(정보원 : ProInversion)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최근 몇 년간 투자액 지속적으로 증가

페루경제부 투자진흥청(Proinvers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페루 투자진출은 2006년 12월까지 약 4천 8백 25만 불 정도로 1995년 이후부터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페루 투자는 2007년 상반기까지 5억 6천만 불 누적액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페루 투자 누적액

(단위: US\$천)

분야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計	28	901,998	24	563,037
농림어업	1	170	1	128
광업	13	869,030	12	533,593
제조업	6	8,512	3	6,590
건설업	1	235	1	235
도소매업	6	23,485	6	21,925
운수창고업	1	566	1	566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註: 2007년 6월까지의 누적액임.

우리나라 기업의 페루 투자 동향

분야	투자회사명	프로젝트명	투자액(US\$ 백만) -예정액 포함	지분
자원	광업진흥공사	Marcona(동광)	4.8	15%
	LS-NIKKO	"	4.8	15%
	SK	Camisea(가스)	283	17.6%
		LNG	900(예정)	30%
		Block56(석유)	22	17.6%
	석유공사/ 대우인터내셔널/ SK	Block8(석유)	727	석유공: 20% 대우: 11.7% SK: 8.3%
제조업		5.8	2건	
도소매업		17	6건	
기타		0.7	운수창고업등	
총계		1,965.1		

정보원: 현지 진출업체 문의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SK, 대우, LG 등 대기업과 석유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는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 등에 종사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트레이딩에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 등이다.

페루 油田開發에 SK, 대우, 석유공사가 아마존 지역 8 광구에 투자하였고 SK 는 Camisea 가스전에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와 LS-Nikko 가 각각 Marcona 동광에 지분을 15%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는 해안선이 길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몇몇이 페루 북부의 Tumbes 지역 등에 투자하여 활동 중이다.

페루에서는 택시의 절반 가까이가 대우의 티코일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좋고 현재 많이 사용하는 상황인데 페루에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교민이 많다. 이외에도 섬유, 전자제품, 보안장비, 중장비, 무역,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나라가 투자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비즈니스의 성격이 강한 自營業으로 참된 의미에서의 직접외국인투자(FDI)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南美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페루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계의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나. 투자 성공 사례

SK 는 아르헨티나 플루스페트를 등 5 개 외국 기업과 함께 2000 년 카미세아 88 광구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업 생산은 2004 년 시작했다.

석유와 가스를 함께 생산하는 카미세아 88 광구는 南美 최대의 가스田이다. 확인된 매장량이 원유 6 억 배럴, 천연가스 8 조 7000 억 세제곱피트에 이른다. 가스를 원유로 환산하면 약 14 억 5000 만 배럴로 합치면 20 억 5000 만 배럴에 이른다. 20 억 5000 만 배럴은 한국이 2 년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이다.

88 광구 공동 사업자인 SK(주)의 지분은 17.6%, 100 달러어치의 기름과 가스를 파면 17 달러어치가 SK(주)몫이라는 얘기다. 페루 카미시아 사업으로 SK(주)가 지난해 거둔 실적은 매출액 1 억 4000 만 달러, 순이익은 5000 만 달러에 이른다. SK 그룹 해외석유 개발사업 매출의 절반이 이 광구에서 나올 만큼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SK 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페루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다. 88 광구와 인근 56 광구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정제해 수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헌트오일, 스페인의 렘솔-YPF 와 손잡고 약 10 억 달러를 투자해 페루 리마의 남부해안에 있는 팜파멜초리타 지역에 대규모 LNG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이 완공돼 LNG 생산이 가능한 2009 년 하반기부터 연간 420 만 톤의 LNG 를 미국 서부지역과 멕시코 에 공급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SK(주)의 지분은 30%이다. 세계적으로 가스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SK(주) LNG 프로젝트는 새로운 수익 사업 으로 전망이 밝다.

(자료원: 동아일보 2006.3.31)

다. SK 에너지 ‘페루 석유 탐사권’ 또 따내

SK 에너지가 페루 해상에 있는 석유 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또다시 따냈다. SK 에너지는 “페루 국영석유기업인 페루페트로(Perupetro) 주관으로 이달 초 실시된 페루 내 19 개 광구에 대한 국제 입찰에서 Z-46 해상 광구에 대한 최종 낙찰자로서 선정돼 이 광구에 대한 100% 지분을 확보했다”고 22 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 에너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역은 전 세계 14 개국 26 개 광구로 확대됐다. SK 에너지 관계자는 “Z-46 광구는 페루의 대규모 원유 생산 지역에 인접해 있고, 최근 원유가 다량 매장된 사실이 밝혀진 지역이어서 유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SK 에너지는 현재 페루 내에 3 개의 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카미시아 광구와 블록 8 광구에서 일일 총 8 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블록 56 광구에서는 오는 2008 년 생산을 목표로 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낙찰로 SK 에너지의 페루 내 광구는 4 개로 늘어나게 됐다.

SK 에너지는 이와 함께 지난 2 월 25%의 지분을 확보한 베트남 15-1/05 광구에 대한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투자 허가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허가 취득으로 SK 에너지가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과 체결한 투자 계약이 유효하게 됐다.

(자료원: 조선일보 2007.7.22)

다. 페루 석유화학 분야 투자 이루어질까?

페루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진흥책에 따라 많은 외국인기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SK 도 역시 강력한 투자 후보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카미세아 가스田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가공해 폴리에틸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투자예상액은 약 20 억불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SK 의 對페루 투자와 관련, 최태원 회장이 현지를 방문해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기도 하였다. 2007 년 4 월에는 페루국립공대(UNI)가 주최한 석유화학포럼이 열려 한국에서 2 명의 연사가 참가한 바 있다. (2007.10.9 Gestion 보도)

4. 주요 투자법 내용

페루 투자법규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이 기본이며, 투자업종도 언론분야 외에는 제한이 없는 완전 개방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페루 내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나 페루의 경우 內外國人 동등대우 원칙 하에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

오히려 2006년 7월 알란 가르시아 新정부가 들어서자 최근 광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 광산업체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함으로써 反撥을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기관: Proinversion(투자진흥청-2007년 11월 KOTRA와 업무협조약정 체결)

- 투자유치전략 수립, 잠재 투자가 교섭, 프로젝트 및 공공분야 외국인 기업체 투자 유치
- 국가경제 계획 및 정책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업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 외국인투자액 집계, 외국인투자업체 등록, 투자승인 및 법적 안정성 보장
- 투자 관련 국제협정 체결을 위한 조정 및 교섭

□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규범

1) 헌법

- 1993년 페루헌법은 민간투자, 특히 외국인투자과 관련 다음 사항 보장
 - 시장경제와 경제적 다원주의 내에서의 자유로운 민간 주도권 보장
 - 노동, 기업활동, 상업, 산업활동의 자유
 - 경제 활동에서 보조자로서의 정부역할 정의
 - 자유경쟁 보장 및 시장독점 방지
 - 계약 체결의 자유
 - 계약과 법률을 통한 정부의 법적 안정성 보장
 -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등한 대우
 - 국가가 관련된 분쟁사항을 국내 또는 국제재판소에 상정할 가능성
 - 외국 화폐의 자유로운 소유 및 처분 보장
 - 소유권의 불가침성
 - 개인 소유권 몰수의 경우 미리 적정한 보상 지불
 - 조세의 평등성
 - 몰수 성격의 세금 불용납

□ 법규

- 외국인 투자와 관련, 명확한 규범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본법은 1991년에 승인한 법령 제662호(Decreto Legislativo No.662)임.
- 법령 제757호(Decreto Legislativo No.757; 민간 투자 증대), 최고법령 제162-92-EF (Decreto Supremo No.162-92-EF; 민간투자 보증제도) 등도 관련법임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 대우 원칙임.
- 외국인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事前許可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음.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 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함. 단. 공공의 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

- 政府間 협정 수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용
-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할 권리 보유
-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한다든지,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
- 외국 투자자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음.
 - 자본금 투자(직접 투자)
 - 합작투자(Joint-venture)
 - 페루 영토 내의 소유물, 동산
 - 유가증권의 투자
 - 무형의 기술 제공
 -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 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 법적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 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함.
-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외국투자자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 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 있는 회사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아래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4개)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US\$5백만을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US\$1천만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사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페루정부가 체결하는 권리양허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함.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데 사용하여야 함.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됨.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양허 계약의 수혜자이어야 함.
- 법적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법적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

□ 투자 관련 국제협정

- 외국인투자 유치, 보호, 법적안정성 보장 목적으로 다양한 협정 체결 또는 가입
 - 태평양연안국, 유럽, 中南美諸國과 30개의 조약 체결
 -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PIC)과 협정 체결
 - 다자간투자보장기구(MIGA) 회원
 -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ICSID)과 뉴욕협정(New York Convention) 가입
 - 페루와 미국간 통상증진협정 체결(2006년)
 - 칠레와 경제보완협정 체결
 - 캐나다와 외국인투자 보호협정 체결
 - 싱가포르와 FTA 체결 추진
 - 멕시코와 경제보완협정 확대 추진
- 다수국과 양자간 투자보장 협정 체결(30개국 이상)

□ 근로 규정

- 근로계약의 종류
 - 노동계약
 - 서비스 계약
 - 공사 계약
 - 임시 계약 등

- 국내회사의 외국인고용자 수는 전체 직원의 20%를 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전체 급여 지출의 30%를 넘지 못함.
- 서면으로 최고 3년의 기간을 한정하는 계약을 맺되 같은 기간 연장 가능.
- 외국인 고용자가 특별한 기술자, 전문가이거나 이사, 매니저급일 경우 고용주가 위에 언급된 제한 규정의 예외 신청 가능
- 회사는 인력회사를 통해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고용자와 고용주 간의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된 고용인 수는 회사직접 고용인 전체의 20%를 넘을 수 없음.
-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첫 2시간은 정상 급여 25%, 2시간을 넘는 경우 35% 이상을 추가 지불해야 됨.
 - 피고용자는 법적 공휴일과 1주일에 24시간을 쉴 권리가 있음.
- 영구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권리
 - 의료보험 (Essalud): 고용주가 급여의 9%를 부담
 - 연금 가입: 국립연금일 경우 SNP(Sistema Nacional de Pensiones), 민간 연금일 경우 SPP(Sistema Privado de Pensiones)
 - SNP: 근로자가 급여의 13%를 국가에 납부
 - SPP: 근로자가 급여의 10%를 사설 연금관리기관(AFP: Administradora Privada de Fondos de Pensiones)에 납부
 - 같은 회사에서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생명보험 들어 줘야 함.
 -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각 1년마다 1개월치 급여의 150%, 최대한 12개월치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받음
 - 근무기간보상금(CTS, Compensacion por tiempo de servicios): 매년 5월, 11월에 적립
 - 1년을 일한 후 1년마다 30일의 휴가
 - 매년 7월과 12월에 각각 한 달 급여를 상여금으로 지불
 - 회사 영업 이익의 5-10%를 배당금으로 받으나 고용인이 20명 미만 회사는 해당 되지 않음.
 - 법정 최저급여(Remuneracion minima vital)는 S/.500 (약 US\$ 155)이며 근로자의 급여는 법정 최저급여 이상이어야 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事前환급제도(Decreto Legislativo No.818과 수정법령)
 - 생산이나 수출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일반판매세(IGV,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 자원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할 경우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공공서비스 개발와 관련된 권리양허계약을 국가와 체결하는 기업체는 해당 프로젝트 실시예 필요한 재화, 서비스 수입 및 구입, 건축계약 등에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최고 법령을 통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함.
- 농업 분야의 인센티브 대상
 - 재배와 사육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임업은 해당되지 않음

- 국내에서 재배, 사육된 농산물을 이용하는 자연인, 법인 사업자
 - 리마, 까야오(Callao) 행정 구역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제외
 - 밀, 담배, 기름을 짜는 씨, 식용유, 맥주 제외
- 농업분야 조세인센티브
 - 이윤세율은 순이윤의 15% 로 적용
 - 법인은 수자원 또는 관개시설 관련 투자액의 20%를 매년 감가상각 가능
 - 생산활동 개시 전 최대한 5년 동안 발생한 자본재, 기자재, 서비스의 구입, 건축 계약 등의 I.G.V. 미리 환급 가능
 - 인센티브 부여는 2021.12.31까지 지속
 - 양식업 세제 특혜
 - 이윤세율은 순이윤의 15% 적용
 - 세제혜택은 2010.12.31까지 유효
 - 고용주는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 가능
 - 임시 계약의 경우 일의 특성상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이 법에서 제한하는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누적제로 계산할 수 있고 법이 규정하는 노동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
 -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4%를 보험료로 부담

□ 아마존 지역 관련 법

- 아마존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이윤세 적용
- 지역에 따라 3종 이윤세 5% 내지 10% 적용
- 농수산업, 양식업, 관광업, 지역 내 생산 농수산물 가공업, 임산 추출업 등
- 아마존 지역 토산품이나 코카 대체품목 재배 또는 가공업 이윤세 면제
- 기름 추출용 야자, 커피, 코코아 등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된 세제 혜택은 재배업에만 적용되며 가공업에는 지역에 따라 5-10%의 소득세 적용
- 아마존 영업회사 중 소득의 30% 이상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회사에는 지역에 따라 3종 이윤세 5-10% 적용
- Loreto, Ucayali, Madre de Dios 지역 영업회사의 지역 내 매출(지역 내에서 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면제

□ Special Zones

- CETICOS
 - Paita, Ilo, Matarani 등 소재
 - 농산물 가공업: 국내 생산 농산물을 CETICOS에서 가공
- 세제 혜택
 - 2012. 12. 31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 면제 (단 의료보험료는 예외).
 - Tacna 의 CETICOS에서 중고 자동차의 수리, 분해 수리 종사 업체에는 2008. 12. 18 까지 적용
 - Paita, Ilo, Matarani 항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관련 조세와 지방세 면제

- CETICOS 지역 외의 국내 모든 지역에서 유입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수출로 간주, 수출에 관련되는 법규, 세제 적용
- 페루 영토 내의 세관을 통해 CETICOS로의 물품 유입 가능
- 통관, 외국으로의 재선적, 외국 물건을 CETICOS로 들여와 가공해서 수출 가능
- CETICOS에서 생산되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물건은 임시 수용, 임시 수입, 면세품의 복원에 관한 법률 적용
- 외국으로 물건을 再船積하여 창출되는 이윤에 대해서는 이윤세 면제
- CETICOS에서 국내 반입물건에 대해서는 정상수입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 적용

□ Tacna Free Zone(Zofratacna)

- 기업 운영 관련 국세와 지방세 면제(의료보험료는 제외)
- 지역 내 납세자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 외부에서 Ilo, Matarani항, Tacna 공항, Arica(칠레) 부두로 유입되어 Zofratacna 면세 창고를 거쳐 Tacna로 오는 물건에는 특별세율 적용
- 국내 타지역에서 Zofratacna로 유입되는 자산, 서비스는 수출로 간주되어 수출에 적용되는 일반 세금, 법률 적용
- 완성을 위해 잠깐 수출되었던 상품에서 파생되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쓰레기나 잔여물의 수입에는 세금 비적용
- 지역 내 납세자는 기계, 설비, 장비, 부품을 수입할 때 세금 보류 수혜

□ 자유 경쟁과 지적 재산의 보호

- 정부는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방해요인을 제거
 - 독점 방지
 - 지적재산권 보호.
- INDECOPI(국립 지적 재산 보호청)
 - 자유 경쟁법의 실천 감시
 - 불공정경쟁, 독점으로부터 시장 보호
 - 덤핑, 보조금 적용 처벌
 - 소비자 보호
 - 상도덕 위반행위 처벌
 - 자유무역 관련법 촉진
 - 정부 행정부처나 지방정부 기관의 불법, 불합리한 납세자 통제 방지
 - 지적재산권 보호

□ 사회 간접 자본과 공공 사업 분야에의 민간 투자 장려

-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및 운영권 양허계약(concession) 형태로 실행
 - 투자 프로젝트 담당 중앙 정부기관은 Proinversion
 - 지방 정부기관은 도청, 구청
 - 국내, 국제 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로 구체화
 - 낙찰자에게 프로젝트 실행 및 사업 운영권을 양도
- 양허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서를 서명하는 날짜로부터 유효 하되 어떤 경우에도 60년을 넘기지 못함.

- 정부는 양허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계약이 없을 경우라도 페루 헌법이 명시하는 중재기관(국내, 국제)에 회부 가능
- 사업참가업체는 투자위험 부담 보험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계약 가능
- 사업 참가업체는 계약서에 다음의 특혜 조치 가능
 - 부가가치세 우선 환급
 - 계약대상 자산 감가상각 실시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 진출 형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진출은 현지법인, 지사 및 지점 등으로 구분된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실제 현지 파트너와 수속을 밟아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1) 법인명

현지법인 설립 시 어떤 이름이든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란 뜻의 Sociedad Anónima(약칭 S.A.)을 포함해야 함.

2) 자본금

자본금은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주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등록된 STOCK을 의미하며, 최소 자본금은 강제되지 않음.

3) 주주

주주는 최소한 3명 이상의 개인이나 또는 법인,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성되어야만 함.

4) 법인

DIRECT CREATION과 PUBLIC SUBSCRIPTION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증을 필요로 한다. 또한 두 가지 형태 모두 법인 설립의 발기인인 주주들이 공증인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주주 전원의 신분증 및 페루 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 등등)를 제공해야 됨.

DIRECT CREATION에 의한 법인 설립을 예로 들면, 투자 자본액을 페루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일단 자본금이 예치되고 나면 주주들은 법인 설립서를 작성하고 동 법인 설립서에 변호사의 법률적 검증을 받아야 됨..

이 법인 설립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공증인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의 상업 등기소에 법인 설립의 등록을 위한 공증서를 발급함.

5) 설립 비용

법인 설립과 관련된 지출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총 투자 자본액 및 공증 서류의 복잡성, 길이 등에 따라 산출되는 공증 비용
- 자본금의 3/1000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 비용
- 대표이사 등록비와 변호사 비용 등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

6) 법인 유효기간

법인 설립 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법인 유효기간은 무한

7) 회계상 필요조건

법인은 영업 행위의 수입 지출과 관련된 주 장부인 회계장부를 스페인어로 유지, 관리해야 됨. 특별히 외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화 기준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됨.

과세 부과 기준은 외화로 정해 질 수도 있지만 해당 세금을 납부 할 때에는 당시 환율로 현지화로 환산하여 납부해야 됨.

주요 회계장부로는 STOCK BOOK, TRIAL-BALANCE BOOK, DAY-BOOK, LEDGER, WAGES & SALARIES PAYROLL BOOK, MINUTE BOOK 등이고 이상의 회계장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 확인이 요구됨. 특히 종업원 급여에 관한 장부인 PAYROLL BOOK의 경우는 페루 정부 노동부에 의해 검증되어야 됨.

외국 기업의 페루 내 지사 설립의 경우 자유로운 편이지만 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서류에는 페루 내의 주소, 지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지사의 법적 대리인 지명, 지사의 영업 형태 등을 반드시 기재.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동 회사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로 주재 페루 영사에 의해 확인된 증명서, 기타 국가에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및 페루 내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모 회사측의 결정문 등도 포함

나. 투자 진출을 위한 수속 절차

1) 납세번호(RUC) 등록카드

법률에 의거하여 페루국세청(SUNAT)은 고유업무 가운데, 납세자등록서의 등록을 입증하는 각각의 증명서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자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등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됨.

- 공증등록 절차를 받은 회사의 법인서류: 정관, 자본납입증명서 등
- 페루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일정 양식서

2) 투자관련 정부기관에 외국인 투자 등록

회사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은 페루 투자관리청 Proinversión에 등록하여야 한다. 합작투자 및 기타 협력형태에 의한 것인 페루업체와 계약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Proinversión에 등록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UNIFIED REGISTRY

상업, 제조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다른 경제 활동을 영위하든 모든 경제부문의 모든 개인 이나 법인체는 UNIFIED REGISTRY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와 같음.

- 항목이 모두 기재된 UNIFIED REGISTER 양식(동 양식은 BANCO DE LA NACION 은 행에서 입수할 수 있음)
- 등기소의 확인을 받은 법인등기서 사본
- 종업원 급여대장

4) 주소지 소재 시·구청의 영업허가서

동 허가서는 상업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계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의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 페루투자관리청 Proinversión

- 주소: Paseo de la Republica 3361, Piso 9, Lima, Perú
- 전화: (51-1) 612-1200
- 팩스: (51-1) 221-2941
- <http://www.proinversion.gob.pe>

라. 투자 방식

페루에서 외국 회사 투자 방식은 단독이거나 합작이거나 우선 Proinversión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예치금 준비

외국인이 현지인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할 경우나 외국인 2인 이상이 투자할 경우 외국인은 반드시 각각 25,000불씩 은행 예치금을 준비하여야 됨. 현지인은 예치금을 부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은 반드시 공동 분배해야 하는데 외국인 99%, 현지인 1%로도 분배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 현지인이 1%이지만 주식보유 권리로 법적 대응이 가능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함.

2) 공증

법인 서류, 설립 계약서, 자본금 입금 증명서, 여권 혹은 영주권 등 관련 서류를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 받아야 함.

3) 납세번호(RUC) 등록카드

법률에 의거하여 페루국세청(SUNAT)은 고유업무 가운데, 납세자등록서의 등록을 입증하는 각각의 증명서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자 등록업무를 실시함. 납세자등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됨.

- 공증등록 절차를 받은 회사의 법인 서류: 정관, 자본납입증명서 등
- 페루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일정 양식서

4) 투자관련 정부기관에 외국인투자 등록

회사 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은 페루 투자 관리청 Proinversión에 등록하여야 함. 합작투자 및 기타 협력형태에 의한 것이든 페루업체와 계약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CONITE에 등록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5) UNIFIED REGISTRY

상업, 제조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하든 모든 경제부문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체는 UNIFIED REGISTRY에 등록하여야만 함.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항목이 모두 기재된 UNIFIED REGISTER 양식(동 양식은 BANCO DE LA NACION 은행에서 입수할 수 있음)
- 등기소의 확인을 받은 법인등기서 사본
- 종업원 급여대장

6) 주소지 소재 시. 구청의 영업허가서

동 허가서는 상업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계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의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됨.

- ▣ 참고: 통상적으로 페루의 경우 관공서 업무가 매우 느리고 불합리한 처리가 많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투자 절차

법인 설립 관련 제출 서류 → 변호사 공증 → 등기소 등록(SUNARP) → 국세청(납세 번호인 RUC 발급) → 시. 구청의 영업 허가서 → 페루 투자관리청(Proinversión)에 외국인 투자 등록

- ▣ 참고: 페루에서의 법인 및 지사 설립절차 法 요약

가. 법인 설립

1) 주식회사

- 설립형태
 - 출자는 주식의 형태로 이루어짐.
 - 출자자는 주주가 되며 각 주주의 책임한계는 소유주식 금액에 해당.

- 명칭
 - 원하는 이름을 붙이되 주식회사의 약자인 S.A. 표기
 - S.A.C.(closed) 와 S.A.A. (opened)의 두 형태가 있음.
- 자본금
 - 자본금은 기명 주식으로 표시되며 각 출자자의 불입금으로 이루어짐
 -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최소한 약속한 자본금의 25%를 내야 하며 최소자본금은 없음
- 주주: 주주 수는 S.A.C.의 경우는 최소 2명, 최대 20명까지이며 S.A.A.는 2명 이상, 최대 한도는 없음.
- 설립: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증인 필요
 - 여러 주주가 동시에 설립하는 경우
 - 자본금은 페루 내 은행구좌에 입금
 - 주주들은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에 서명
 - 서명 후 공증받아 해당 지역등기소(SUNARP)에 제출하여 등록
 -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하는 경우
 - 회사설립자는 설립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증 畢
 - 공증 후에 해당 지역 등기소(SUNARP)에 제출
 - 가능성 있는 지분참여 신청인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 실시
 - 신청인의 회의 장소, 일시는 프로그램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모집 공고에 표시한 대로하되 임명된 사람은 회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설립 공정 증서를 만들어 SUNARP에 등기해야 됨.
- 주식회사의 존립 기간: 한정 또는 무한정
- 주주의 자본금 불입
 - 자본금 불입은 자국화폐, 외화, 유형 자산, 무형의 기술 등으로 가능
 - 무형자산의 경우는 유형자산의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 서류, 설명이 필요
 - 화폐 형태를 띠지 않은 자산은 이사회가 검토하고 승인 필요
- 회사 조직
 - 주주 총회
 - 주주 모임으로 회사의 최고조직
 - 주주는 소유주식만큼의 발언권을 가지며 모든 결정은 과반수 실시
 - 이사회
 - 이사회는 구성원은 주주 총회에서 선발되며 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등기
 - 회사 정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주주만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가능
 - 이사회 구성원 수는 정관에 정하되 3명 이상이어야 됨.

- 경영자
 - 회사정관이 주주총회만 매니저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임명
 - 정관이 정하거나 주주총회가 결정하여 복수 매니저 임명 가능
 - 직위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무한정이나, 정관에서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임명된 경우는 예외
 - 매니저의 직무는 정관에 정하거나 임명 당시 결정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와 계약 수행권한 보유
- 배당금 지급
 - 회사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
 -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적립금
 - 단, 자산이 자본금보다 많아야 함.
 - 배당금은 주식액수와 회사에 주주로서 참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2) 유한책임회사

- 설립형태
 - 자본금은 주식이 아닌 동일한 비율로 나뉜진 참가금으로 표시
 - 참여금은 증권이 될 수 없음
 - 동업자는 20명을 넘을 수 없고 동업자는 회사채무와 개인적으로 무관
- 명칭: 회사명 뒤에 S.R.L.(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약자)을 부가
- 자본금: 자본참여금은 동업자 불입참가금(계약) 합계로 표시하며 25% 이상 불입
- 경영진
 - 회사 경영에 1명 이상 매니저 임명 가능(꼭 동업자가 아니어도 됨)
 - 회사 주요조직은 동업자위원회와 경영진으로 구성
- 동업계약: 계약으로 법인이 형성되지 않으며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음.
 - 참가(Participation)에 의한 동업
 -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에 의한 동업
 -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의한 동업
-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에 불입을 하지 않고 서비스나 생산량 등 다른 형태로 회사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직접 투자로 간주함.
- 회사설립을 위한 대략 소요기간
 - 변호사가 회사정관 초고 작성: 2일
 - 공증인이 초고에 의거해 정관 작성: 3일
 - 등기소 정관 등록: 15일
 - 이사, 매니저, 위임자 등 등기소(www.sunarp.gob.pe) 등록: 15일
 - 국세청(SUNAT: www.sunat.gob.pe) 사업자등록증(RUC) 발급: 1일
 - 업종에 따라 필요한 특별 허가: 1-30일
 - 해당구청 허가: 20일

- 회계장부 공증(스페인어, 현지 화폐 단위 sol로 표기): 2일
- 노동부(www.mintra.gob.pe) 직원 급여 대장(planilla) 등록: 5일
- 노동부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판사가 공증
- 직원 수, 급여, 의무, 권리 등 표시
-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 등록, 이사회 회의록 등 공증: 2일

3) 특별허가 필요업종

- 통제대상 물질 제조업
 - 무기, 화약, 탄약, 군경용품, 특별제한 대상 화학물질
 - 내무부, 국방부 등 해당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뒤 생산부(Ministerio de Producción) 검사를 받아야 됨.
- 상업, 서비스 업종 중 일부
 - 살충제, 동물약품, 사료: 보건국(SENASA) 허가
 -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 동물: 농업부 허가
 - 경비 서비스: 내무부 허가
 - 농업 살충 서비스: 보건국(SENASA) 허가
- 관광업
 - 여행사: 관광청(Dirección Nacional de Turismo)에 신고
 - 숙박업: 관광청에 등급 신청
 - 카지노: 해당 법규가 요구하는 구비조건 갖춰야 함.
 - 슬롯머신: D.S.009-2002-MINCETUR 법의 요구사항
 - 식당: 공식등급(포크 1-5) 부여나 관광식당 지정은 관광청에 신청
 - 민박 업소: 010-95-ITINCI법에 따라 해당기관에 허가 신청
- 국내 지역間, 해외 육상 운송: 화물 운송, 여객 운송, 관광버스 등 종류에 따라 노선 허가, 영업 허가 발급을 교통 통신부에 신청
- 농산물가공업
 - 농축산물 가공: 농업부 허가
 - 축산업: 보건국(SENASA) 허가
 - 식물살충제 생산: 보건국(SENASA) 허가

나. 지사 설립

- 설립 요건
 - 페루에籍을 두든 두지 않은 페루에 지사 설립시登記소에 등록
 - 본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 불가능
 - 본사 인정범위 내에서 독립활동 가능
- 지사 설립정관에 들어갈 내용
 - 본사의 유효 증명, 본사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유효 증명 외에 본사의 정관에 지사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회사정관에 해당하는 본사 주재국이 발행하는 서류의 사본

- 본사가 지사 설립에 동의했다는 내용.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사의 자본금
 - 지사업종. 이 업종이 본사정관에 본사업종으로 등록돼 있다는 진술서
 - 지사 주소
 - 페루 국내에 거주할 최소 1명의 법적 대표자 임명, 위임장 필요
 - 지사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는 페루법에 따른다는 진술서

6. 투자입지여건

페루에는 특별히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유무역지대인 SETICOS 지역에 일부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나 주로 수입 중고자동차의 수리, 변형을 위한 자동차 정비 업종이 대부분이며,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을 뿐 우리 개념의 산업 단지는 전무하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고용 창출과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별도의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향후 산업 공단이 조성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가. 투자환경 개요

□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

-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이후 줄곧 경제자유화 정책 일관 추진: 對外 시장 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
- 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인 투자 환경 국가 중의 하나로 변모, 법적·제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완전 문호 개방

□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제의 중요한 軸

- 2007년 전체 GDP 중 외국인투자 비중이 20%에 達할 전망
- 건설, 제조업, 서비스산업 분야 소비 및 수입 진작, 고용 증대: 외국인투자 증대는 곧 자본재 수입 증가와 직결

□ 인프라분야 투자매력도 상승

- 중남미에서 네번째로 인프라 개발 분야 투자 환경이 좋은 국가로 浮上.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페루는 경제 안정세 지속, 국가정보화 계속, 금융 시장 확대의 결과로 사회 간접 자본 분야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
- 세계경제포럼 중남미 민간인프라 투자지표에 의하면 페루보다 앞선 국가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3개국으로 이들의 점수가 5.4, 4.4, 4.3인 데에 비해 4위인 페루의 점수는 4.2이나 정부의 투자유치 적극성만 볼 때에 페루는 중남미에서 단연 1위

- 민간 분야 인프라투자가 활발해져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민간투자가 활발해진 데에는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토지 구매 규제 완화, 경제 정책 일관성이 큰 힘을 발휘

□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으로 프로젝트 일관성 유지

- 민간기업의 인프라분야 투자안정성을 볼 때에도 중남미에서 두 번째를 차지. 일단 시작한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해 주는 요인.
- 공공부채 및 재정 적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7% 및 0.3%에 머무는 등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도 인프라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주는 밑거름
- 인플레이션 극복, 환율 안정, 건전한 은행시스템 육성도 페루 거시경제 호전 뒷받침.
- 증권 및 채권 시장 내용 다양화로 투자가의 관심 증대

□ 인프라분야 투자 잠재성 막대

- 페루는 아직 중남미에서 볼리비아 다음으로 인프라개발 격차가 큰 국가이긴 하나 이러한 격차 현존은 개발여지가 크고 그만큼 투자 잠재성이 막대함을 의미.
-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분야에 많은 민간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외국인투자 환영

- 유엔 중남미 경제 위원회(Cepal)에 의하면 페루는 경제 안정 지속으로 외국인 투자가 2006년 34억6천7백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2005년 대비 34.43% 증가
-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는 국민 경제 건전 운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및 수출 확대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단순 자원개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의 투자 적극 환영
- 2004년 천연가스의 본격 생산으로 주종 에너지를 석유에서 가스로 변경해 가고 있는 바, 각종 산업시설 및 발전소 주원료로 가스 사용을 장려하며 택시, 시내 버스를 포함한 교통 수단의 천연가스 차량 사용, 도시 가정용 천연 가스 공급, LNG 플랜트 건설, 석유(가스)화학산업 육성 추진
- “高 부가가치 산업 분야 직접 투자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에너지 광업부 장관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對 페루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을 예상.
- 2006년 출범한 Alan Garcia 정부는 고용 창출과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공단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짐.

□ 외환보유고 및 공공재정 好轉

- 2006년 외환보유고가 1년 전체 수입액에 해당하는 US\$ 12,329백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대외신용도 상승

- 성공적인 거시경제 운영,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稅收가 증가하고 정부 재정 적자폭도 축소되어 정부 재정 균형 달성
 - 2000~2002년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2.4%였던 데에서 2006년에는 국민 총생산의 2.5%의 흑자로 반전
 - 인플레이션율도 목표치인 1.5~3.5%의 범주를 유지
- 페루의 경제안정은 국제시장 분석가들과 자본시장에서도 인정
 - JP Morgane 산정 국가위험 지표 EMBI+는 2006년 말 120점 육박
 - 페루 외채 적용 할인율 및 이자율이 미국 국채 대비 1.2% 수준
- 국가위험도 하락(연평균 5%, 500점 이상)으로 프로젝트용 차관조달 비용 감소
 - Standard&Poor's(S&P)도 페루 신용등급을 2006년 11월 BB+로 상향조정

□ 외국인투자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은 2006.12.31 기준 US\$ 15,442백만 달러
 - 06년 對 페루 외국인 투자는 12억3천6백만 달러
 - 연말 기준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154억4천2백만 달러에 도달
 - 페루에 투자하는 선진국기업 다수는 모국 본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통해 페루로 투자
 - 투자업체의 본사 국적별로 볼 때 스페인, 영국, 멕시코, 칠레, 스위스가 對 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71.15%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및 스페인이 전체 對 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50.47%를 차지
- 이동 통신 산업 분야에 가장 활발한 투자
 -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이동 통신, 광업, 제조업, 금융업
 - 1990년대 전화통신 분야가 외국인투자를 주도했던 것으로부터 크게 변화
 - 2006년 對페루 투자 외국업체로 America Movil(멕시코), Racetrack Peru(미국), Phelps Dodge(미국), Votorantim Metais(브라질), Sumitomo Metal Mining(일본), Bank of Nova Scotia(캐나다), CFG Peru Investments(싱가폴), Gerdau(브라질), Pluspetrol Resources(영국)가 가장 주요
- 2007년에도 외국인투자 증가세 지속
 - 활발한 對페루 외국인투자 추세는 2007년에도 계속 전망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전기에너지, 상수도도 외국인투자 新유망 분야

7. 노무관리

가. 고용

페루에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나 광고, 전문인력 공급기관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현지 노동법규에 맞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직원 채용광고를 내면 많은 지원자가 몰려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페루인의 심성은 매우 온순하고 고용주에게 충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력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숙련, 반숙련 노동자를 구하기는 용이하나 전문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인력이 서비스업에 몰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임금

단순 노동자의 임금은 150-300불 정도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편 전문직종의 급여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0-5,000불 정도로 현지 소득수준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현상을 보인다. 대졸 초임사무직 임금은 평균 600-800불 정도이나 직장이나 직종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다. 최저임금은 S./530(약 178불) 정도 수준이나, 가이드 라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45% 상당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현지 노동법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은 직원을 정식 고용하는 것보다는 임시로 고용하고 자주 직원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이 미국-페루 FTA 승인 관련, 페루 노동시장 기준을 더욱 높이라는 요구를 해 옴에 따라 앞으로 노동자 편향적인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 최근 노동시장 현황

일반적으로 페루 노동자는 생산성에 비하여 급여를 많이 받는 국가 중에 속한다.

20인 이상 노동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약 85% 이상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어 임금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기업측에서는 생산성보다 높은 고임금구조하에서 정규직 직원 채용을 줄이고 임시직 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구조로 인하여 노동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은 핵심부서와 관리자급에서만 정규직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총원되고 있어 높은 실업률 못지않게 임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 노조는 기업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자주 罷業을 일으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을 야기시켰지만 최근 들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노동 시장조건이 악화되자 파업을 일으키는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마. 단체교섭 및 중재

기업은 노조 또는 노동자 50%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금, 노동자 근로조건 등을 협상해야 되며 최저 임금('05년 12월 29일: 500.00Soles)이하에 대한 노동조건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은 통상 1년이 적용되나 상호간 협의에 의해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 측과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 선임을 위하여 5일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중재에 의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Strike를 할 수 있는데 사기업인 경우 최소 5일전에 사용자 및 정부에 통보해야 되며 공공 기관은 10일 전에 Strike를 통보해야 된다. 통보를 받은 정부에서는 3일 이내 Strike가 합법과 불법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불법 Strike인 경우는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 측은 Lockout(직장 폐쇄)로 노동자와 맞설 수 없으며 이 경우 Lockout는 불법이다. 노조는 정부로부터 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Strike의 경우 노조원 1/5의 서명을 다시 받아 不備한 요건을 갖춘 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의료와 관련된 응급실, 전기, 용수, 석유, 교도소, 통신, 사법행정, 방송, 쓰레기 수거 및 공공과 관련된 기타 분야

바. 대표적인 노동조합

전통적으로 페루는 사회 속성 자체가 資本主義라기보다는 社會主義的 많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現정권의 속성도 그러하며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페루노동자연합
 - 좌익의 대중혁명연합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섬유노조와 운송조합 노조가 있음
- 페루노동자 총연합(CGTP)
 - 광산주의 계열로 광산 및 철강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건설 노조 및 금융 노조 등과 연합하고 있음
- 페루 교육자 연합
 - 교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산주의 계열
- 공기업 근로자 연맹
 - 국가 공기업 종사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회적 파장효과가 가장 심각함
- 국가 노동자 연합
 - 정치 세력에 속하지 않은 노동조합으로 각 기업 단위 소규모 노동 조합 연합체

사. 근로일수(시간) 및 휴가

노동법 67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매월 고정된 급여를 제공해야 되며 1개월의 기준일자는 30일이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파업은 日數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만 개인병가, 회사에 의한 교육, 자녀 생일을 전후한 time-off, 노동조합장에 의한 합법적인 time-off, 회사측에 의한 time-off는 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휴가는 30일 이상은 보장해야 되며 노동자가 휴가를 가지지 못하였을 경우 자발 여부를 막론하고 기업가 측은 보상해야 된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휴가 보상금은 휴가 1일당 3배의 일반 영업일 임금이다. 다만, 휴가 30일중 15일은 사용자측이 노동자와 협의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노동법 854조에서는 주간 노동일수를 48시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정규노동 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아. 급여 이외의 근로자 복지 및 수당

사용자측은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年間 급여총액 중 9%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공제하여 Social Security에 적립하고 총액의 2%는 Solidarity tax에 적립해야 된다. 연간 총액 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보너스, 각종 수당, 급식보조비 등 모두를 포함하며 연말 인센티브 개념인 Profit sharing는 제외한다. 노동자에게 강제되는 의료연금은 2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연간 급여총액의 10%를 공제하여 국가 의료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급여총액의 8%를 사설 의료연금에 가입하고 4%는 국민연금관리공단(Primas de Seguro)에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사용자측은 4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4년 급여 총액의 최소 1/4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life insurance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18세 이하의 노동자는 야간작업이 불법이고 12-14세 노동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33시간이며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근무는 일일 7시간까지 최대이며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어 설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없어지며 새롭게 근로한 1일로 간주한다. 초과근무 수당은 평상시 근로 임금의 125-150% 수준에서 지급하지만 양측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초과근무 수당으로 첫 2시간은 25%, 그 이후부터는 35%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페루 노동법에서는 최소 보너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7월 및 12월에 최소한 월 급여의 100%을 지급해야 된다(연간 최소 200%의 보너스 지급 의무화)

자. 해고 및 구조조정

노동자의 생산성이 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지거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가 비행, 절도, 사기, 약물남용, 폭력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시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며 해고 예정인 노동자에게 통보가 곤란할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한 6영업일 이전에는 무조건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

급속한 기술 개발 및 발전에 의해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는 노동자 해고(구조조정)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해고 여부를 문의해야 되며 노동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노동부 의견을 노동자가 거부하여 재접수하였을 경우 노동부는 다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결정하고 동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8. 조세제도

가. 영업세

페루의 영업세는 부가가치세(IGV: 또는 일반 판매세, 다른 중남미국가에서는 IVA라고 하기도 함)로서 페루 내에서 財貨 판매,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건축 계약, 건설 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및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한다. 부가가치세율은 원래 17%이며, 이외에 도시진흥세 2%가 더해져 총 19%이다.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및 수입 시 또는 건축계약서에 근거하여 지불된 부가가치세는 총 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소득세

페루의 소득세는 개인 및 기업 國籍 또는 소득원에 관계없이 페루 거주 납세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페루 국적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동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체의 경우 제 3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득에 대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 사업 연도 말 현재 계산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특히, '94년부터는 배당금을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분배에 따라 발생한 여하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1) 거주 납세자

사업체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 규모에 대해 다음의 2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총 소득수준이 54 UIT미만일 경우 15%, 54 UIT 이상일 경우 30%이다.

- UIT는 조세 단위로 1 UIT는 2006년 기준 3,400솔(S/.) = US\$ 1,030 수준임

2) 非거주 납세자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 로열티: 10%
- 자동차 및 항공기 리스 (LEASE)로 발생하는 소득: 10%(자동차의 경우 순소득 80%, 항공기의 경우 순소득 60% 이상에 대해)
- 페루 내에 설립된 은행 및 금융회사가 해외에 지불한 이자 중 외국금융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1%
- 기타 소득: 10%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개인은 페루 내에서 행한 개인적 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급료, 보상, 로열티 및 기타소득에는 30%가 적용된다. 2001년도부터 재 투자분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3) 참고 사항

페루 정부는 2002년도부터 중간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를 27 UIT미만, 27 UIT-54 UIT 미만, 54 UIT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15%, 21%, 27%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법인 소득세 중 재 투자분에 대해서도 과도정부가 20%의 특혜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27%로 상향 조정 부과할 계획이다.

다. 純資産 특별세

페루 국내거주 사업체는 이윤을 발생시키든 않든 간에 순자산의 0.5%(종전의 2% -> 1.5%에서 재차 하향 조정 됨)에 해당하는 순자산특별세(종전의 최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97년 5월 4일부로 발효된 법률 제26777호에 따르면,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가 신설된 반면에 최저소득세가 폐지되었다.

1991년 12월 28일 제정된 페루의 최저소득세에 관한 법률 제25381호에 따르면, 당해 회계연도 기간 중 적자를 기록한 법인체만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2%를 최저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최저 소득세제는 소득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소유권을 위배하는 제도로 비난을 받아왔다.

현재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는 모든 법인체를 대상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자 대차대조표에 따라 순자산에 대해 0.5%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저소득세를 대체한 신규 특별세는 외국의 투자진출업체, 외국기업의 지사 및 기타 페루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동 신규 특별세가 외국기업이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상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 18일에는 동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26777호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페루 내 법인체는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는 분할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1998년도의 경우 5월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세 선납부금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액을 상계할 것이며 6월부터는 신 특별법에 대해 적용된다.

이는 이미 납부된 소득세가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에 대해 상계될 것이며, 페루 내에서 납부된 모든 소득세가 투자자의 본국에서 납부된 소득세에 대해 상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업체들은 순자산 소득세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체 설립 후 1 회계연도 이내의 생산업체
- 청산중인 업체
- 1998년 12월 12일 이전에 자본확대를 시도하는 숙박업체
- 공업 식 농장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업체, 목축업체 및 임업업체
- 합병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업합병에 의해 흡수된 업체

라. 참고: 페루의 조세제도 상세내역

□ 소득세

납세자 국적, 회사 주소, 설립 장소에 상관 없이 1년에 한 번 신고함. 페루 국내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라도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해야 함(Decreto Supremo 179-2004-EF).

- 등급
 - 1종: 임대, 재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
 - 2종: 다른 자본의 소득
 - 3종: 상업, 공업, 그 외 법에서 규정하는 업종
 - 4종: 자유영업자(free lancer)
 - 5종: 고용노동자, 그 외 법에 규정된 독립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율
 - 국내 거주자
 - 법인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 30% 내고 그 외에 경비 처리된 금액의 4.1%를 냄. 뒤의 경우 직접 소득이 아니므로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소득의 금액에 따라 세 가지 등급: UIT(*) 27까지 15%
 - UIT 27 이상부터 54까지 21%
 - UIT 54 이상 30
 - * 2007년의 UIT 값은 S/3,450.00 (약 US\$1,088)
 - 카지노, 슬롯머신 업소는 추가로 순소득의 12%를 더 내되, 매월 매상의 1%씩 원천징수(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 배당금, 그 외 법인이 이익배당의 성격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4.1% 원천징수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외 대출의 이자: 4.99%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돼야 됨
 - 현금 대출일 경우 현금이 국내의 은행을 통해 송금됐다는 증빙 서류
 - 이자가 발생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자율을 넘어서서 연간 이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3% 추가
 - 국내의 은행, 금융 회사들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이자: 1%
 - 법인에서 수령한 배당금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 배당금(원천 징수)
 - 이익금을 주식으로 받을 때, 재평가로 발생하는 차액, 그 외 자산 계정은 배당금이나 이익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음.
 - 로열티 30% / 기술 자문 15% / 그 외의 소득 30%
 - 해외의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위 설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
 - 국내 회사가 경제 연관이 있는 해외 회사에게서 대출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이자(위 설명된 경우 예외)
 - 자연인이 수령하는 급여, 연금, 배당금, 그 외의 소득에 대해 30%

- 페루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소득(양식은 www.sunat.gob.pe에서 교부)
 - 외국인이 페루에 거주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출국시 출입국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2명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회사나 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각사에서 증명서를 떼야 됨)
 -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양식 번호 1492)
 - 고용주, 소득 지불자가 발행. 발행날짜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동일인에게 마지막으로 발행되고 사용된 증명서의 발행날짜 기입
 - 온라인 SUNAT에서 발행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양식번호 1692)
 - 고용주, 소득 지불자가 발행, 서명. 자동 발행되며 서명만 하면 외국인 사용 가능
 - 외국인 필요에 따라 원하는 장수 인쇄 가능
 - 유효기간은 SUNAT을 통해 제출된 날짜로부터 30일.
 - 마지막으로 발행된 증명서와 새로운 증명서가 발행되는 사이의 기간을 명시해야 됨.

- 전에 발행된 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그 때까지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간주함.
 - 증명서는 발행된 날짜로부터 최대한 12개월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발행함.
- 다음의 경우에 외국인들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을 지불하는 회사가 국내에 주재하지 않아서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 서식 번호 1494(세금 직접 납부 진술서)와 함께 영수증 사본을 제출
 - 예술가, 종교인, 학생, 고용인, 독립, 이민비자로 입국하고 페루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활동을 했을 경우 서식번호 1495(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함.
- 아마존 지역의 소득세
 - 아마존이라 함은 27037법에 명시된 Loreto, Madre de Dios, Ucayali, Amazonas 도와 그에 부속된 지방을 지칭
 - Decreto Supremo 103-99-EF에 의해 규정된 소득세 특별법은 납세자의 주소, 등기소 등록, 그의 자산과 생산의 70%가 아마존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
 -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3종 소득세를 10% 납부
 - 임산 추출, 농업, 양식, 수산, 관광
 - 상기 업종에서 생산하는 1차 상품의 변형, 가공과 관련된 제조업과 그의 유통업. 예외의 경우로 Loreto, Madre de Dios, Coronel Portillo의 Iparia, Masisea, Ucayali의 Atalaya, Purus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3종 소득세 5%를 납부함.
 - 아마존 土産品 재배나 가공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소득세를 면제 받음
 - 전향의 토산품은 yuca, soya, arracacha, uncucha, urena, palmito, pijuayo, aguaje, anona, caimito, carambola, cocona, guanabano, guayabo, marañón, pomarosa, taperibá, tangerina, toronja, zapote, camu camu, uña de gato, achiote, caucho, piña. ajonjolí, castaña, yute, barbasco, algodón, áspero, curcuma, guaraní, macadamia, pimienta 등임.
 - 기름 추출용 야자, 커피, 코코아의 경우 면세는 재배업자에게만 해당되고 아마존 지역 가공업자는 10%의 3종 소득세를 납부함.
 - 사회 자본과 운송업 종사자는 5%를 납부함.
 - 아마존 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순소득의 30% 이상을 투자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회사들은 3종 소득세 10%를 납부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밀림 지역 투자 프로그램에 따라 소득세 부분에 다음 혜택을 받음.
 - 프로그램 실행에 투자된 금액의 5%를 소득세의 credit으로 받음
 -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받음. 투자를 해서 올린 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하고 남은 순소득의 20%까지 가능.
 - h. Loreto, Madre de Dios, Coronel Portillo의 Iparia, Masisea, Ucayali의 Atalaya, Purus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5%를 납부함.
- 조세 안정성: 정부는 계약에 의해서 투자의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 들이는 회사가 세제 보장, 법률 보장의 혜택을 받도록 하며 광업, 석유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진흥 제도가 있음.
- 이중 과세 방지 협약: 페루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스웨덴, 캐나다, 칠레와 맺었으며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방지규정 적용(안데스공동체 결의 578호 적용)

- 국제 조세: 조세회피지역(Paraisos fiscals)을 통해 행해지는 거래와 대체금액 적용을 규정하기 위한 규정이 소득세법에 추가.
- 부가가치세(I.G.V. Decreto Supremo No. 055-99-EF): 모든 매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는 매출과 매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차액을 SUNAT에 납부함.
 - 적용 대상: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과 서비스의 소비
 - 動産의 매매
 - 국내에서의 서비스의 제공, 이용
 - 건축 계약
 - 부동산의 건축자가 부동산을 처음 팔 때
 - 물품의 수입
 - 부가가치세율: 고유 부가가치세 17% + Promocion Municipal 세 2% = 19%
 - 非과세 및 면세
 - 비과세
 - 물품의 수출
 - 법에 명시된 서비스의 수출
 -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이체
 - 회사 활동을 하지 않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행하는 중고제품 이체
 - 부동산 또는 다른 형태 양도(단, 1종, 2종 소득세 부과 대상일 때에 한함)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소비를 위해 통관하기 전에 거래할 때 CIF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면제
 - 아마존 지역의 납세자들이 다음의 거래를 할 때
 - 아마존 지역에서의 소비를 위해 같은 지역에서의 물품의 매매
 - 이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건축 계약, 부동산을 건설한 업자가 첫 매매를 할 때
 - Loreto, Ucayali, Madre de Dios 지역에 위치한 회사들이 같은 지역의 소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매출
 - 면세
 -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법 Apendice I과 II에 규정된 거래
 - 국경지역에 위치한 공업 회사들
 - Ilo, Matarani, Paita의 CETICOS에서 설립된 회사
 - 事前 환급제: 수출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수입을 하거나 국내에서 매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매출에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되나 아직 상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주는 제도
 - 환급은 매입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의 credit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N(Notas de Credito Negociables)를 발급 받아 이루어짐.
 -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4 UIT
 - 정부와 자원 개발 계약, 공공 시설 건축 계약 등을 맺은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서비스, 건축 계약 수입이나 국내 매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특별소비세(I.S.C.,(Decreto Supremo No. 055-99-EF): 특별소비세는 담배, 알코올 음료, 청량 음료, 생수, 사치품, 연료, 카지노 등에서 생산 단계와 수입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품목에 따라 0%, 2%, 10%, 17%, 20%, 30%, 125% 부과.
 -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
 - Loreto, Ucayali, Madre de Dios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매출
 - Ilo, Matarani, Tacna, Païta의 CETICOS내에 설립된 회사
- **금융거래세(I.T.F.:** 새로운 개정법에 포함): 각종 금융거래 시 입출금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세금
 -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 한 명의인의 구좌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출금
 - 급여, 연금, 퇴직금 등이 입금될 때
 - 국내의 외교관, 국제 기관의 구좌
- **임시자산세(ITAN:** 새로운 개정법에 포함): 3종 소득세 과세 대상자로서 과세연도의 1월 1일 전에 활동을 시작한 모든 납세자에 해당(납부된 ITAN세는 소득세의 credit으로 이용 가능)
 -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과세 연도의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납세자, 사립 교육 기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단체는 면제
 - 從價稅(Ad Valorem): CIF 가격 기준 0, 4, 5, 12%이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4, 12, 20%에 각각 5%를 가산함.
- **세관의 보충적 제도**
 - 임시반입제도(DS No. 129-2004-EF 세관법의 70-75항): ‘능동적 완성(perfeccionamiento activo)’의 경우 수입상품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제도
 - ‘능동적 완성’의 종류
 - 원자재, 재료, 비완성품의 물리적, 화학적 변형
 - 생산, 변형되는 모든 물건
 - 둘 이상의 물건의 조립
 - 수출품의 포장, 포장 재료
 - ‘능동적 완성’의 성립 요건
 - 상기 종류의 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물건
 - 신청하는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해당 기관에 등록돼 있어야 함.
 - 기한은 24개월이며 보류되는 세금에 대한 보증 필요
 - 관세 환급(Decreto Supremo 104-95-EF) :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해 소비했거나 수출품에 포함된 물건 수입을 위해 납부한 관세환급 수혜 가능
 - FOB 수출액의 5%부터 품목의 1년 동안의 업체별 수출액 US\$2 0백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환급액은 경제부 평가에 의해 조정
 - 수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되거나 수출품에 추가된 물건을 제 3자를 통해 수입하거나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수출업자는 수혜 가능
 - 경제부는 매년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수출품의 리스트를 발표 (HS Code로 표시)

- 수입품 면제제도(DS No. 12-2004-EF 78-80항): 수입 후 변형을 거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 시 부과한 세금 면제.(혜택을 받는 기한은 수입으로부터 1년)
 - www.aduanet.gob.pe/aduanas/informag/leygen.htm(세관법 Decreto Legislativo No. 809)
 - www.audanet.gob.pe/aduanas/informag/regley.htm(세관법 Decreto Supremo No. 121-96-EF)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페루의 외환관리기관은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으로서 환율제도는 원칙적으로 외화의 수급에 의한 자유외환시장 환율결정 기능을 골자로 하고 환율의 과다한 등락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Dirty Floating System을 운용하고 있으나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외환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경향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美貨 弱勢로 페루 Nuevo Sol화가 지속적인 平價切上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자유화하여, 국내 거주 내. 외국인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외화예금 구좌개설 허용, 내국인의 외화송금 및 해외반출의 용도제한 및 금액한도의 폐지, 외화 송금업무의 중앙은행허가제에서 일반 외환업무 취급은행으로의 허가권 이양,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의 100% 허용 등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외환 자유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치 보존수단으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自國貨幣의 기능상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주식 소유자 및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시장환율에 의해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배당소득에는 10%의 주식배당세가 부과된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 위원회(CONITE)에 등록된 경우 로열티 및 수수료의 지급이 허용되며, 로열티 지불액에 대해서는 28%의 로열티세가 源泉徴收한다.

외국으로부터 借款導入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도입차관의 원리금상환에는 제약이 없으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중환율로 이루어 진다. 投資元金の 本國回收時에도 Comite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투자인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허가해 주고 있다.

페루의 外換市場은 麻藥原料인 코카인 거래대금, 외국인 투자자금 및 페루의 금리변동에 따른 단기성 유입 달러, 휴가 시즌 등 외환 급증시기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페루는 80년대 및 90년대 극심한 外換危機를 벗어나 최근에는 파리클럽에의 債務를 조금씩 早期償還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특성

1) 소량, 다품종 주문시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소량다품종 주문이 일반화 되어 있어 한국의 최소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페루시장 개척 시 한국의 최소주문량 수준을 현지에 맞게 탄력적인 수용이 요구 된다.

2) 높은 수입의존도

페루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거 제조업체도 수입품과의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수입업체로 전환하는 등 수입시장은 지속 확대하는 추세이다.

3) 단순한 유통구조

매년 수입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유통구조도 단순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페루와 같이 협소한 개도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입상에서 곧바로 최종 소비자 판매점인 2단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수입상이 도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나. 대금 결제 조건

1) 외상거래 일반화

첫 거래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할 정도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외상거래 제의를 무조건 배격하기보다는 바이어 신용, 규모, 신뢰성 등을 감안하고 거래를 몇 차례 경험해 본 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외상 거래 전 신중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 높은 금융비용

페루 기업의 신용도가 낮고 과거부터 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장 (L/C) 금액의 90-120%를 담보로 요구하고 20-30%의 이자율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장을 통한 거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첫 거래 시 참고사항

신용도가 떨어지는 바이어가 첫 거래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할 경우는 과감하게 배격을 하면 되지만 중간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바이어가 외상거래를 요구할 경우 각 기업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외상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구하고 T/T 거래로 상호간 신뢰가 쌓인 이후에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유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시장개척 시 유용한 Tips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사람들은 서류로 인한 거래보다는 직접 대면을 통한 인간적인 교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하다.

거래 시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를 성약 시키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적극 대처할 경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 書信 발송 시 수록할 내용

바이어에게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첫인상이 중요하므로 공문 내용을 주의 깊게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E-mail을 사용할 경우에도 팩스로도 사본을 재송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E-mail 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수출업체의 경우 대부분 첫 공문에 인사말, 회사소개서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어가 관심이 있는 경우 회신해달라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첫 공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특히 가격)가 수록되어있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짙다.

바이어는 수출업체로부터 부족한 내용의 첫 공문을 받고 추가 회신을 하기보다는 가격조건, 품목별 가격리스트 등 완벽한 정보 입수를 원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있더라도 처음 공문에는 FOB, CIF 기준의 수출가격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 페루의 商관행

1) 상호 신뢰가 거래의 첫 조건

페루바이어는 거래를 위해 무역회사보다는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가능한 생산업체와의 접촉을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초기단계에 소량주문의 형태를 취하면서 생산업체의 약속이행여부, 품질 준수여부 등 거래의 기본요소들을 점검한 후 신뢰가 쌓이면 주문량을 늘리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페루나 한국이나 모두 high context 문화권에 들어가는 시장으로 미국이나 독일, 게르만 민족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간략한 핵심사항 위주의 비즈니스 추진보다는 개인사, 신변잡기 등을 곁들인 多辯의 상담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간적인 친밀감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가능한 한 현지방문을 통한 직접 대면 상담이 권장된다.

2) 간단한 스페인어 회사소개서

설립 연도, 회사 규모, 직원 수, 매출액, 현 거래처 등 기초적인 회사 소개서 정도를 스페인어로 작성할 경우 바이어와 상담성과가 배가 될 수 있다.

3) 거래조건 완화 필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At sight L/C거래가 바람직하지만 리마 관행상 D/A, D/P, T/T 거래가 보편적이므로 at sight L/C 거래만을 고집하여 거래 무산시키기보다는 바이어 신용도를 확인하여 현지 관행에 맞는 거래조건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바람직한 접촉방법

많은 한국업체들이 접촉방법의 미숙으로 거래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바이어에게 제품검토를 요청할 경우,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조건, 제품설명서, 샘플 등 제품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한 후, 거래 희망여부를 팩스,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리마 바이어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팩스 또는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5) 조급함은 금물

리마인들은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반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1-2회 독촉 후 회신이 없는 경우는 'NO'로 단정해도 좋으며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 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편지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2. 물가정보

페루의 體感 물가수준은 한국과 비교해 그리 싸지 않다. 특히 서비스요금은 매우 비싼 편이다. 전기, 전화 비용은 오히려 한국과 비교해 비싸다는 느낌까지 들며 각종 수리, 정비 등 서비스 분야 요금은 턱 없이 비싼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들어 Machu Pichu 등지로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고 있어 호텔요금이 미국 등 선진국 못지 않게 비싸며 그것도 없어서 예약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08년에는 APEC을 비롯한 각종 국제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호텔 예약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율은 매우 낮아 연간 물가변동률이 없는 편이다.

□ 도시: 리마(페루)			환율: US\$1 = Sol3.32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200	7.1	구두(1켤레, 소가죽)	120
1.2	넥타이(1개, 실크100%)	35	7.2	치약(150g, 1개)	2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30	7.3	칫솔(1개)	3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	7.4	면도기(1세트)	2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50	7.5	건전지(1세트, 1.5V AA)	1.7
1.6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5	7.6	화장지(1통, 300매)	1.6
1.7	청바지(Levi's)	40	7.7	비누(1개)	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13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6	8.2	볼펜(12개)	10
2.3	닭고기(1KG, 생닭)	2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5
2.4	쌀(1KG,Short Grain)	1.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6
2.5	밀가루(1KG)	1.5	8.5	휴대폰(범용형)	70
2.6	설탕(1KG, 백설탕)	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50
2.7	계란(10개)	1	8.7	인터넷가입비(1회최초,1회설치)	10
2.8	감자(1KG, 현지산)	1.5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65
2.9	미네랄워터(1.5ℓ,Evian 1Pet)	3.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0,000
3.1	고추장(1Kg)	15	9.2	엔진오일(1L)	1.2
3.2	된장(1Kg)	11	9.3	휘발유(1L)	1.5
3.3	라면(1개)	1.2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70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11	9.5	자동차보험료(2,000cc,1년,신규종합보험)	1,400
3.5	불고기(1인분, 200g)	15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2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12	10.2	시내버스(1구간)	0.7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2
4.1	햄버거(1개)	3.5	10.4	택시(추가요금/Km)	0.5
4.2	피자(1판)	15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8	11.1	전화 개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0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2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35
4.5	담배(수입산, 1갑)	1.5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3
4.6	위스키(1병, 750ml)	35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3
4.7	커피(1병, 175g)	10	11.5	국제전화(현지-서울,3분,평상)	6.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8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1,6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5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5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80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2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2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2
6.1	TV(29인치, 칼라, 범용)	600			
6.2	VTR(6헤드, 범용)	14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20			
6.4	전자레인지	18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8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800			

□ 도시: 리마(페루)			환율 : US\$1 = Sol3.32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5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7,0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2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9%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8,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3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1,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9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1,000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18홀,1라운드)	60	18.8	노동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30,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36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700	19.1	법정최저자금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6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3,2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60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 감기, 내과초진)	15			
14.4	치과(스켈링, 1회)	30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 유력지)	30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5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8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00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30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30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0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5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0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1,2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350			

연도별 인플레이션을 추이



(자료원: 페루 경제부)

3. 바이어 발굴

페루에는 바이어를 발굴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묘책은 없는 상황이다.

현지를 방문해 직접 잠재 에이전트나 바이어를 방문하면서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거리,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南美 방문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시장개척단, 세일즈출장 등의 방법으로 KOTRA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리마무역관은 연중 해외시장 조사대행, B2B e-Trade사업, 사이버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바이어 발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차선책으로 아래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중남미 바이어의 특성상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과는 시장개척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 오프라인 발굴방법

1) 각종 협회

- Camara de Comercio de Lima(리마상공회의소)
- Asociacion de Exportadores(ADEX, 수출진흥기관)
- 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SNI, 산업협회)

2) 기 타

- 페루 옐로우 페이지

나. 온라인

1) 관련 정부 기관

- 페루 관세청(SUNAT)
 - www.sunat.gob.pe

2) 각종 관련 협회

- 리마 상공 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Lima)
 - www.camaralima.org.pe
- 수출협회(Asociacion de Exportadores : ADEX)
 - www.adexperu.org.pe
- 수출진흥공단(Comision para la Promocion de Exportacion)
 - www.prompex.gob.pe
- 무역협회(COMEX)
 - www.comexperu.org.pe
- 산업협회(SNI)
 - www.sni.org.pe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벼운 인사말의 일상화로 모임, 사무실 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사를 교환하며, 일단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미소로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여성들은 볼을 맞대는 가벼운 키스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악수를 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무난하다.

남성은 여성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릴 때, 사무실 출입을 하는 경우 여성들이 먼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비켜주며, 특정 모임에서 여성들을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페루 인들은 출퇴근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에 잠시 사무실을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난 경우에도 언제나 서로간에 인사를 주고 받는다.

식사 또는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식사 중 말을 해야 할 경우는 입 안 음식을 모두 삼킨 후 얘기를 꺼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또한 타인이 보는 앞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매너로 인식되고 있다.

페루 인들에게 선호되는 선물로는 태극문양이 새겨진 부채, 전통 의상의 남녀 인형을 비롯한 한국문화 및 전통을 나타내는 장식품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인삼차 등과 같은 인삼제품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열쇠고리, 지갑, 다이어리, 만년필, 시계, 메모수첩 등이 선물로서 무난하다.

페루 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건 간에 서로 대화, 토의하는 것을 즐기는데, 특히 국내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얘기 거리가 가장 즐기는 주제중의 하나이며, 대화 상대방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마치 오래 사귀 친구처럼 받아 들이는 경향이 높다.

특히 비즈니스 모임 후에는 주점, 레스토랑 등에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스포츠, 영화 등의 문화적인 분야나 상호 자녀에 대한 이야기 등 가족관계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대화전개에 무난하다.

축구, 배구 등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즐기며 20년간 페루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을 맡아 현지에서 유명인사로 인식되어 있는 박만복씨가 한국인임을 이야기 하거나, CEBICHE (페루의 전통 수산물 음식) 또는 PISCO SOUR(포도를 원료로 한 전통 주류), 고대 잉카문명의 유적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CUZCO 등을 소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평화협정체결, 국경분쟁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관계가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인접국 에콰도르, 칠레 등과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으며 볼리비아와는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自國보다는 한 수 아래인 나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대화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상대방의 결혼과 관련된 사생활, 보수문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연령 등 비교적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적으로 화제대상으로는 부적합한 내용이 페루에서도 금기시되고 있다.

페루시장은 대량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 주문에 있어서 소량. 다품종 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시장진출 초기에 1회에 대규모 주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남미 사람들의 기질상 직접 대면을 통한 인간적 교류가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출장을 통해 바이어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중남미 사람들의 기질상 거래시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거래에 있어서 단기간에 예스냐 노냐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피하여야 하며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정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대부분 중남미국과 마찬가지로 페루는 중산층 형성이 미진한 시장으로 전형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1회 주문량이 작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소 주문량을 제시바라며, 바이어에 따라서는 시험주문(Test Order)을 해서 시장성을 타진한 후 본격적인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 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제 조건 관련하여 페루 바이어는 현지 은행의 까다로운 L/C 개설 요건과 비용과다를 이유로 L/C 방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소 바이어인 경우는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T/T와 같은 간편한 방법을 택하려고 하나 안전성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양자가 안정적인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무역관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음을 제시할 경우 바이어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분할 송금 비율은 거래 케이스별로 적절히 조정 가능)

- 계약시 총 금액의 30% 송금
- 물품 선적 후 총금액의 40% 송금: 무역관이 선적서류 수령, 바이어에게 도착 통보
- 무역관이 바이어의 잔금 30% 최종 지불 확인 후, 선적서류 양도

아니면 계약시 선금 50%, 무역관이 선적서류 인도시 50% 송금 방식도 소액 거래시 자주 통용되고 있다.

소량물품 안경테, 프린터 잉크 등과 같이 총량이 적은 물품은 특사우편(DHL, TNT, EMS, FEDEX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이어들에게 문의한 결과 현지 통관상 가장 용이한 것은 EMS라고 한다. 따라서 총 인보이스 가격이 \$2,000을 넘지 않는 경우 정식 통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분할 선적이 가능하면 EMS를 사용하여 1주일 단위로 송부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FOB 금액이 5천불을 상회하는 모든 수입상품은 화학제품 등 일부 공업용 원료 및 의약품 원료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후진국 특성상,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이 落後된 것을 감안할 경우, 물가가 비싼 편이지만 식품 조달 등 한국인 생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현지인과 혼혈인 비중이 높은 관계로 중남미국가로서는 특이하게 동양인에 대한 차별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기후는 주택위치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특히 수도 리마는 매연이 심하고 주변 환경이 사막기후로 전반적으로 삭막하고 겨울에는 햇볕을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직 전반적인 치안상태가 불안한 상황에 있으며 기업체 및 주택가에서는 사설 경비회사와 계약을 체결, 이에 크게 의존한다. 테러 및 범죄집단 활동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낮에는 이동 및 업무수행에 큰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지역적으로 리마 시내 舊중심가는 밀수품 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신변위험이 상존해 외국인의 경우 좀도둑, 강도 등의 표적이 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야간에 그러한 장소를 가는 것은 절대 禁物이다. 또한 강도, 납치, 살인 등 민생형 범죄가 항상 발생하므로 차량으로 수도권 외로 移動時는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인디오, 메스티조(혼혈)등이 전체 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 동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으로 호감을 갖고 있으며 후지모리 대통령의 訪韓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후지모리 前대통령의 이례적인 외국(일본)에서의 사임파동 이후 전반적으로 東洋人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W社의 페루 자동차부품시장 진출 성공사례

□ 국내업체, 무역관, 바이어의 三位一體

W 사는 자동차 부품과 중장비 부품을 모두 수출하는 업체로 현재 약 7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페루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6 년 초였다.

W 사는 처음부터 페루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I 사에 컨택을 시도하였지만, 만만치는 않았다. GM 정품만 수입하는 I 사는 현재 한국의 여러 업체들로부터 오퍼를 받고 있는 업체로, 거래선 또한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우선 바이어 측에서는 첫 면담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이 전부가 아니었다. 국내에서 오퍼하는 모든 업체에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동 바이어가 중요시 체크하는 것은 가격이었다. W 사의 가격은 다른 업체의 가격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이것이 첫 번째 난관이었다.

한국의 환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他업체가 계속하여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던 것. 바이어 입장에는 같은 GM 정품에 조금 더 싼 곳에서 수입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였다. 이에 W社は 최선의 가격표를 선정하여 전달하였으며, 리마무역관도 꾸준한 접촉으로 설득하여 첫 번째 샘플오더를 받아 내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첫 거래이기에 송금 방식부터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었으며, W社의 향후 거래를 위하여 바이어가 원하는 송금 방식을 수락하였다.

첫 번째 컨테이너가 선적되고 난 후 물건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I 사는 클레임을 걸었고, W社は 瑕疵가 없는 제품(모두 정품임을 강조)이라고 주장하였다. 리마무역관은 바이어와 상담하고 W社를 설득한 끝에 하자 제품의 금액에서 50%를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고, 이후 정식으로 첫 오더를 따내었다.

사실상 2 번째 오더 건은 금액이 작은 액수가 아니었으며, W社は 금번만큼은 송금 방식을 모두 외상으로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I 사는 꾸준히 거래하던 타 업체가 송금 방식을 바이어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거래를 해온바 바이어가 원하는 방식을 줄 수 없다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반발하였다.

리마무역관은 사이버상담회에 두 업체를 참가하게 하여 빠른 시일내로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바이어도 제품이 시급한 시기이며 2007 년도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해 들은바, 금번 오더분의 수량을 약간 줄이고 송금 방식을 W社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완결되었다.

이후에도 W社 제품가격만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내업체가 가격 상승을 고려하고 있어 차후에도 W社와의 거래를 계속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W社は 현재 에과들 등 다른 남미국 바이어와 거래하고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거주지

페루에서는 외국인 등록, 은행구좌개설, 보험 부보 등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정해져야 하며, 각종 서류 제출시 살고 있는 집의 公課金(전화세, 전기세) 납부 영수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집을 구하는 것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에 매일 기재되는 임대 광고란을 보거나 전문부동산 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통상 1-2개월 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동 보증금은 계약파기, 집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의 하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을 비워 주어야 할 때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집기나 주택 상태의 훼손(못 구멍, 벽의 흠집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비조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마에서 이용 가능한 아파트의 월세 수준은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나 20-3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월 \$250-300 수준에서부터 외국인주거 선호지역의 \$2,500-3,500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균으로 약 \$2,000-3,000 수준이면 대형의 최고급, 안전지역 집이나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다.

그러나 페루는 常時的인 물 부족 국가로 종종 수도물이 끊어지고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일 동안 물이 안 나오는 때도 있으며 전기도 예고 없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수도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 각 가정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물차가 매일 와서 각 건물 물탱크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정해진 때에 물차가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꼼짝 없이 물이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다르나, 주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은 해안 쪽의 상업중심지 SAN ISIDRO, MIRAFLORES 등의 아파트 촌과 내륙 쪽으로 LA MOLINA, SURCO 등지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해안지역의 아파트는 상업중심지에 소재 각종 편의시설에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보유한 반면, 습도가 높고 특히 겨울철(5월- 9월)에는 햇빛을 거의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내륙 쪽에 위치한 주택가에는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많은 장점이 있다.

나. 교육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녀를 인터내셔널스쿨에 보내나 교육비는 매우 비싼 편으로 지명도가 높은 루즈벨트학교의 경우 학기당 4,500불 수준이 되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그러나, 현지인 학교는 교육비 부담은 적으나 스페인어로 교육하고 교육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선호하는 한국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자녀교육관련 선택폭이 크지 않다. 대표적인 현지 외국인 학교로는 ROOSEVELT 학교를 들 수 있다.

- 학교명: Colegio Franklin Delano Roosevelt
- 주소: Av. Las Palmeras 325, Camacho, La Molina, Lima 12, Peru
- 전화: (51-1)435-0890

- 팩스: (51-1)436-0927
- 이메일: fdr@amersol.edu.pe
- 웹사이트: www.amersol.edu.pe
- 학비수준: \$5,000/6개월
- 기타경비: 입학금 \$6,000/1인당, 실험실습비 \$100/6개월, 과외활동비 \$50/6개월, 통학 버스비 \$375/6개월, 보험료(의료, 안전보험) 별도

이외에도 외국인 학교로는 영국계, 프랑스계, 독일계 등 학교가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사용 언어에 다소 차이가 있어 한국인 자녀교육에는 적합한 편이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韓人 학교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韓人會를 중심으로 僑民 2세를 위한 한글학교가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다.

다. 전화 신청

전화신청은 주거지역이 결정된 후 주고 소재지역 관할 전화회사 사무소를 찾아가 신청 하는데, 이때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소 확인이 가능 한 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본 (수도료, 전기료)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회선을 가설해 주고 있다. 신청료는 1회선당 79불이며 전화기를 포함 시는 99불이며, 최근 들어 페루는 전화회사의 민영화로 회선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전화요금은 인근국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다.

페루에도 우리나라처럼 최근 廉價의 휴대폰 서비스가 매일 나오고 있다.

라. 구좌개설

구좌개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개설이 까다로우며, 구좌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은행 구좌개설 신청서, 현지 거주사실(공과금 영수증 : 전화세,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증빙서, 최소 \$500의 예치금(구좌개설 후 인출할 수 있음)이 필요하다.

마. 병원

일반적으로 병원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RICARDO PALMA, JAVIER PRADO, SAN BORJA, SAN PABLO, ANGLO AMERICANA, GOLF 등 일부 현대적인 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엄청난 高額의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병원에 따라 다르나 단순진료의 경우 1회 최소 50-70불 내외가 소요된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클리닉(CLINICA)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진료에서 처방약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 가구류 및 생필품 구입

페루는 모든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삿짐을 부칠 때 필요한 물품은 한국에서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품질수준을 요하는 제품은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4개의 백화점이 함께 모여있는 쇼핑몰인 JOKEY PLAZA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자제품은 대형 전자제품 매장인 CURACAO, CARSA등을 이용하는 것이 제품의 선택 폭이나 가격 면에서 유리하며, 수입가구류를 제외한 일반가구류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메이커의 매장이나 직접 메이커를 접촉하여 구입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백화점의 경우 거의 100% 수입품인 관계로 가격은 비싼 수준이며, 각 구소재지 마다 중앙상가(CENTRO COMERCIAL) 또는 E.WONG 슈퍼마켓이 있어 생필품구입에 큰 어려움은 없다.

많은 중국계, 일본계 교민이 생활하는 관계로 일반 야채, 과일, 생선 등이 풍부한 편이다. 한국 슈퍼마켓이 있긴 하나 가격이 비싸며 그나마 찾는 물건이 귀한 경우가 많다. 컨테이너 통관시기에 맞추면 한국식품(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등) 구매가 가능하다. 대형 슈퍼마켓인 E.WONG, SANTA ISABEL 등에서는 라면, 사발면, 새우깡 등을 판매한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발달되어 있어 생필품 구입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과일, 생선 등 현지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지 않는 식품재료 등 제품 가격이 저렴한 반면 가공품은 대부분 수입되어 한국보다도 가격이 비싸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페루는 남미대륙 중 태평양 방향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서쪽은 태평양을 끼고 있는데, 남회귀선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위도상으로는 열대와 아열대에 속하나 기후는 남극에서 북상하는 홀볼트 한류가 페루 해안을 따라 흐르고, 한쪽으로는 표고 5,000미터가 넘는 안데스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등 변화가 큰 지형으로 인해 해안지대, 삼림지대, 산악지대 등 3지대에 따라 기후가 판이하게 다른 것이 특징이다.

1) 해안지대 (COSTA)

전체 국토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해안지대(COSTA)의 홀볼트 한류 때문에 비교적 온난한 사막형 건조기후이다. 하계(12-4월)에는 기온이 25도씨~35도씨를 나타내면서 다소 덥고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며, 동계(5-9월)에는 기온이 약간 내려가면서 (겨울에도 거의 10도씨 이하 내려가지 않음) 습도가 90-100%, 구름이 많으나 연중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해안지대의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주기적으로 발생 하는 "엘니뇨(EL NINO)" 현상이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수도 리마를 비롯한 뜨루히초, 치클라요, 삐우라, 따끄나 등이다.

2) 삼림지대 (SELVA)

전체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는 삼림지대(SELVA) 기후는 열대성기후로 연평균 28도C 정도로 습도도 높다. 4월-10월에는 건기로서 기온은 35도씨까지 상승하며, 11월-4월은 고온 다습한 기간이며 때때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이끼또스, 뿌깔파 등이다.

3) 산악지대 (SIERRA)

전국토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대(SIERRA)의 기후는 우기(11-3월)와 건기(4-10월)로 나뉘어 지는데, 건기에는 낮에 따뜻하며 건조하고 기온은 20도-25도를 나타내며, 밤에는 추우면서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데 종종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기도 한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쿠스코, 뿌노 등이다. 한편, 우기에는 대부분 아침에는 건조하고 청명하나 오후에는 약간씩 비가 내리며 종종 호우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기에는 기온은 18도까지 떨어지는데 밤에도 15도 수준 정도로 일교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도에 따라 온도 차가 심하고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다.

4) 리마의 기후

수도인 리마의 기후는 해안지대 기후로 연중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0℃(하계 최고 30℃, 동계 최저 11℃) 정도이다. 동계(4월말-11월 중순)에는 안개가 뒤덮여 햇빛을 거의 볼 수 없고 습도가 높고 쌀쌀한 기후인 반면, 하계(12월-5월)에는 일조량이 많고 비교적 더운 날씨이나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심한 더위는 없는 편이다.

리마의 월 평균 기온

(단위: 도씨)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25	26	26	24	21	19	17	17	17	19	20	23
최저	19	20	19	18	16	15	14	13	13	14	16	17

리마의 경우 여름(12월-4월)에는 여름 정장과 와이셔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짧은 소매 와이셔츠도 보편적으로 입기 때문에 더위를 느끼는 사람은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를 준비하면 된다. 가끔 여름에도 밤에는 쌀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얇은 점퍼 등을 준비하면 된다.

겨울(5월-11월)에는 춘추복 또는 동복을 준비하면 된다. 가장 추운 날씨가 10도 내외이나, 바다 바람과 함께 습도가 높아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매우 쌀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스웨터나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페루와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4시간으로 페루가 우리나라보다 14시간 느리다.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면 페루 시간으로 전일 오전 10시며, 한국시간 오전 10시면 페루시간으로 전일 오후 8시가 된다.

- 한국시간 7월 7일 오전 0시 -> 페루 7월 6일 오전 10시

한국 (7월7일)	0	1	2	3	4	5	6	7	8	9	10	11
페루 (7월6일)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7월7일)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페루(7월6일)	22	23	24	7월1	2	3	4	5	6	7	8	9

2) 근무시간

은행은 일반적으로 09:00부터 12:30까지 오전근무를 하며 15:00부터 18:00까지 오후 근무를 하나 창구에서는 중식시간에도 교대근무로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

그러나, 모든 은행들이 6월 30일과 12월 31일은 결산업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며 만약 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전후 첫 번째 날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Jorge Chavez 국제공항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은행지점들은 1년 내내 24시간 영업한다.

정부기관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부터 11:30까지 근무하고, 기타 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2:30까지 오전 근무, 15:00부터 17:00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근무시간은 바뀌는 경향이 많다.

한편 일반 상점의 경우 상점규모 및 성격에 따라 09:00 또는 10:00부터 12:30까지 오전 근무를 하며, 15:00 또는 16:00부터 20:00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대도시의 슈퍼마켓은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하며, 수도 리마의 일부 슈퍼마켓 및 일부 주유소와 붙어있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또한 토요일은 회사 및 상점에 따라 근무하기도 하나, 일요일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서머타임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도별로 전체 공공 민간부문에 시행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에만 적용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 도량형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곡물 단위에 ‘킨탈’ 등을 사용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미터법이 사용되고 있다.

무게는 kg를 사용한다.

일반 가정용 주택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60HZ, 220V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10V를 겸용으로 하여 전원이 들어와 있는 집도 있다. 산업지역, 대형건물, 전시장 등에는 380V 삼상 전원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페루는 대부분의 전기 제품이 220V 이지만 플러그는 아직까지 일자형이 많아 전기 제품을 소지하는 출장자는 별도의 일자형 플러그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라. 출입국/비자

1) 출입국

페루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 체류가 가능하다. 현지 비즈니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는 상용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상용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현지에서의 비즈니스내역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로 인해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페루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실행이 아닌 바이어와의 상담 등 시장개척 목적의 경우, 상용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통관 절차상 편리한 점이 많다. 출입국 절차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와 세관의 물품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타 국가와 비교 해 볼 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 여행자 짐 관련 상세 규정
(2006.3.17자, 페루 최고법령(Decreto Suprema) N 0162006EF 규정)
 - 무관세로 반입 가능한 물품리스트(아래의 규칙 제 4 항 참조)
 - 여행자는 휴대한 짐을 "Declaracion Jurada de Equipaje" 형식에 맞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해당관세를 지불해야 됨.
 - US\$10,000 또는 동등한 값어치의 페루 또는 他國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함 (법률 N 28306)

■ 규칙 제4항 - 무관세 반입 가능 물품

* 참고 ()안 숫자는 최대 허용 개수임

- 1) 여행자 개인 옷
- 2) 여행자 개인용품
- 3) 여행자 개인 장식품
- 4) 여행자 개인용 약품
- 5) 책, 잡지 및 여행에 필요한 서류
- 6) 여행시 여행자가 사용하는 일반 여행 가방, 핸드백, 손가방 등
- 7) 개인 머리빗이나 헤어드라이어(1)
- 8) 전기면도기나 면도기기(1)
- 9) 휴대용악기(1)
- 10) 휴대용라디오나 소형라디오(walkman) (1)
- 11) CD 20장까지, 카세트 및 녹음기용 디스크
- 12)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1)
- 13) 전문가용이 아닌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1)
- 14) 디지털 비디오용 디스크 하나
- 15) 카메라용 필름 (10),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 용이나 게임용 (2), 테이프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10), 저장 카세트 (10) 및 디스크 디지털 비디오용이나 비디오 게임 (10)까지 허용
- 16) 사진기 또는 디지털 카메라 (1)
- 17) 휴대용 전자 수첩 또는 포켓 컴퓨터 (1)
- 18)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1)
- 19) 휴대폰 (1)
- 20) 담배(20), 순수한 담배(50), Tabaco 또는 피우기 위한 담뱃잎 가루 250그램까지
- 21) 술 3병 (3리터)까지
- 22) 개인 病으로 인해 필요한 장비는 휠체어, 혈압기, 온도기, 포도당, 소형침대(들 것) 및 목발임.
- 23) 애완동물 (1)
- 24) 여행자가 상업용도가 아닌 선물용이나 개인용으로 반입하는 제품은 최대 美貨 US\$300달러까지 허용.
- 25) 타자기, 전기 또는 전자 그리고 휴대용 전자계산기(1)

■ 규칙 제5항 - 무관세 반입물품 제한사항

- 1) 만약 물품이 지정한 양을 넘거나 리스트에 없는 제품이라면 중고건 새 것이든 상관없이 아래의 규칙 6항 1)번과 2)번이 적용됨.
- 2)上記 규칙 4항의 21)번과 22번 물건을 들여올 경우에는 만 18세가 넘어야 하며 10번, 14번, 18번, 19번 및 20번 물건일 경우 만 7세가 넘어야 됨.
- 3) 入國時 짐을 바로 못 찾는 경우라도 30일 내에는 물건을 찾아야 함.
- 4) 자유로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용이거나 양도 불능 물품임.

■ 규칙 제6항 - 관세 관련 사항

* 상기 규칙 제4항에 지정되지 않은 물건을 들여오거나, 제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세나 벌금을 지불해야 함.

- 규칙 제 4 항에 지정된 리스트 외의 물건 구입시, 각 여행 마다 미화 US\$1,000 달러 가치까지의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20% 세금을 내어야 함.(물론 물품이 개인짐으로 인정될 때에 해당)
- 만약 미화 US\$ 1,000 달러 이상의 물건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세관이 개인물건이 아닌 상업용으로 인정하므로 그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함. 또한 한 해 제품을 들여 올 수 있는 총액은 US\$3,000 까지임.
- 전자제품, 가전제품, 공구 및 기기, 사업용이나 전문용일 경우 제품 한 개 이상을 들여 올 수는 없음.
- 짐(제품)의 가치 또는 양이 지정된 제한을 넘을 경우 세관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함.

□ 세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야 할 경우 :

- 개인짐을 상업용으로 인정할 경우(물건 양, 가치 및 종류)
- 물건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임시적이 아니거나 정기적으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한편 상업용 견본품인 경우 반입 후 페루 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반입이 허용되나 일정 가격이 상인 경우는 허용이 안되고 있다. 비즈니스 출장 시 견본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완벽한 외부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세관의 검사대상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즉, 제품의 원래 박스를 통째로 반입하는 것은 세관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가방 등에 넣거나 원래 박스를 해체하여 분해하여 반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

도착 시에 물품은 세관을 통과할 때 자신이 버튼을 눌러 파란 불이 들어오면 무사 통과, 빨간 불이 들어오면 예외 없이 샅샅이 물품을 검사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의 대책이 없다.

페루는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지이기 때문에 마약의 반출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출국 시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인터뷰를 하여 체크인 수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공항에서 출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국 시 공항세는 30.25불로 타국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며 참고로 페루 내 국내선으로 여행 시도 공항세를 약 7불이며 종전에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에 대해서 공항 세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9. 11일에 발생한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사건 이후 공항 출국 수속장에는 비행기표와 여권 소지자만이 입장이 되도록 엄격히 통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비행기 탑승수속 시 휴대화물도 검색이 강화되어 종전에는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하물, 심지어는 개인 신변용품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2) 비자

- 비자 발급처(주한 페루대사관)
 -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5번지 5호
 - 전화: 757-1735~7
 - 팩스: 757-1738
 - 휴일: 토. 일요일
 - 비자신청: 09:00 - 12:00
 - 비자발급: 14:00 - 17:00
 - 소요시간: 2-3일
 - 소요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한 페루 대사관에 직접 문의 요망

마. 환율/환전

1) 환 율

□ 화폐 단위

페루의 화폐단위는 누에보 솔(NUEVO SOL)이며, 단위는 S/. 로 표기하는데 솔 아래 단위는 미 달러화의 센트와 같은 센티모를 쓰고 있다. 한편, 페루에서는 자국 화폐인 솔과 미국 달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내구재의 가격은 대부분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현재 유통중인 지폐는 200솔, 100솔, 50솔, 20솔, 10솔 등 5종이 있으며, 주화는 5솔, 2솔, 1솔, 50센티모, 20센티모, 10센티모, 5센티모, 2센티모, 1센티모 등이 있다.

□ 환율

현지화의 대미달러 평균환율은 98년에는 1\$=S/2.94, 연간 평가 절하율은 15.4%로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99년도에는 1\$당 S/3.38로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다. 2000년 1\$당 S/3.49, 2001년 S/3.44, 2002년 S/3.49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이후 환율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2007년 들어 급격히 변화하여 12월 환율은 S/2.97 수준이다.

2) 환 전

환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없어 은행, 호텔, 거리 환전상, 환전소 등에서 자유로이 환전이 가능하며 은행에서는 대체로 낮은 환율이 적용되나 큰 차이는 없다. 단기 여행시에는 호텔에서 투숙객에게는 우대환율을 적용해주는 호텔이 많으므로 소액은 호텔 내 데스크에서 환전해 쓰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페루는 달러화를 공용으로 쓰고 있으며, 거리의 현금 자동인출기 및 대부분의 슈퍼마켓, 백화점, 심지어 거리의 행상에 이르기까지 달러로 인출 및 통용이 되고 있으며 단기 체류자의 경우 소액 달러 지폐를 갖고 있으면 현지화 환전 없이도 거의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다.

환전 시 주의사항으로 가급적 무허가 환전상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들은 은행이나 환전소보다 약간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현지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여행하는 외국인의 경우, 위조화폐 등의 감식 능력이 떨어져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출장자들은 호텔 내, 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페루를 비롯한 대부분 중남미에서는 여행자 수표는 위조가 많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거리의 환전소에서는 환전을 거부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므로 은행에서 환전해야 하는데 2-3% 정도의 환가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중남미 여행시 불편하더라도 미국 체류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일정 소요현금을 지참하고 여행하거나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한 호텔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교 통

□ 항공편

페루는 지리적으로 태평양 연안 남미국의 중간지점으로 항공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편은 종횡으로 편리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으로 가거나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대부분 모두 밤 12시, 새벽 1시 정도의 시각에 운행하고 있어 매우 불편하다.

페루에 기착하는 항공편은 대부분 미국(L.A., Miami, New York)을 경유하여 리마로 연결되고 있으며, 주요 항공편은 Lan Chile(칠레), American Airline, Continental(미국), Air Canada(캐나다), Aerolinea Argentina(아르헨티나), Varig(브라질) TACA등이 리마에 기착하고 있다.

한편 페루 항공사인 Aeroperu는 1999년 3월 파산하여 현재 페루 국적의 항공사는 Aerocontinente 사가 근근히 명맥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까지의 여행시간은 서울-L.A. 구간이 약 11시간, L.A.- 리마 구간이 약 8시간 정도 소요된다. 리마 국제공항은 2001년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에 30년 양허 조건으로 민영화되어 보수 확장공사가 완료 되어 남미의 주요 허브공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리마 Jorge Chavez 국제 공항은 2005년 상반기 영국 컨설팅 회사인 스카이 트랙스가 실시한 '월드 베스트 공항' 설문 조사에서 남미 최고 국제공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국내항공

페루가 비교적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항공 망도 잘 발달되어 있어 지방여행에 불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각 지역간의 연결망은 극히 부진한 편이다. 즉,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수도인 리마에서 출발한다. 2005년 이후 유가상승으로 항공료 또한 인상되어 대략 국내선 왕복에 \$200-250 수준이며 요금은 시즌 별로 다소 상이한 편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 선편

선편은 월 2회 Callao-Pusan 정기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비정기선편이 간혹 운항되고 있다. 부산에서 리마 까야오 항구까지의 운항 기일은 약 35-40일 정도가 소요되며, 40"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은 약 \$4,500 수준이다.

□ 택시

페루는 아직 택시미터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사와 가격협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택시영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앞 유리에 "TAXI"라는 스티커를 한 장만 붙이고 영업을 하면 된다. 노란색으로 차량 위에 택시표시를 한 차량은 정식으로 택시 영업허가를 받고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택시이다. 외국인은 특히 밤중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식 영업등록 택시나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호텔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봉변을 막는 방법이 된다. 택시 요금은 최소 4-5솔(약 미화 1.25불) 정도는 주어야 하며 거리에 따라 흥정하기에 달려 있으나 리마 시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5-10솔 정도가 소요된다. 공항에서 시내 도심(호텔)까지 이용하는 경우 공항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다소 비싸 약 20불 정도가 소요되며, 일반택시의 경우 약 30솔 정도를 주면 무난하다. 반면에, 새벽이나 저녁에 공항으로 나가야 할 경우는 호텔 택시도 투숙 손님에게는 할인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버스

버스는 마이크로 버스부터 대형 버스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대략 한번 탈 때 1솔에서 1.5솔 정도이다. 비록 허름하기는 해도 운행구간만 알면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택시보다 더 경제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 택시운전수 중에는 간혹 강도들과 연결해 외국인승객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나 버스의 경우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도 날치기 등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도시와 도시 구간에는 비교적 시외버스가 잘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여행을 하는 경우 잘 이용하면 운치가 있는 여행을 즐김과 동시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 도로

페루는 총 연장 70,000Km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주를 연결하는 기간도로 망은 15,075Km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간도로망은 전국을 동서 남북으로 횡단하고 있는데 하나는 북부 에콰도르 국경에서 남부 칠레국경까지 연결된 Panamericana 도로이고, 하나는 태평양 연안의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안데스 산맥 및 아마존 정글을 가로지르는 Carretera Central 이다.

페루의 지역별, 노면 별 도로설비 현황(KM)

지역별	구분	총연장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해안지역	국가기간도로	4,575	3,994	581
	주별기간도로	2,630	759	1,871
	인접도로	8,623	671	7,952
산악지역	국가기간도로	8,726	1,443	7,283
	주별기간도로	11,208	296	10,912
	인접도로	27,957	90	27,867
정글지역	국가기간도로	2,392	364	2,028
	주별기간도로	605	3	602
	인접도로	3,226	3	3,220
합계	국가기간도로	15,693	5,801	9,892
	주별기간도로	14,444	1,058	13,386
	인접도로	39,806	767	39,039

2) 통 신

□ 전화

최근 5년 동안 전화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화비는 스페인계 전화회사인 Telefonica사의 독점으로 전화비는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 통신사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페루업체와 교신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 중 하나는 전화와 팩스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팩스로 전환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난감해 하는 업체들이 많다. 팩스를 보내고자 할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Deme tono de fax"(데메 또노 데 팩스) 또는 "Tono de fax, Por favor(또노 데 팩스, 뽀르화보르)"라고 요청하면 된다.

□ 셀룰러폰

최근 들어 셀룰러폰의 보급률이 일반전화 보급률을 앞질러 연간 10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구입비용 및 사용료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셀룰러폰의 경우 주요 통신사는 Telefonica와 Claro가 쌍벽을 이루고 무선 라디오의 경우 Nextel 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페루에서 셀룰러폰을 사용할 경우 미리 카드를 사서 충전 액만큼 사용하는 Pre-Pago 방식과 한국과 같이 후불제로 지불하는 Post-Pago 방식이 있다.

□ 우리나라와의 통화

한국까지의 국제전화 요금은 분당 약 \$1.5불 수준이며 시간대에 관계없이 연결은 매우 좋은 편이다. 단,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는 일반가격의 약 3배 요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할 경우에는 "00"을 앞에 붙이고 한국코드 "82"와 지역 번호를 누른 다음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즉 부산의 444-1234에 전화하고자 하면 "00-82-51-444-1234"로 다이얼 하면 된다.

한국에서 페루에 전화를 하려는 경우 국제전화 이용코드(001, 002, 008등) 다음에 페루 국가코드 "51", 지역코드(리마의 경우 "1") 다음에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페루 리마 무역관의 442-2834 번호로 전화할 경우 "001-51-1-442-2834"로 하면 된다.

□ 공중전화

페루 공중전화는 전화회사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2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Telefonica del Peru사가 가장 큰 회사이며, Telepoint가 후발 경쟁업체이다. 최근 들어 Telmex 사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설치된 전화기 수는 낮아 매우 찾기 어렵고 불편하다.

Telefonica del Peru사의 시내전화기는 카드, 동전 겸용이고(기본요금 50센티모, 약 200원 수준) Telepoint의 경우는 카드만 가능하여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기본 S./20 짜리 전화카드를 구입하여야 한다. 한편, 공중전화 중에는 카드식 전화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화박스 안에 명시되어 있는 가까운 판매소에서 Telepoint나 Telefonica del Peru등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 하는 것이 편리하다. 최근 관광객들이 주로 모이는 Miraflores 에서 아시아권 전용 통화권을 판매하는 등 국제전화 사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 **자동로밍 안내** : 페루의 경우 국내 3사 통신사 중 SKT 사가 제공하는 CDMA 자동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상세 내역 www.tworld.co.kr 참조

사. 호텔/식당

1) 호 텔

페루의 호텔요금은 국민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비싸다. 특급 호텔의 경우에는 1일 \$250 내외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별 다섯개급 호텔의 할인요금은 \$120-170 정도 수준이다. 페루 리마 무역관에서는 시장개척단 및 세일즈 출장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 할인 요금을 적용 받는 호텔을 선정하여 요청 시에 예약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요금수준은 \$90 - \$130 정도이다.

한국의 출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호텔은 Marriot, Swiss Hotel, El Pardo, Sheraton Lima, Las Americas, Hotel Los Delfines, Holyday INN 호텔 등이다.

Marriot 호텔은 2000년도 말에 개업한 호텔로 해변에 위치하여 풍광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요금이 비싸고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바이어들이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단점이다.

Swiss Hotel 호텔은 신흥 상업지역(San Isidro)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로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이며, 각종 국제회의와 정부 주최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호텔로 유명하다.

또한 근처의 Hotel Los Delfines도 일류 호텔이며, 호텔이름에 걸 맞게 호텔 내 풀에 돌고래를 키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호텔의 숙박요금은 \$230-245 수준이며, 무역관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예약을 할 경우도 세금 및 조식 포함 \$120 내외 수준이 된다.

El Pardo 호텔, Las Americas 호텔 그리고 Holiday INN 호텔은 신흥 상업중심지이며 관광지인 Miraflores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손 꼽히고 있으며 바다에서 가까워 걸어서도 바다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변이 번잡하고 주차장 시설이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요금은 무역관이 예약 시 El Pardo 호텔은 조식, 세금 포함 105불, Las Americas 호텔은 조식, 세금포함 90불, Holyday INN 호텔은 70불 정도 수준 이다.

Sheraton 호텔은 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등이 위치해 있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나, 오래된 호텔로 청결도가 조금 떨어지고 주변 공기 오염도가 높은 편이며, 호텔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은 빈민 지역으로 좀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야간 출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관에서 예약 시 요금은 세금 및 조식 포함 110불 정도이다.

장기 투숙자를 위한 아파트형 호텔로는 San Isidro 에 위치한 Plaza del Bosque 아파트 호텔이 적당한데 무역관에서 예약 시 세금 및 조식 포함 110불 정도로 4명까지 투숙이 가능하며 작은 주방이 딸려 있어 간단한 조리도 가능하다.

최근 들어 관광 진흥법에 의거 체크인시 여권사본과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관은 이중 Swiss Hotel, El Pardo Hotel, Las Americas Hotel, Holyday Inn을 주로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무역관으로 요청하면 된다.

○ SWISSOTEL

- 주소 : Via Central 150, Centro Empresarial Camino Real,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421-9888
- 팩스 : (51-1) 421-4360
- Home Page : www.swissotel.com

○ Marriot Hotel

- 주소 : Malecon de la Reserva 61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217-7000
- 팩스 : (51-1) 217-7002
- Home Page : www.marriott.com/default.mi

○ Sheraton Lima Hotel y Casino

- 주소 : Av. Paseo de la Republica 170, Cercado, Lima, Peru
- 전화 : (51-1) 315-5000
- 팩스 : (51-1) 315-5015
- Home Page : www.sheraton.com.pe

○ HOTEL EL PARDO

- 주소 : Jr. Independencia 141,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617-1000
- 팩스 : (51-1) 444-1185
- Home Page : www.doubletreeelpardo.com.pe

- Hoteles Las Americas
 - 주소 : Av. Benavides 41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241-2820
 - 팩스 : (51-1) 444-1137
 - Home Page : www.hoteleslasamericas.com

- Holiday Inn Select
 - 주소 : Av. Benavies 300,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242-3200
 - 팩스 : (51-1) 610-0707
 - Home Page : www.hiselect.com

- Delfines Hotel & Casino
 - 주소 : Calle Los Eucaliptos 55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215-7000
 - 팩스 : (51-1) 215-7071
 - Home Page : www.losdelfineshotel.com.pe

- Plaza del Bosque
 - 주소 : Av. Paz Soldan 16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441-8818
 - 팩스 : (51-1) 421-8582
 - Home page : www.plazadelbosque.com

2) 식당

한국에 리마를 방문할 경우에는 현지음식(양식), CHIFA라는 간판이 걸린 중국식, 몇 군데의 일식집 등 시내 곳곳에 식당이 분포되어 있어 식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현지식은 스테이크 등 기존의 전통 양식에 CEBICHE(생선 등을 레몬즙에 버무린 것), PISCO SOUR(포도를 발효시킨 전통주)등 독특한 페루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는 바닷가에 자리잡고 해물요리의 다양성으로 기네스 북에 오르기도 한 COSTA VERDE가 최고급 식당으로 꼽힌다. 또 Muelle Uno, Rosa Nautica, Astrid & Gaston, Asia de Cuba등도 유명한 식당 중 하나이다.

한편 현지 음식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거리에서 쉽게 발견되는 CHIFA 간판을 찾아 중국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식의 경우에도 호텔 등에 문의 시 쉽게 가까운 일식당 주소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식당은 신흥상업 지구인 Miraflores에 집중되어 있고 음식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또한, 한국 식당과 한국 슈퍼에서 김치, 쌀, 라면 등도 구입할 수 있다.

- 고려정 (순수 한국식당)
 - 주소 : Av. La Paz 68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 (51-1) 444-2890
 - 참고 : 하숙집 겸함, 1일 1인당 30 달러이며 식사 및 세탁 포함

- 노다지 식당(순수 한국식당)
 - 주소 : Av. Aviacion 3257,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476-0093
- 친니친니(한식, 중식, 분식)
 - 주소 : Av. Fray Luis de Leon 484,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224-7087
- 아리랑 (순수 한국식당)
 - 주소 : Av. Salaverry 3261,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264-1609

3) 현지 음식

- 세비체(Cebiche)
 - 신선한 흰살 생선에 레몬즙, 양파, 야채, 샐러드유, 향신료 등을 곁들인 페루의 대표적인 요리
- 안띠꾸초(Anticucho)
 - 소(또는 닭)의 영통을 납작하게 썰어 꼬치에 끼워 구운 요리
- 삐스꼬 사우어(Pisco Sour)
 - 포도로 만든 술 삐스꼬에 계란 흰자, 가무시로, 레몬즙 등을 각 식당의 독특한 비율로 칵테일 한 주류
- 치차모라다(Chicah Morada)
 - 보라색 옥수수를 삶아 파인애플 등을 넣어 만든 음료
- 산꼬차도(Sancochado)
 - 닭고기, 옥수수, 호박, 양파, 감자 등이 들어간 야채 수프

아. 관공서 관행

많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일반적으로 이권부서 관료들은 태만, 부패되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행정 및 인가 절차가 정해진 기간보다 지체되는 것이 보통이며, 보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인사를 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1990년도에 전 후지모리 대통령 정부 집권 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태로 부정 부패와 공무원들이 퇴근 후 부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찰이 퇴근 후 야간에 민간 경비용역회사에서 일하거나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견되고 있고 교통경찰한테 신호위반으로 걸리면 외국인은 20-30솔, 현지인은 10솔을 주고 해결 하는 것이 관행이다. (단, 최근 증원되는 여자 교통경찰관에게는 잘못 뇌물을 건내다 걸리면 고발당할 가능성이 크다)

관광서를 방문할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나 공식적인 면담 시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 본인을 위한 면담이라면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처리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도 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약속된 면담이라도 무한정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하루 전쯤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공휴일

페루는 공식 휴일 이외에 정부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의 휴일이 별도로 있으며, 간혹 현지 관광진흥을 위하여 공식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도 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월요일이 공휴일의 중간에 끼일 경우도 연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휴일명	날짜
신년(Año Nuevo)	1/1
부활절(Semana Santa)	4/13~ 4/15(2006년도 경우)
노동절(Día del Trabajo)	5/1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날 (San Pedro y San Pablo)	6/29
독립기념일(Fiestas Patrias)	7/28 ~ 7/29
성녀 ROSE의 날(Santa Rosa de Lima)	8/30
앙가모스 전투 기념일(Combate de Angamos)	10/8
성자의 날(Todos los Santos)	11/1
성모의 날(Immaculada Concepcion)	12/8
성탄절(Navidad)	12/25

주: 공휴일은 고정되어 있으나 復活節 휴가기간은 카톨릭月曆에 따라 매년 변동

차. 여행시 유의사항

상비약은 리마 곳곳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止瀉劑인 정로환, 진통제, 간단한 감기약 등은 휴대 하는 것이 좋으나 잘 듣지 않아 현지약을 사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으며, 최대 관광지인 CUSCO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물파스도 준비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산병(Soroche) 대비약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데 효과도 좋고 개당 1불 미만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리마의 경우 여름(12월-5월)에는 하복 정장과 와이셔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짧은 소매 와이셔츠도 보편적으로 입기 때문에 더위를 느끼는 사람은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를 준비하면 된다. 가끔 여름에도 밤에는 쌀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얇은 점퍼 등을 준비하면 무난하다.

겨울(6월-11월)에는 춘추복 또는 동복을 준비하면 된다. 가장 추운 날씨가 10도 정도이나, 바다 바람과 함께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약간 싸늘하게 느껴지므로 스웨터나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남미 최대 관광지인 Cuzco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 있으므로 두꺼운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페루의 경우 호텔에서 냉방은 되나 난방 시설은 없기 때문에 유념하기 바란다.

1992년 페루의 양대 테러단체인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 일명 "빛나는 길") 및 뚜빡아마루 혁명운동(MRTA)의 리더가 체포된 이후 테러 단체의 세력이 크게 약화 되었으며, 현재는 일부 잔존 세력이 정글지역에서 활동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테러 조직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및 실업난 등으로 민생범죄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강도, 절도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외출시는 고가 소지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특히 야간에는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시장은 완전자유화로 외화의 보유, 송금, 환전 등이 자유로우며, 달러화의 거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액 달러화 보유 시에는 현지화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환전 필요성이 없음) 달러화 소지 및 이용이 빈번한 만큼 위조지폐(특히, 고액권 달러)도 상당량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 달러화

- 가운데 인물 그림이 있는 부분을 손톱으로 긁었을 때 울룩불룩하게 굴곡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면 진폐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현지화

- 밝은 쪽을 향해 지폐를 펴서 보았을 때 지폐상에 있는 인물사진 한 쪽 여백에 투영되어 비쳐지는 경우 진폐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단, 위조 지폐에도 투영인물 사진을 손으로 그려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밝은 쪽으로 비추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폐에 인물사진이 희미하고 조악하게 보이면 위조지폐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급적 거리에서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노점 환전상의 경우 위조 지폐 및 계산기 조작에 의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바이다.

'91년도에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 이중 천여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고 아직도 여름철에는 연례적으로 콜레라환자가 소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식당이나 집에서 손수 익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돗물의 경우에는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때로는 박테리아, 아메바성 장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食水로 부적합하며, 판매용 광천수(Agua Mineral)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사람들은 주로 Agua Mineral Sin Gas(아구아 미네랄 신가스)를 주로 찾고 있으며 탄산이 첨가된 미네랄 워터는 Con Gas(콘가스)라고 한다.

시내 도처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CLINICA)이 소재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911 제도를 본뜬 116 비상구급 전화번호 제도를 갖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서비스의 질은 낮으며, 비상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잦은 실정이다. 페루에서 가장 기민한 기동력을 갖춘 기관은 소방서와 자원경찰대(Serenazgo)로서 이들 기관에 연락,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현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구급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응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환자 등은 보험형태로 비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현지의 도로설계는 나름대로 발전된 형태를 갖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급격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주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이며, 대형버스에서부터 붐고 스타일의 소형 버스에 이르기까지 형태 구분이 없으며 버스에 부착된 행선지명과 노선번호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잦은 노선 변경으로 승차 전 반드시 물어보고 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가장 빠른 대중교통수단은 택시로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타기 전에 거리에 따라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출 시 사전에 목적지까지의 택시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으며, 요금은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호텔에서 승차하는 경우 호텔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시내에서 탈 경우 교통 경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가지도 쓰지 않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권유한다.

시내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리에 따라 미\$ 1-3 정도면 적당하며 리마의 국제공항인 호르헤 차베스 공항에서 리마 중심까지(미라플로레스 혹은 산이시드로)는 약30Km 정도인데, 공항에서 시내로의 교통편은 외국인인 경우 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택시요금은 공항전용 택시(검은색)는 미\$15-20 정도이며, 일반택시는 미\$5-10 정도이다.

개인적인 방문이나 시장개척단 등 단체 방문시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비행기를 다시 타야 할 경우 외에는 旅券은 항상 호텔 내 여행용 가방에 보관시키고 여권 사본을 하여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핸드백에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를 당하여 다음 여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념하기 바란다.

페루의 경우 환전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굳이 신분증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특히, 페루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여권의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특히 한국여권은 위조가 용이하고(예컨대, 사진을 디지털 처리하지 않고 직접 붙이는 제작방법 등) 인종도 인디오 혼혈 계통과 유사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여권 중 하나이니 조심하기 바란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대사관

- 주소: Av. Principal 190, Piso 9, Urb. Santa Catalina, La Victoria, Lima, Peru
- 전화: (51-1) 476-0815, 476-0861
- 팩스: (51-1) 476-0950
- e-mail: koremb-pu@mofat.go.kr

2) 무역관

- 주소: Av. Canaval y Moreyra 452, Piso 9,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442-2834, 222-2760, 222-7006
- 팩스: (51-1) 442-0841
- e-mail: kotrape@terra.com.pe

3) 한인회

- 주소: Av. Aviacion 3199, piso 3, San Borja, Lima, Peru
- 전화: (51-1) 225-3181
- 팩스: (51-1) 225-3180

4) 현지 진출 한국기업

□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

- 업종: 원유개발 및 생산판매
- 전화: (51-1) 222-4772
- 팩스: (51-1) 222-5947
- 설립 연도: 1996년

□ LG전자(LG Electronics Peru S.A.)

- 업종: 가전제품 판매법인
- 전화: (51-1) 440-4500
- 팩스: (51-1) 421-0548
- 설립 연도: 1997년 10월

□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 업종: 가정용 전자제품
- 전화: (51-1) 221-4134/5
- 팩스: (51-1) 221-4139
- 설립 연도: 1996년 2월

□ (주)대우인터내셔널

- 업종: 종합무역
- 전화: (51-1) 221-4244
- 팩스: (51-1) 422-1914
- 설립연도: 1996년

□ LS Nikko

- 업종: 광업
- 전화: (51-1) 617-1313
- 팩스: (51-1) 446-4653
- 설립연도: 2002년

SK

- 업종: 석유 개발 및 석유 제품 마케팅, 가스 판매
- 전화: (51-1) 421-2787
- 설립년도: 1996년

5) 현지 韓人여행사

 고려여행사

- 주소: Av. La Paz 681,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444-8292
- 팩스: (51-1) 446-5430
- e-mail: gokoryo@terra.com.pe

 리마 연합여행사

- 주소: Av. Jose Pardo 610, Mezanine 24,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241-4255/243-0527
- 팩스: (51-1) 241-4255
- e-mail: hs_153@hotmail.com / hs_153@hanamil.net

6) 현지 경제단체

 리마商議(Camara de Comercio de Lima)

- 주소: Gregorio Escobedo 398, Jesus Maria, Lima, Peru
- 전화: (51-1) 463-3434
- 팩스: (51-1) 463-2820
- e-mail: webmaster@camaralima.org.pe
- Home Page: www.camaralima.org.pe

 산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

- 주소: Los Laureles 36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421-8830
- 팩스: (51-1) 442-2573
- e-mail: webmaster@sni.org.pe
- Home Page : www.sni.org.pe

 전경련(CONFIEP)

- 주소 : Av. Victor Andres Belaunde 147, Edificio Real Tres, OF.401,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 (51-1) 422-3311
- 팩스 : (51-1) 422-1509
- e-mail : postmaster@confiep.org.pe
- Home Page : www.confiep.org.pe

□ 수출협회(Asociacion de Exportadores : ADEX)

- 주소 : Av. Javier Prado Este 2875,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346-2530
- 팩스 : (51-1) 346-1879
- e-mail : postmaster@adexperu.org.pe
- Hoem Page : www.adexperu.org.pe

7) 주요 정부부처

□ 교통 통신부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 주소 : Av. 28 de Julio 800, Cercado, Lima, Peru
- 전화 : (51-1) 433-7800/433-3790
- 팩스 : (51-1) 423-7705
- Home Page : www.mtc.gob.pe

□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 주소 : Av. Las Artes Sur 260,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475-2055
- 팩스 : (51-1) 475-0688
- e-mail : postmaster@mem.gob.pe
- Home Page : www.mem.gob.pe

□ 관세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SUNAT)

- 주소 : Av. Gamarra 680, Chucuito, Callao, Peru
- 전화 : (51-1) 469-0058
- 팩스 : (51-1) 465-0585
- Home Page : www.aduanet.gob.pe

타. 관광명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2박 3일 코스의 잉카유적지인 마추피추 및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해발 3800m의 고도인 CUSCO를 방문할 수 있으며, 아마존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IQUITOS,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4200m)에 위치한 TITICACA호수, 그리고 거대한 문양이 땅에 새겨져 있어서 경비행기를 타고서야 볼 수 있는 기원 후 1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NASCA 문명, 펭귄 서식처 중 남반구 한계선이라 하는 빠라카스 물개섬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Cuzco를 제외하고는 호텔 등 주변시설은 열악한 편이다.

특히 마추피추 관광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지역의 지반 붕괴로 2004년 하반기부터 일일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수기의 경우 1주일 전, 성수기의 경우 2주일 전에 쿠스코-마추피추행 왕복 열차 티켓을 구매 해야 한다. 그리고 리마-쿠스코는 일일 편도 8편 정도 운항이 되나 우기의 경우 잦은 기후 변화로 지연, 결항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간의 방문일 경우 리마 시내관광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통령 궁, 대성당 등이 위치한 Plaza de Armas 등 구 시가지와 잉카 유적 및 당시 금문화를 대변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금 박물관(Museo de Oro) 및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문화인 Chimu 문명 등을 전시한 국립박물관(Museo de la Nacion)등 주요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이외에 시간여유가 있을 경우는 리마 북부 600KM 북방의 트루히요시 인근의 찬찬(Chan Chan) 유적지나 1000KM 떨어져 있는 까하마르까(Cajamarca)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마존 줄기에 위치한 Loreto주 이끼토스(Iquitos)를 방문하여 정글 탐험도 가능하나 당일 코스로는 적합하지 않다.